



KOREA

THE 100<sup>TH</sup> ISSUE OF  
**MAXIM KOREA**

2011년 10월호  
정가 5,400원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10



# MAXIM FEATURES

## OCTOBER 2011

### 56 HOT OFFICE ASSISTANT

업무 효율을 추락시키는 섹시 어시스턴트! 그것도 들쭉이나?

### 60 ICON:

#### 신진식

갈색 폭격기가 MAXIM을 습격했다.

### 62 오빠, 군대 어디 갔다 왔어?

오뚜기 부대를 눈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녀에게 분노한 예비역 에디터의 부대 마크 구별법.

### 64 재클린

#### 맥킨네스 우드

(파이널 데스태이션 5)의 피아 내장, 글수 피편 속에서 건진 보석 같은 섹시 미녀.

### 70 REAL

#### FIGHTER: F-15K

상상에게 오승환이 있다면 우리나라 공군에게는 전폭기 F-15K가 있다!

### 80 당신이 여자에 대해

#### 모르는 100가지 것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 113 SPECIAL ISSUE

## THE 100TH MAXIM KOREA

드디어 100번째 MAXIM 한국판이다! 그동안 독자의 인기를 호감시켜 주기 위해 MAXIM에 등장한 미녀 중 70인을 한자리에 모았다. 내친 김에 지금껏 MAXIM이 만난 멋진 형님들에게서 '조짜' 남자에 대한 정의도 배워 보았다. 온리모유!  
(그 앞 연엔 열혈 독자에게 캄코더를 떠드라는 특별 이벤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독자님이  
벗으려면  
벗어야요





“나만 바라보면 O.K.”

## + 74 김그림

〈슈스케이2〉의 김그림이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냐, 못 그린 기린 그림이냐. MAXIMI가 Mister이를 풀었다.

원피스 제이미앤벨  
필피 게스 주얼리  
빈지 데이드림  
슈즈 카사



18



44



64



86

### 14 CIRCUS MAXIMUS

지도로 보는 세계 최약의 조폭, 취직 안 되는 관상, 뷔스볼 퀴이즈, 씨름 선수처럼 발다리 걸기 전장에서 여자 고시기기 가을 징병 세이빙, 대한민국이 등 먹은 것, 회태의 섹드립 18선

### 34 RATED

패 관점은 여성 록밴드 스윙 리벤지, 시름 잡는 영화 4편, 대학로 공연 3중 세트, '오빠 믿지' 방어 열, 명작의 귀환 〈워헤어 4000〉 & 〈태〉(어스 엑스), 괴이한 밴드 구남과레이디싱스텔라

### 42 24 HOURS TO LIVE : 〈정열맨〉의 귀귀

시름과 정열의 귀귀월드로 초대합니다.

### 43 STUFF

스케너를 꿈꾸는 미우스, 뒷태를 숨막하게 하는 백팩, 한정판 시계, 추억의 '핸드폰'

### 50 MOTOR

전문기에게배우는 바이크 스텐트 스릴 with KTM 125 DUKE, 숫자로 보는 FI

### 84 STYLE

가시큰 큰 남자의 뺨스, 지구 정복 아삼가 NB 운동화, 오만가지 상황애 어울리는 10만 원대 아이템, 탈모 자가 체크보고 울지 마

### 104 THE MAXIM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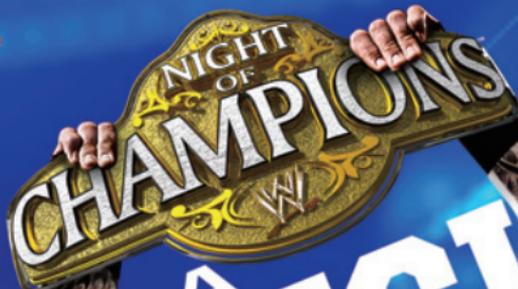
불태웠어, 모두 불태웠어, 새하얗게.

### 106 WHO'S THAT GIRL : '티겔' 유진아

이번엔 우리가 그녀에게 티셔츠를 주었지, 그것도 아주 핫한 걸로.



**FX**  
남자의 모든것



IT'S A NIGHT  
WILL YOU NEVER  
forget



FX채널  
맞보고  
과월호 받기



**WWE Monthly Special**  
**2011 나이트 오브 챔피언**  
**10월 8일(토) 밤 10시**

tcast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 MAXIM

KOREA

편집장 이경미  
yj@maximkorea.net

## EDITORIAL / 편집부

수석에디터 차정 고경희 koko@maximkorea.net  
에디터 과정 유승민 sm@maximkorea.net  
대리 김진현 psycho@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d@maximkorea.net  
주임 김희성 alicia@maximkorea.net  
서면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서면 송종민 jm@maximkorea.net  
객원에디터 김대영 storm@maximkorea.net  
장바버 juliahr1@maximkorea.net  
어시스턴트 조유림 new@maximkorea.net  
조다현 hj@maximkorea.net

## DESIGN / 디자인

디자인어 조미연 berrymee@maximkorea.net  
주임 이은학 eastlocust@maximkorea.net  
서면 이보라 bora@maximkorea.net  
일러스트레이터 서민 정영호 ziroqoo@maximkorea.net

## STRATEGIC PLANNING / 기획 전략

이사 소성혁 so@maximkorea.net  
과장 진우민 woobin@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최안정 joy@maximkorea.net

##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종국 jk@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d@maximkorea.net  
대리 홍슬라 soulmate@maximkorea.net

## WEB SERVICE / 웹

탐방 사정인 orisls@town.com

## 발행인/ 대표이사 이혜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영주 / 이사 황해진 / 이사 소성혁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교열 신선경 kshin0111@daum.net

인쇄 · 원색분쇄 (주)다라테크네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사리 12-1 인쇄인 이원순

유통 송주출판유통



발행처 (주)에디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6-301 MAXIM KOFEA 1층 1~4층  
TEL. 02-323-1182 / FAX. 02-625-0193  
2012년 10월호 통권 제85호 / 등록일자 2002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로 라-00250

MAXIM KOFEA는 세계 30여개국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이다. MAXIM 창립의 후원자 미국인 발행인이자 그들중 2002년 1월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MAXIM에 독점적 상표사용 권을 부여하였다. (주)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이하여 MAXIM의 한국판권을 출판, 배부, 판매하고 웹사이트를 운영, 사후서비스를 운영하며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리미디어와 영미 일리미디어와 영미 일리미디어는 MAXIM의 브랜드와 로고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일리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되므로 무단으로 열거 할 수 없습니다.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https://twitter.com/maximkorea)

| www.maximkorea.net |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NCOX

##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W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4th Floor, New York, NY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USA JOE LEVY

ESPAÑ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é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Č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Ć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TURKEY KAA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RYANOV

GREECE GEORGE FOTINOPOULOS

INDIA VIVEK PAREKH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IOTE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totally timeless trend...

Let it just be brilliant

# LETTER FROM MAXIM



이 모든 영광을 독자님께



지난 일요일인 9월 18일, 부실하게 운영되던 상호저축은행 7개사가 전격 퇴출됐다. 부신저축은행 사태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 겨우 반년 남짓한 시점의 일이다. 우리 이미 10여 년 전 IMF사태 때 은행도 말한다는 거, 그리고 은행 잘못 골라서 저축했다는 저축한 돈을 출금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미 배웠다. 그래도 '살아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일어나도 나한테 일어났진 않을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서민 금융을 책임지겠다는 상호저축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다.

예고 없이 폐쇄된 저축은행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은행 서터문을 붙잡고 서있는 노인들의 표정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왜? 허먼... 남의 일이 아니니까! 재무담당자 얼굴에 'MAXIM도 J저축은행에 돈 좀 넣어놨다'가 울렁음이라고 또렷하게 쓰여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상징사도 아닌데 상관없지?)

100호 특집 서문을 우울한 얘기로 시작하려는 건 아니다. '역사적이고 가슴 벅찬 100호 달성을 칭송하는 자백 스토리 피노리미'로 첫 페이지를 도배하는 것도 낯익어지고, 그저 MAXIM도 '보통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MAXIM도 지금껏 100번이나 한국땅에 나오면서 나이를 먹다 보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별의 별 희한한 신전수전을 '사람'처럼 겪으며 독자들하고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다.

60호를 작업하던 즈음 뜻밖에도 옛된 얼굴로 인사했던 막내 고경희 에디터는 어느새 MAXIM의 수석에디터가 되어 다음 달엔 시집을 간다고 한다. 주식 시장이 널뛰기를 하면 개인 투자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심장과 쿨구멍이 번갈아 벌렁거린다. 시가권 합박군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명절이 되면 들어온 선물 뜯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또 선물로 보낸다. 우리의 여성이 먼저 하늘로 떠났다는 청춘책력 같은 소식에 울기도 한다. 화, 목, 일요일이 되면 쓰레기 내놓는 것 때문에 결말하면 옆 건물처럼 싸운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욱도 먹고, 편집부가 발칵 뒤집히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내년 108호는 108번씩 특별판으로 내는 건 어떻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 다른 남성잡지와 경쟁도 한다. 다들이 날아오는 성적표에 발똘 뭀다 안도한다. 마음에 좋아하는 차자가 있어 집근했다가 "미안 난 옆 마을 예쓰코어 음빠가 더 좋아. 명품이 좀 썰터튼." 하는 말과 함께 차이기도 한다. '지치네. 실으면 실은 거지 그 형!랑 비교할 건 뭐람?' 하며 머배를 뺨백 피운다. 훈훈한 여자가 지나가면 휘파람 불고, 지하철 계단에서 앞에 올라가는 여자가 가방으로 다리를 가리면 괜히 기분 나빠하는 보통 남자의 일상을 살고 있다.

100호 발행을 맞아 정말 많은 이들이 축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음 달이면 101호가 나온다. 101호를 만드는 우리는 1호를 만들던 선배들보다 젊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100개월은 지난 100개월보다 더 모험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신선한 도전으로 가득할 것을 약속한다. 그럼 이제 200호를 향해 출발!

편집장

이영미

MEN'S  
CLASSIC

남자의 외모는 경쟁력,

그 시작은 **MEN'S CLASSIC**



· Double Effect BB Cream 효능·효과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효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트러블 방지  
미술도 주름살이 트러블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bum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 Letters



스마트폰으로  
사연 보내기



## 100호 추카추카 뿌잉뿌잉!

군대에서 MAXIM을 처음 본 후부터 지금까지 열독 중이요. 결혼 후에도 아기 영마의 잔 소리를 견뎌내며 부모님 덕의 내 방에 모으고 있으니 근성이 떨어지 않소? 허여든 모으는 사람을 생각해 표지 버전을 다양하게 만드는 건 상사주시요. 걸스데이에는 5명이나까 버렸지 일본의 딸방 아이돌 그룹 빈니걸스(108명)가 등장하면 나는 망하고. 마지막으로 1~100호까지 모은 사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줘야 하는 것 아니요? 개인적으로 뽀넬님 사진전을 준비할 때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있소. 골한 MAXIM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승희, e-mail 사연

## ▷ 독자님의 깊은 애정에 먼저 감사하

는 말씀 드립니다. MAXIM은 200호, 300호까지 계속해서 수영 연장의 꿈을 이뤘나갈 생각이요. 지금까지 모은 MAXIM 대방출은 험아서두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딱딱한 세상사에 "남을 요즘 이런 것 안 하면 유행에 뒤처져 멸망한다능"이라는 말만 씨뿌리는 집단만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MAXIM은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유쾌하게 독자님과 함께 걸맞다고 웃으며, 색시함이 대폭발하는 그녀들을 향한 하얗거림을 멈추지 않을 테니 MAXIM이 비밀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MAXIM이 소정의 선물로 100호 특집에 출연한 최혜연양의 불꽃 같은 사진을 인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깟 뽀넬님 사진전은 생각도 안 나실 겁니다.

## ▷ 개미인도 좀 보여주시오!



육덕녀 사진 말고 개미인도 소개를 해주시오. 경정자에서는 잘생기고, 예쁜 건공들 사진도 많이 나오인데 MAXIM에서는 구경하기 힘들요. 애디터들이 단백질 배출을 할 길이 없어 그렇게 육덕녀에게 환영하는 것이요 100호부터는 예쁜 개미나와 개미녀를 전격 출현시켜 보는 이의 안구를 정화하고, 영혼을 맑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요! MAXIM을 건넌 동안 비은 독자의 이진심아닌 충고를 개무사만드나. 그레이트 빅 엡을 선사할 테니 각오하시오!  
-워드동역심안2년째, e-mail 사연

## ▷ 말씀하신 대로 개미인, 개미녀 사진도

나쁘지 않지만 대다수의 수컷은 이홍고배를 원치 않아 6가지 덕을 보유한 육덕녀에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린 개미남 파워를 소중히 지면에 실을 수 있겠소니까. 대신 안구와 영혼에 축축한 육덕이 머무를 수 있는 매력을 갖춘 아나네의 사진을 더 열정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하지만 독자분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할 순 없기에 보내주신 '개미녀'의 사진을 이곳에 소개합니다. 그레이트 빅 엡은 만 데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랫.ㅋ

## ▷ 독자 사연 응모

-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 방문 접수: 글방을 하점해도 말방은 자살이었다면 MAXIM 편집부를 방문해라. 독자 편지 담당자의 배꼽을 분석해 한다면 MAXIM 과월호를 독점할 수 있습니!~!



쏘세요!



# CIRCUS

A Maxim  
View of  
the World

# MAXIMUS

## 영국 아디

영국을 거점으로 활약 중인 자매이카계 영국인 권력이다. 제때 이카 사람들은 달리기랑 팔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총질도 잘하나 보드.

주요 수입원: 마약, 총기

## 이스라엘 마피아

과거에는 인정을 베풀 줄도 알고 의리가 있는 범죄 조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저 사람 목 따는 게 취미인 조직으로 변질됐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붙은 조직답게 아랍계라든 치를 떤다. 미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주요 수입원: 마약, 매춘

## 러시아 마피아

구소련 당시 마피아 조직을 기반으로 현재 2,607개가 넘는 범죄 조직이 활약? 중이다. 대륙의 마피아답게 스케일이 커서 1997년에는 콜롬비아 마피아의 마약을 잠수함과 지대공미사일로 바꾸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러시아 경제의 40%를 지배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주요 수입원: 무기 거래, 합박, 매춘

## 세르비아 마피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0여 개의 국가에서 활약 중이다. 거대한 3개 조직이 나머지 작은 조직들을 제어하는 형태다. 세르비아 내에는 30~40개의 작은 조직이 있다고 전해진다. 2003년 자국 총리를 저세상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해 화제를 모았다.

주요 수입원: 마약, 도박, 살인, 정보 절도

## 중국 삼합회

세계 최대 규모의 범죄 단체로, 2007년에 이미 조직원 수가 7,80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삼합회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 원래 삼합회는 청나라의 지배를 반대하는 한족의 비밀결사 단체였지만 청초가 망망하자 범죄 조직으로 변질됐다.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서 향장 두목에게 실권이 있는 게 특징이다.

주요 수입원: 마약, 매춘, 절도, 청부 살인, 영화 사업

## 소말리아 해적

군벌 해체 후 수백 개의 부족이 먹고살기 위해 적 스페르로 번신

## 이탈리아 마피아

마피아의 원지 사칠리아를 중심으로 한 코사 노스트라, 나폴리의 카모라, 칼라브리아의 온드랑케타, 풀리아 지역의 시크라 코로나 운타라 등이 대표적이다. 보스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이며, 영화 <대부>에서처럼 폭력과 공포를 적극 활용한다.

주요 수입원: 마약, 고리 대금업, 도박, 범죄, 폭력, 살인

## 일본 마피아

뿌리 깊은 마피아 조직으로 2세기에 이미 틀이 잡혔다. 일본이나에 분거지를 둔 경우가 대부분인데, 1880년대부터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 복수'가 특징.

주요 수입원: 매춘, 마약

## 한국에서 어깨 힘 좀 넣고 다니는 글로벌 족족

돈이든 환경하는 이놈들이 지척에 있는 한국을 그냥 지나칠 리 없지!

## 아쿠자

일본 아쿠자 빅3인 아미구치(미(조직원 3만 명), 이나카와(미(조직원 1만 명), 스미요시카(조직원 8,000명) 등 5개 이상의 조직이 활동 중이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호밀 인수를 비롯해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 일본 놈들의 땅 욕심이란...

## 삼합회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별명의 흑사 회도 22개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길이나 도구를 다리에 착용하며 시비가 붙으면 말뚝 기린지 않고 깨쇄서 휘두른다. 요즘은 귀엽기까지 한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으로 유명하며, 최근 합법적인 투자로 코스닥 기업 상장에 나섰다.

### 일본 아류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란 원래 뜻에서 점차 폭력배로 의미가 변했다는 설이 있다. 연간 전체 수입은 최대 9조 엔(약 12조 원)으로 추산되며, 최대 조직은 3만 5,000명의 조직원을 자랑하는 야마구치구이다. 엄격한 계급 체제의 조직으로 호랑이 문신과 검은 양복이 트레이드마크다.

주요 수입원: 해걸사, 마약, 도박, 건설, 운수, 금융, 스모, 연예 사업

### 미국 마피아

20세기 초 100여명 명의 사칭리아 주인이 이주해 만든 '코사 노스트라'의 '갯'가 뿌리다. 뉴욕의 악명 높은 갯비노 제노비스 루체세 보나노, 콜롬보 조직 등이 대표적인 미국 마피아. 지난 20년간 감소 추세였지만 경제 침체가 깊어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주요 수입원: 살인, 공갈, 금융 갯, 고리대금융, 돈세탁, 도박, 마약 거래

# WORLD WILD MAP

## 세계 조폭 지도

글로벌 조폭의 위업. 한반도에서 <sup>의</sup>경쟁현 사시미 칼만으로 버티기엔 세계는 너무 넓다.

### SUPER CARTEL

#### 글로벌 약객의 위업

제일 막장인 놈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다.



**카르텔이란?** 중남미에서 코카인을 공급하는 범죄 조직을 보통 '카르텔'이라고 부른다. 멕시코가 제일 악명 높다. 가장 강력한 세력 걸프 카르텔은 코카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등을 미국 주요 도시로 밀수하며 최근에는 인간 밀수도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추가했다. 시날로아 카르텔도 마약과 인간 밀수가 돈벌이다. 걸프 카르텔과 수년간 영예로 찬양 중이다. 티후아나 카르텔, 후아레스 카르텔은 멕시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보스들이 체포되는 등 과거보다는 세력이 약화했다.

**카르텔 vs. 멕시코 정부**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군대까지 투입했지만 결과가 실패했다. 주요 카르텔은 최소 1만여 명의 핵심 조직원에,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행동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 이미 3천여 명이 사망했고, 2010년에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천천히 이후 갯들의 저항은 거세졌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콘셉트를 빌려온 카르텔 소탕 작전은 사실상 실패했다.

### 브라질 갯단

군사 독재 시절 길거리 갯단의 조직원들이 사회주의자 좌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레드 커맨드'라는 고도소 갯단이 탄생했고, 이들이 다시금 반민가로 돌아가 악명 높은 브라질 갯단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정부와 맞짱을 뜨기 위해 박격포 등으로 중무장하는 게 특징이다.

주요 수입원: 남치, 강도, 마약

### 러시아

러시아 토종 마피아 '오르가'까지 애초직원 50여만 명이 국내에서 열심히 외화벌이를 중이다. 원양어선 직원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입됐다. 칠성마을 비롯해 국내 조직과 손잡고, 처음에는 매춘부, 흥기 밀매로 돈을 벌었는데 요즘은 국내 수산물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중이다.

### 그 외 조직들

최근 동남아 노동자들의 유입 및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신흥 조직도 많이 생겨났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인산에는 태국의 폭력 조직 '말라티아 파', 경기 수원 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폭력 조직 '단다' 등이 활약(?) 중이다.

전 세계 마약 거래 수입  
연간 4,000억~5,000억 달러.  
=재약시장=석유 산업=무기 거래 시장 규모



# 경 면접 낙방 관상 당첨 축

## 1. 헤어스타일

### 베지터 잘린

답이 없다. 부정적 첫인상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단정치 못한 머리다. 일단 심이라. <드래곤볼>의 MZ 머리 베지터도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면 머리를 샀을 것이다.

## 2. 피부

### 비포장도로의 악몽

비포장도로의 울퉁불퉁함보다 아스팔트 도로의 매끈함을 사랑하는 건 당신이나 면접관이 나 마찬가지. 얼굴도 상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한가?

## 3. 코, 광대

### 무너진 코&로켓포 광대

광대가 높으면 비례 광대가 낮으면 인상이 또렷해 보이지 않는다. 이쪽구멍이 또렷해 보이지 않아 요리명칭만 높으면 보이기 딱 좋다. 더 역울한 건 이쪽 스타일의 얼굴이 관상학적으로 노력은 배 빼지게 하지만 성과는 쥐뿔도 없는 스타일이라는 점.

## 4. 치아

### 혀미가 달려진 곤란

사원스러운 여친구라고도 치아에 철도도 간 상태에서의 웃음은 주목을 부른다. 당당하게 웃는 당신의 치아에 철도가 깔려 있다면 면접관의 마음은 이미 틀 건다. 관상학에서 말하듯 불규칙한 치열 사이로 빠져나가는 복을 지킬 순 없겠지만, 이 상태에서 '취업은' 따윈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 5.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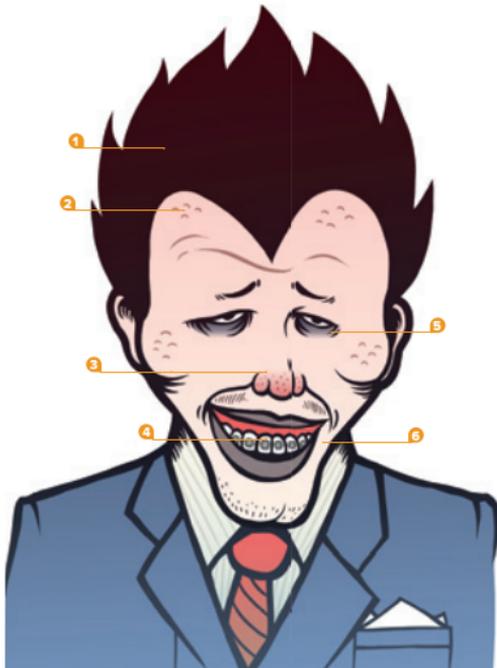
### 다크서를 직접

귀여움으로 팬들과 맞닿을 줄 수준이 아니라면 눈가의 다크서클은 정리해라. 감태희도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면 꼴도 보기 싫은데 당신이면 오죽하겠나! 피곤과 근심에 찌어 두침침한 눈가를 보고 '이 친구 일 할 걸하겠구먼' 이라고 말할 면접관도 없다.

## 6. 얼굴형

### 역상각형 프레임

관상학에서 얼굴형이 사마귀처럼 생긴 사람은 급한 성미일 확률이 99.9%라고 말한다. 한눈에 봐도 차분한 인상은 가려가 말기에 면접에서 불만을 겪게 마련이다. 오히려 신경질적이고, 소심한 느낌까지 풍기니 보복수를 비롯한 안의 힘을 빌리는 걸 추천한다.



흠 잡을 데가 없는 스펙인데 면접에서 자꾸 물을 먹나? 그렇다면 안 봐도 비디오다. 환영한다. '면접 필 낙방 외무'의 세계로 온 것일!

BY 김상현 ILLUSTRATION 한영호

## INCONVENIENT TRUTH OF LOOKISM

### 관상 따위 취업과는 관계없다고?

그렇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취업 정보 업체 인크루트가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2%(104개사)가 "채용 시 관상이나 인상을 고려한다"라고 답했다. 취업을 보려고 있다면 미러미리 현상을 관리해두자. MAXIM을 열심히 읽으면 적어도 '웃는 얼굴'은 만들 수 있을 거다. 피시.

### 투키툼(LOOKISM)

뉴욕 양키 칼럼리스트 새비야어가 만든 용어로 "외모가 인생을 결정짓는데 사색 얼굴에 모든 걸 올린해부라"라는 사회 풍조를 일컫는다. 인종, 성별보다 외모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생긴 신조어다. 비.. 빌어먹을!

### 첫인상을 잡아라!

소개팅이나 면접에서 첫인상으로 승부가 갈리는 건 마찬가지. 이때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웃느냐'다. 당신이 이호리처럼 눈웃음치지 못한다면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라. 입 끝이 아래로 처져 비웃는 것처럼 보인다면 양 손가락으로 입술을 올려주는 운동을 틈틈이 해라. 어떻게까지 해서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하나? 물러서 묻나, 재재?

## 이 달의 부스리기

일어도 그만, 물러도 그만. 인 지시 부스리기를 씌고 들고 맛보고 즐기세.



### 쥘리기 공헌

3억 9천만 원만 있다면? 전신을 움직이는 장난감 트라키에를 스 공룡 한 마리 사자. 개 따위 필요 없다. 해머슬레이어에서 판매한다. [www.hammer.com](http://www.hammer.com)



### 해적의 명예

한 연구에 따르면, 어둠의 경로로 음원과 영화 영상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정직한'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DVD와 음반을 구입하는 빈도수가 높다고.

# 즐거움의 완성 elips™

즐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가볍고 스마트한 전자담배 오벨 elips™  
이젠 PCC와 함께 그 즐거움을 더 오래 느껴보세요!

Super Smart OVALE elips™

elips™ 전용 PCC (휴대용 충전 케이스)



## 함께 하면 더욱 좋은 elips™ 전용 악세사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고 가벼운 elips™ 전용 충전기 크레들.  
elips™를 목걸이처럼 걸고 다닐 수 있고, 위생적이고 안심되는 실리콘 케이스.

<http://www.ovakorea.com>

※모든 제품은 품질보증에 따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담배, 마약과도 병을 지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이 있으며, 니코틴은 반발크롤리이드, 비스, 카드론, 디메틸아민, 타  
니코틴 함유량 / H : 16mg, M : 1mg, L : 0mg





# 여유증 카페 '여유 있는 남자'

국내 최고 인기 카페 '여유 있는 남자'에서 담당하게 수술 후기 1등에 당선된 우희학님의 체험기.  
담당해 가슴 펴고 살게 된 사연을 한 번 들어보자

<http://cafe.naver.com/gynecomastia> <http://cafe.daum.net/gynecomastia>

가슴 앓애러  
카카



사진 상담실 | 여유증 수술 정보 | 큰키기 여유증 | 한 쪽만, 비대칭 여유증 | 남성 유두 축소 사진 | 여유증 수술 후기 | 멋진 남자 가슴 모습

가지 4단계

▲이전글 ▼다음글

목록

카페정보 > 나의 활동 >

> 초대하기 > 채팅하기

카페 글쓰기

- ≡ 전체글보기(11,648)
- ≡ 베스트 게시물
- ≡ **소셜업**
- ≡ 임시보존속옷 후기
- ≡ 여유증 전문병원 링크

## 여유증 상담실

- ≡ 공지사항
- 1. ≡ 여유증 피해 사례
- 1. ≡ 여유증 수술 후기
- 1. ≡ 여유증을 물어보자
- 1. ≡ 사진 상담실
- 1. ≡ 재수술과 분석
- ≡ 전문의 답변 게시판

## 여유증 정보

### 여유증 운동도??

- ≡ 여유증 운동 방법
- ≡ 수술 후에 해야 하는것
- ≡ 운동 자료실
- ≡ 운동 동영상

## 여유증 전문 자료

### 실무엇 여유증 센터

#### · 검색 멤버

- 일글마담
- 여유있는 남자
- 가슴펴고 살고싶어요ㅠ
- 난 D립
- 실무엇을 살리자



### 실무엇 5개월 치수술 후기

<http://cafe.naver.com/gynecomastia/3480> 우희학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31세 남자입니다.  
글을쓰기 없어서 어떻게 시작하고 끝낼지 몰라 할지 난감하네요.

#### 1. 수술 결심 동기

스무 살 때부터 여유증이란 것은 모르고 약간 실패서 그런가 보  
다 했지요. 사무나, 수영장과 같은 곳을 본능적으로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T셔츠 낄땀, 검은 티, 주머니 있는 칼라티를 선호하게  
되고... 뒤 그늘습니다. 07년 일부러 대흉근(갑바)을 만들어 없애자  
는 일념으로 웨이트를 시작했고 꾸준히 하다 보니 근육량도 늘  
어나게 되었지만 가슴의 아래쪽이 정말 안 빠지고 뾰족한 트래이  
니가 말하길... **그거 여유증이라서 수술 아니면 못 뺀다는 겁니다.**  
다. 회사에 들어가 직장 사람들과 워크숍, 운동회, 단체 활동을 하  
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온선, 사무나, 수영장 등을 피할 수 없  
는 상황이 다가왔고, 평강히 위축된 상태로 사회활동을 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콜롬레스도 고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1년 2월 말  
에 과감하게 실무엇에 방문하여 진단받고 밀려 예약을 잡았지요.**

#### 2. 수술 전 진단

예약하고 2월 말에 가니 환관님께서 세심하게 봐주시고 상태를  
초음파로 진단해주셨습니다. 진단 결과 유선도 좀 있고 지방이  
많은 지방형 여유증이네요.

#### 3. 수술 당일 느낌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실무엇에 입성. 종교는 없지만 환관님의 기  
도도 들으며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수술이 잘 될 거 같았습니다.  
1. 도도해주시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도 정말 굿~! 누워서 주사  
를 맞은 후 나도 모르게 잠들었고 약 2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니까요.  
수술만 보면 내가 왜 수술을 결정하는데 그토록 오래 고민 했는  
지 이해가 안 될 ㅋㅋㅋㅋ



(수술 전 - 정면, 45도 측면)



(제거된 유선과 지방)

#### 4. 수술 후기

예전과 다르게 가슴이 완전 평평해진 느낌에 진짜 내가 아닌 다  
른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날씬해진 것 같다고 와이프가 그러더  
라고요. 오하하~! 주말 복 쉬고 월요일에 바로 회사 출근을 했

습니다. 압박복 차고 양복 입고 일하는데 일상생활은 전혀 문  
제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산물 받은 니트 하나 입고있지요. 니트도 예전에 기피 대상  
1호 옷이었던만큼 이런 입고는 가지요. 흐흐~



(수술 후 - 3개월)



(수술 후 - 5개월)

두 달이 지나면은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니  
수술자극에 붙어있던 브ندا 저절로 떨어지더라고요. 수술 흔적  
이 전혀 없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ㅋㅋ 이제는 못 웃을 때 아  
무 신경 안 쓰고 아무 옷이나 입습니다. 수술 전에는 입아보고 튀  
어나오는 정도를 꼭 확인했었고, 남방 입을 때도 반팔 티를 속에  
받쳐 입어야 하고..... 지금 생각해보도 땀 나고 피는 날은 일상  
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실감 나게 평강서 몇 달 입은 모습을 보  
여 드리겠습니다.



(왼측 칼라티)



(섬유재질 칼라티)



(출근용 양복)

예전엔 저렇게 가슴 펴고 사진 잘 못 찍었을 겁니다. 구부정하게  
있었지요. 옷을 자주 앞으로 당겨서 촬영하게 하려 했었지요. **이  
젠 자연스럽게 가슴에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자신감을 크게 회복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감이 생명인데 수술 전이 50%였다면 이런  
90%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전 여유증으로 마음고생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수술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자신감을 크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직유도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실무엇 병원 환장님, 그리고 수술 보조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무엇 빌딩 4, 5, 6층 실무엇 성형외과(여유증 센터)  
3호선 입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 발다리 거는 법

씨름과 남녀상열지사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승리한다는 거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S ARC STUDIO MODELS 양혜영, 송영진



양혜영(23)  
송영진 씨름부 주장



## 씨름을 배우세요!

반사 신경을 키우는 유일한 운동이 씨름이다. 전신의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아무리 몸치라 하더라도 씨름을 배우면 중간 이상은 하게 된다. 그녀를 흥분으로 보내는 하체와 태평양 등근육이 갖고 싶다면 씨름이 정답이려나.



**1** 오른발을 반 발짝 정도 앞으로 내밀고 허리를 곧게 편다. 우리나라는 오른씨름을 많이 하므로 몸 중심의 80%가 오른쪽에 있어야 공격과 방어에 유리하다.

**2** 왼발을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 어깨를 깊숙히 들이밀어 상대방 허리를 무력화 한다. 이제 바깥다리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3** 상체 하리에 힘이 빠졌다. 바깥다리를 걸어보자.

**4** 머리를 밑으로 박는 느낌으로 다리를 높이 친다. 머리를 깊이 차박을수록 다리를 차는 힘이 세다.



## 씨름 VS 스모

	씨름	스모
힘	당기는 힘	미는 힘
승리 요소	원심력, 중심, 힘+유연성	체중
경기 방식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모래판에 닿으면 패배 (3만 2순)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모래 판에 닿거나 밖으로 밀려나면 패배 (단판승)

### 삼바 매는 법

맨날 벗기는 것만 연습하지 말고!

- 삼바 고리에 오른쪽 다리를 넣고 긴 띠 부분을 뒤로 돌린다.
- 한 바퀴 돌린 삼바를 고리 뒤쪽으로 넣는다.
- 힘껏 잡아당겨 팽팽하게 조인 삼바를 허리 줄과 다리 줄 사이로 넣는다.
- 뺏음~  
뒤에 생긴 고리 안으로 삼바를 넣는다.
- 힘껏 조이고, 남은 여분의 줄은 자기 스타일대로 묶는다.



**어머니, 왜 잘...**  
미국 모놀 환원강각연구소팀의 연구에 따르면 등에서 나는 악취 원인의 30% 정도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돌연변이 유전자 트리에틸 아민 때문이라고. 치료 방법은 없네...



**미아디스의 손**  
광주 충장로의 금 거래소에 50대 남성이 와서 내년 흥선을 앞두고 정차원에게 로비할 금이 필요하며 돈다발 5개로 10돈짜리 금목걸이 6개와 1500만 원 어치를 사겠다. 그러나 돈다발은 맨 앞뒤만 실제 지폐였고 안은 모두 백지였다.



OD Musical Company & CJ E&M present  
www.odmusical.com The ODCircle od@odco.kr  
예매 및 문의 오피스: 1588-5212

연극 블루룸

# THE BLUE ROOM

by David Hare

김태우 | 송선미 | 송지유

2011.10.29~12.11 세종 M씨어터



육체적 사랑이 충족되는 순간  
관계는 소멸된다

# 전쟁터에서 여자 꼬시는 법

총일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별떡벌떡 하는 것이 남자의 순(善)생전 전쟁 한국판에서 백전무패 직업남이 되는 법을 알려주자.

BY 김희성  
ILLUSTRATION 권영준



## 1. 여자의 왼쪽 몸부터 구하라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일하는 왼쪽 귀에 대고 속삭여야 더 효과적이다. 마음에 드는 여자 근처에서 서 있다가 목탄이 날아오면 그녀를 온몸으로 덮쳐 보호하라. 이때 무조건 그녀의 몸 왼쪽을 향하는 걸 잊지 마라. 그 뒤엔? 왼쪽 귀에 대고 뜨겁게 "괜찮다. 괜찮다." 하고 속삭여라.

## 2. 다치라

전쟁 로맨스 하면 역시 '간호사+부상병'이다. 예쁜 간호사가 주변에 있다는 걸 당신의 아랫도리가 감지하면 그 길로 다리를 분실하라. 자, 그녀가 구급상자를 들고 온다... 온다... 주변에 공이나 공인형 같은 걸 떨어뜨려놓으면 당신은 아이를 구하다가 다친 멋진 남자로 변해

## 3. 함께 탈출하라

전쟁 모로로 접혔다고 절망하지 마라.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위기가 닥쳤을 때 동치려는 심리가 발동한다. 전쟁이 아니라면 아반도주는 어림도 없었을 그녀의 손을 잡고 뛰쳐나간다. 등 뒤에선 폭탄이 터지고, 서로의 손을 꼭 쥌 채 뜨거운 눈길로 응시하는 슬로모션이 펼쳐진... 아, 이런 영화에서나 가능한 애간가? 어쨌든 무슨 건 사랑을 해볼 수 있다.

## 4. 밀거래꾼이 되어라

전쟁 기간에 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암시장. 당신은 쌀, 밀가루 말고 화장품, 생리대, 브래지어 같은 여성용품만 취급하라.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는 싸 가격에 남기며 응충한 눈빛을 쏘라.

## 5. 영국 신사가 되어라

버려진 정신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자 and 어린이를 가장 먼저 도와야 한다는 영국의 전통이다. 타이타닉호 침몰 때도 이 고귀한 정신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각종 악탈의 위험으로 불안해 하는 그녀에게 "나의 남자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라. 그녀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버려진 정신을 들먹여라.

## 6. 다친 여자를 도와라

구급상자를 들고 어슬렁 거리다 쓰러진 여자를 포착하는 즉시 달려라. 다친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여기서 안전하다는 건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을 말한다. 인공호흡을 배워 두길 잘했어 (여기서도 왼쪽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걸 잊지 마)

## 7. 사연 있는 남자처럼 굴어라

그녀가 당신 앞을 지나가면 "아, 내 여자친구도 저런 머리띠를 했었는데", "그녀도 하얀색이 잘 어울렸지"라며 그녀가 '들을 수 있게' 흔적말을 하라. 모성애가 발동해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여자는 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땐 다른 여성이 이미 선택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진짜다!

## 8. 뿌린 만큼 거둔다는 걸 명심하라

그럼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 후일을 기양하라. "우리 꼭 살아서 다시 만나요"라며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준다. 그녀의 생선 활물, 그녀에게서 연락을 확률까지 계산해 최대한 많은 암컷에게 연락처를 뿌린다(힘부러 씨를 뿌리라는 건 아니다). 원래 헤어질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더 뜨거운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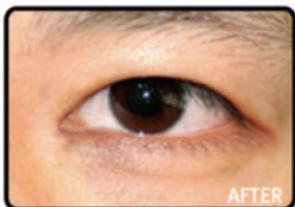
### 방귀대장

(방귀에 대한 모든 것이란 책에 따르면, 성인 남자가 하루에 똥을 방귀로 보통 37개의 풍선 17개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 이 존나 많지 않지 않나?)



### 최소 6번은 해라 내 남자

영국 일간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절반 이상은 첫 만남 한 번으로도 훗날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여성은 적어도 6번은 만나 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길 번거로운데?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doctor.co.kr](http://www.meddoctor.co.kr)



# 가을철 3대 질병 주의보

내장 탈락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자.  
BY 송준민 ILLUSTRATIONS 권영준

## 유형성 출혈열



**감염경로:** 어릴 적 어머니가 "풀밭에 가지마!" 라고 하셨던 건 바로 이 병을 피하기 위함이다. 들쥐의 배설물에 섞여 있던 탄다 바이러스가 공기나 먼지를 통해 인간의 호흡기를 감염되어 발병한다.

**잠복기:** 2~4주

**초기 증상:** 온몸에 힘이 없고 세상이 산 듯 밟아 밟아 없다. 고열(40°C)과 심한 두통 및 복통으로 독감으로 오인하기 쉽다. 3~4일 후에는 열과 가슴에 출혈반점이 생긴다. 으악 징그레 간혹 생기는 위장출혈 때문에 멍장점으로 오인하고 얼떨떨한 행장을 때내지 않게 조심하도록!

**이후:** 고열은 물론이고 심한 단백뇨와 소변이 안 나오는 핏배기를 겪는다.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다가 오줌이 술술 나오기 시작하면 나아간다는 증거다. 난 살았어!

### 예방



■ 풀숲 위에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적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것.

## 프프가무시병



**감염경로:** 증진드기 유충이 번데기로 탈바꿈할 때 반드시 동물의 조직액을 섭취해야 하는데 들쥐나 다람쥐 대신에 재수없게 성묘 기른 당신이 육종을 헌납하면 감염된다.

**잠복기:** 1~2주

**초기 증상:** 몸에 피부 발진이 있을 후 고열과 오한, 심한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고 목, 사타구니,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커진다. 다른 두 질병과의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진드기가 문 상처에 딱지가 않은 것 같은 피부궤양이 생긴다는 것이다. 의심되면 이것부터 찾아보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2일 내에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지만, 미망한 백신이나 항체는 없기 때문에 또 물리면 두 번도 탈릴 수 있다. 하지만 전염성은 없으니 환자를 왕따시킬 필요는 없다. 잘해주자.

### 예방



■ 풀숲에 앉아 용변을 보지 말 것.



■ 진드기 유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드기 방충제를 발라 예방.

## 렘토스피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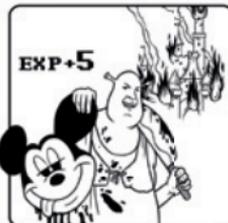
**감염경로:** 가족이나 야생 동물의 소변으로 전파되며, 감염된 동물주로 체의 소변이나 사체로 오염된 하천과 접촉했을 때 발병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동물로 전파된다.

**잠복기:** 7~12일

**초기 증상:** 갑작스런 발열(38~40°C)과 두통, 오한, 근육통, 눈의 충혈 등 갑작스럽고 비슷한 증세로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기침 중에 피가 섞여 나온다가나 호흡곤란 증세가 있으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야 고생을 덜 한다.

**조기에 발견하거나** 증상이 약하면 2~3주 안에 대부분 회복된다. 하지만 증상이 생긴 중증 환자의 5~30%는 신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으니 만만히 볼 수 없다. 보나스로만성피로까지 얻을 수 있으니 까딱하면 평생 달리는 게

### 예방



■ 쥐 같은 감염 우려 동물을 없애도록.



■ 균인은 똥 외에도 위험해.



**절교한 달아나**  
두오의 설은 결국, 미혼 남녀의 68%가 바깥 피눈 적어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바깥 피눈은 여성의 과반수 이상인 63% 이상 친구를, 23.4%가 친구 애인을 상대로 의도를 했다고, 남자는? 이상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 순이었다. 예! 다 알면서 뭘 물어보라.



**800원이라도 주세요**  
전국에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한전 약관에 따라 계산한 이번 정전 피해 가구당 보상액은 약 800원으로 알려졌다(일반 가정 기준). 마감이 약간 MAXIM 편집부는 정전 때문에 일시 중단되었다. 하이터면 이번 호로 나옴을 했다고 한전 쪽바라 할 한데?

이성적인 황금비율 cotton 95%, polyester 5%의 비율로 슈미팬 팬티와 비슷한 착용감으로 활동적인 움직임에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언더웨어의 재질은 배문알 흡수력과 구멍이 난듯한 통통감을 제공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팬티가 있다!



**BOCM**  
FUNNY UNDERWEAR

언더웨어  
꽂짜로  
받기!



[www.30cm.net](http://www.30cm.net)

# 대한민국이 1등

스티븐 유. 보고 있니? by 박한우

## 헝퀴



**1 한글 짜웁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인 한글 덕에 우리나라 문맹률(0.1%)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모든 사람이 단 하루면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아침글자라고도 불리는 한글은 24개의 문자로 11,000개(일본어 3007개)가 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1996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학술회에서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를 쓰자는 토론을 하기도 했었다. 아. 토론만 하고 그냥 끝난거?

**2 HJC 중고등학교 때 소바 올린 엑시브 중 터웠다면 흥진은 동태친구 이름만큼 친숙할거다.** 세계 판매량 1위 오토바이 헬멧 브랜드 흥진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우리나라 회사다. 세계 헬멧 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북미에서 HJC의 점유율이 35%나 되고, 전세계 시장에서는 15%~2% 이탈리아 놀란 7%로 뛰어나다. 이게 다 우리 일진네들 덕분 아니겠소.

**3 프리스타일 축구 브라질에서 뽀빠 스텝 중 뽀빠 외계인 호 니우지뉴가 공식공신 싸인을 받아간 아스타시 세계 랭킹 1위 우 최용 선수.** 그는 무려 5시간 6분 30초 동안 머리로 공을 킂겨 세계 기록으로 등재 되었다. 내친감에 유럽 축구모기선수권대회까지 기록을 우승하고 지금은 세계프리스타일축구연맹 회장을 맡아 이제는 책상에서 묘기를 부리신다고...

**4 777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따라다니며 초콜렛을 구걸하던 하던 시절, 대성공속공업은 미군부대에서 나온 양철통을 잘라 (원지 위험할 것 같은) 손톱깎이를 만들었다.**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43%)로 세계인들의 절반이 쓰리세브으로 손톱을 다듬는다.

**5 LG전자 트롬 트롬은 2010년까지 3년 연속 매출액 및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세탁기 시장을 탈수했다.** 세계적인 제품 평가지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세계 최고 세탁기 가장 신뢰할 만한 세탁기로 트롬을 뽑았다. 모델이냐영 역시 세계 세탁기 모델 다 바라보고도 찡 먹음 미모 아님?

**6 세계 제일 고향 일본의 한 방송에서 "한국인의 고향은 세계 제일이라는 대화가 방영됐다.** '각국 남성들의 고향 무게를 잴다니 한국이 1등이라는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황당한 방송이었다.' '죽마고우를 '불알친구'라고 부르는데, 한국에는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나?' 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걸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공중 목욕탕에서도 거시질 가지지 않아

## 연예인들의 진기록

피스타 브리도 공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을 거세.



**252** 지난 5월, 제국의 아이들 황금화가 웃담이 깨달기 가네스북 기록을 경신했다. 기존의 기록(247페이지)을 깨고 252페이지의 티셔츠를 깨어낸 세계 신 기록을 세운 것이다. 덕분에 '2011 황금의 날' 기념행사는 화제가 됐지만, 얼마 전 방송에서 밝힌 그의 솔직한 심정은 "그때 사실 엄청 짜증났었어~"였다.



**1260** 가수 하춘희는 1991년 1,260일의 독창 공연 기록으로 세계 가네스북에 올랐다. 1961년에 데뷔한 그녀는 지금까지 8,500여 회에 이르는 공연을 했다.



**8** 강호동은 1993년 8시간 동안 2만 8233명의 시민들과 악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 차 안에 차 있다

독일 경찰이 미니밴 화물칸에 마르다 자동차를 세로로 우겨넣고 달리던 키치호스만 남지 2명을 적발했다. 그들은 운반용 트레일러 대 여비가 비싸서 충격 흡수용 매트리스를 깔고 차를 실었다. 마르다는 흠 하나 없이 멀뚱했다.

### 뒤로 가면 아, 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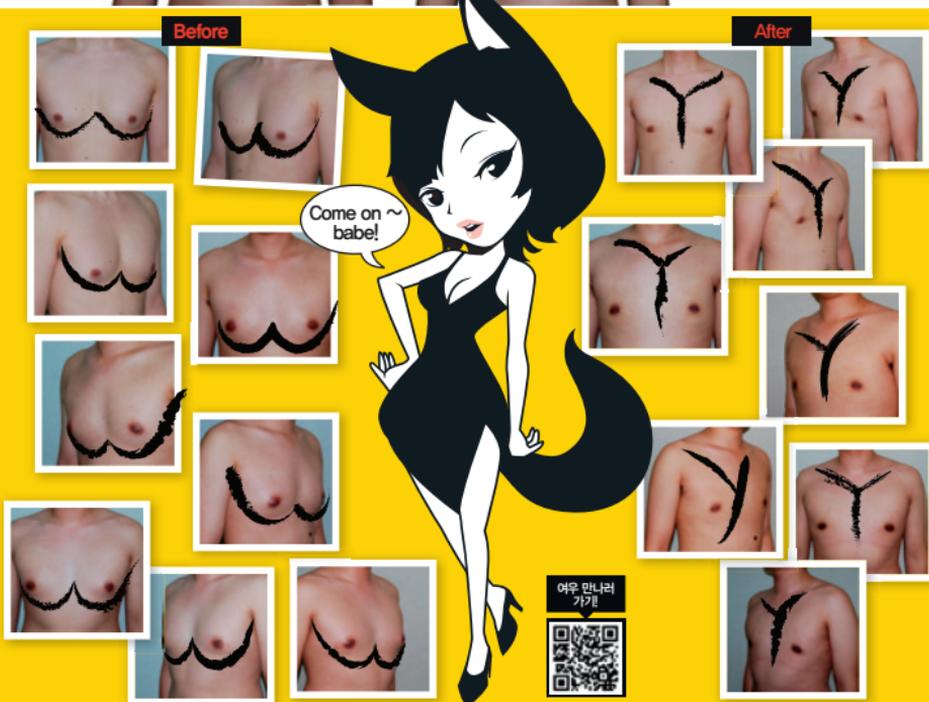
9월 6일, 중국 남부에 위치한 높이 18m 옥상 건물 주차장에서 중년 연인이 차 안에서 씨름을 하다 남자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넣어 차가 외벽을 뚫고 나갔다. 다행(?)히 차는 난간에 걸려 속도는 건졌으나 그들의 아찔한 액티비트는 전국에 뉴스로 방영됐다.

# FROM **W**orst to **Y**oungest!

멋진 Young Guy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 여우(女友)에게 물어보자! BY KJ

Before

After



## ◆ 지혜로운 여우(女友)의 시술로 잃어버린 'Y' 라인을 되찾자!

### 정확한 지도를 그려, 매의 눈으로 집어내는 시술!

눈대중으로 여유증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병원을 선택하는가? 여유증 가슴에는 지방 뿐 아니라 복잡한 유선 조직이 분포되어 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마치 3차원 지도 그리듯 파악하는 것이 수술의 첫 번째 여우 여유증 클리닉은 **최신 초음파 진단 장비**를 도입 지방 조직의 분포와 유선의 분포, 피부 탄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보장한다.

### 천차만별 환자 케이스, 맞춤형 시술이 필요하다.

여우 여유증 센터에서는 환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권장한다. 광섬유가 장착된 기구를 삽입하여 카메라로 부위를 보면서 시술하는 '3mm 절개 여유증 내시경 수술'은 기분이 좋고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의 상대적인 양, 피부 두께, 흉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권장한다. 따라서 수술 후에 상체에 미치지 않는 시술로 재수술하는 염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집중 회복 도움 프로그램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시술 후 사후 관리가 좋은 병원의 척도! 여우 여유증 센터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위한 치료가 마련되어 있다. 'EFFECT Lipo Laser' 치료와 'EFFECT Meso Soft' 치료는 지방 세포의 유동화 촉진 작용을 해 피부와 세포의 재생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의 유착을 막아 자칫 생길 수 있는 통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줄 것이다. 안전하고 관리까지 깔끔한 여우 여유증 센터로 가자!

**빈철원 원장**

서울 대학교 병원 수련의  
서울 아산병원 상형외과 전문의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대한 미용 성형외과 개원의 협회 정회원  
대한 비만 체형학의 정회원  
대한 임상 메조세라미 연구회 정회원

[www.foxyooyu.co.kr](http://www.foxyooyu.co.kr)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2-10 계동빌딩 5층  
02-516-6150 / 02-517-0675

여성형 유방 전문병원  
**여우 여유증 클리닉**



### 강용석 의원

**1** 박근혜는 색시하다. 두둑해진 뱃살에 아들 돌까지 침부한 유부남 입장에서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한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색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0년 넘게 해왔다는 단전호흡 하는 사진을 보러 박근혜의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2**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 참석한 연세대 토론팀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옷생김에 들,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

**3**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여학생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다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시모닐/김모승 여자사관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왔을 거다.

**4** 아니운서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니운서 할 수 있겠느냐?

**5** 여성 의원의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

### 김충환 의원

**6** 성매매특별법시행령 때 18세에서 30세 전후의 성인 남성이 12년 동안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버렸다.

**7** 풀밭 마시자는 성행위가 아닌 짚은 안 마다.



### 배달은 안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실제 판매된 햄버거의 기록이 깨졌다. 미국의 한 버거 가게에서 350kg짜리 햄소스 버거를 만들어 팔면서 캐나다의 종전 최고 기록을 집어삼켰다. 10명이 모여 만드는 데만 13시간이 걸렸다. 인분의 가격은 99센트. [www.alamedacountyfair.com](http://www.alamedacountyfair.com)



### 정우택 전 충청지사

**8**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합동 유세차 청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가라도 하나 넣어드릴 텐데...

### 김문수 경기도지사

**15** 춘향전이 뭐니까? 번 사또가 춘향이 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 한상수 의원

**14** 요즘 뜰에 가면 오리레 '지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

### 이강수 고창 군수

**12** 너도 누드 사진 찍을 생각이 있느냐? 지금 찍으면 예쁘겠다. 몸 만드는데 필요한 두 달의 시간을 주겠다.

**13** 누드 사진 찍기 3일 전부터는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 몸에 속옷 자국이 생기면 안 되니까.

### 경만호

전 대한직접사사 부총재  
**11** (건배사를 하며) 오바마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

## 희대의 섹드립 19

"다들 제명되시면 MAXIM에 고문으로 지리 하나씩 마련해드려야겠어요."

###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16** 17대 국회의원들은 예전에 비하면 다들 성치가 돼서 죽으면 사리가 나올 것이다. 성매매자법으로 거개성매매 업소도 못 가지 않느냐.

**17** 여성 재소자들이 창틀에 기대서서 남자들이 지나가면 '한 번 줄까?' 하더라.

### 이경재 의원

**18**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직을 겸거한 여야 의원에게) 남의 집 여자가 우리 집 양병에 들어와 있으면 남 좀 주를 리라고 하는 것 아니냐?

###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19** 요새 조철봉(강안남자)의 주인공이요는 왜 그렇게 안 해? 옛날에는 하루에 세 번씩도 하더니 요새는 '오늘은 한 번 해?' 하고 신문 펼쳐 보면 한 번도 안 해. 요즘은 철몽이 아니라 낙자가 됐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번은 해줘야지. 한 번은...

### 명도도 대어가 되나요?

사실, 쿠이 비동 백을 대어하는 세비스가 유명하다. 679만 원 상당의 샤넬 웨스트민스터 백을 15만 원만 내면 그냥 3일 동안 빌릴 수 있다. 명도 백 없으면 쪽팔리고, 사팔과 조르는 거랑 빌리는 건 안 똑말려?



OD Musical Company & CJ E&M present  
Music and Lyrics by  
Neil Bartram

Book by  
Brian Hill



100분간 펼쳐지는 두 남자의 우정을 넘어선 스토리!

초연 당시 스토리 신드롬을 일으키며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가 다시 돌아옵니다!

# Musical The Story of My Life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Review



얼굴은 차가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는 작품은 오랜만이다.  
가슴에 박히는 사연, 작지만 힘 있는 수작 - 조선일보

두 남자가 무대에 흠뻑리는 종잇장은 켜켜이 쌓이는 세월의 흔적 같고,  
서정적인 멜로디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 동아일보

2011년 10월 28일 개막! 대학로 아트원씨어터1관

스캔하면  
공연 관람



연출 신춘수 출연 이석준 고영빈 이창용 카이 제작 OD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연 오픈리뷰주 원천 Look1G  
공연예매 오픈리뷰 1588-5212 인터파크 1544-1555 BCLoun.G 1577-4388 공연문의 오픈리뷰 1588-5212

Original Broadway Production developed in association with TheatreWorks, and TheatreWorks, in association with TheatreWorks. "The Story of My Life" received its world premiere at the Lincoln Center Company's Berkeley Street Theatre, in Toronto, Canada, on November 1, 2008. The musical was presented at the National Alliance for Musical Theatre's Festival of New Musicals in 2009. Subsequently Produced by Look1G Musical, Michael P. Price, Executive Producer. THE STORY OF MY LIFE is presented through special arrangement with Music Theatre International (MTI), 675 Javits Blvd., New York, New York 10017. © 2011 Look1G. www.look1g.com

CIRCUS

## MAXIM 1000호

200호? 300호? IMAGE Dreamstime.com

MAXIM은 1000호를 이미 구성중이다.

10/2014

10/27(월)9:30AM

GALAXY'S BIGGEST MEN'S MAGAZINE

MAXIM

## HOT DEBUT

스녀시대 DNA의 세포배합이 만든  
윤태카서수퍼씨호리

## 공포체험

32년 만에 내린  
하늘에서 쏟아진 백색 발암물질

U-RA

TX-201 ALPHA7  
행성을 발락 뒤집은 섹시로봇

NO.323-1182

그녀의 아찔한 나사 조임이 시작된다!

1000

THE 1000th ISSUE OF MAXIM  
SOLAR SYSTEM EDITION

2086년 10월호

정가 583,784,214,400원

\*태양계 외 도서시간 문화지역은 배송이 331,804,600원이 추가 발생됩니다.

태양계 에디션 한국어판

ICON  
명품 원로 배우  
왕석현

## SEX-tory

오토매틱페니스 튜닝에 대한  
여자들의 속마음가상 전희 프로그램 V-31  
사정시키는 테크닉

로봇과의 원나잇 후 바이러스 체크법

## STYLE

마인부우도 못 뚫는  
SPACE WEAR  
CHOSCIEN3전설의 패셔니스타  
스티븐 호킹 따라잡기906th  
MISS MAXIM

www.maximsolar.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 중세 수도자의 酒남

각국의 맥주를 이맛저것 마셔보면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된다.

더러는 맥주병의 라벨에 수도사, 수도원이 등장한다.

맥주와 수도원, 대체 무슨 사이였을까? BY 이요복 | [ed@kbar.kr](mailto:ed@kbar.kr) / [www.kbar.co.kr](http://www.kbar.co.kr)

요즘 제일  
읽어보는  
맥주?



### “도 닦으신다더니 뭘 술 냄새가 이렇게...”

**술**이 주는 세속적인 쾌락의 이미지는 구도자의 영적 생활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맥주의 발전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가 바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다. 물론 과거 수도원들 간에도 알코올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 일부는 물이나 물에 우유를 탄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마실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원은 엄격한 규칙 아래 음주를 허용했다. 마실 수 있는 시기도 비단 사순절 단식 기간이나 성탄절로만 제한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위 성직자일수록 독하고 친한 맥주를 마실 수 있었다(참고로 와인도 맥주보다 귀하게 취급됐다).

술과 종교적 신앙의 병행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이해가 간다. 맥주나 와인이 우리에겐 술이지만 그들에게는 ‘음식’인 것이다. 마치 일상의 간단한 식사로 와인과 빵 및 조각을 먹는 프랑스 사람처럼 말이다. 그러나 금욕과 절제를 추구하던 수도원들도 동제된 형태로나마 음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맥주가 서유럽에서 오래 전부터 일상의 음식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원 문화의 일부로 굳게 자리잡은 배경 설명으로는 좀 빈약하다. 더군다나 중세 초기까지도 이탈리아 사탕에서 얻어진 생소한 음료였던 맥주를 수도원에서 만들고 마시게 된 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얼마나 맥주가 생소했느냐고? 이탈리아 보비오 수도원의 한 수도사는 수도원 설립자 성 콜롬반의 ‘맥주와 관련된 기적’을 기록하면서, ‘맥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맥주를 꿀로 만들고 어디서 어떻게 마시는지 친절히 주석을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중세 초기 유럽 대륙의 수도원 설립과 확산에 이들 성 콜롬반을 비롯한 아일랜드계 수도사들이 관여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아일랜드의 성 콜롬반과 그의 종교 공동체다. 6세기 말, 켈트 교회의 종교적 전통에 기반을 둔 아일랜드의 성 콜롬반을 위시한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유럽 대륙 순례를 시작으로 수도원들을 대륙 각지에 설립했

다. 앞서 언급한 보비오 수도원을 비롯해 지금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의 많은 수도원들을 이들이 세웠고, 자연스럽게 브리튼과 아일랜드의 수도원 문화가 유럽 대륙에 도입될 수 있었다. 이렇게 들어온 켈트의 수도원 문화는 이후 전개된 유럽 대륙의 수도원 발전에서 일종의 중요한 물결 역할을 했다. 아, 도대체 술 이라는 언제 나오냐고? 지금부터다. 진정해, 진정해.

**성 콜롬반의 술과 얽힌 기적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그가 풍텐 수도원을 방문한 일화에는 빵 몇 조각과 적은 량의 맥주를 즐기시켜 60명의 수도사들을 모두 먹인 기적이 소개되었다. 주변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나!**

#### 맥주 불리기의 달인 성 콜롬반

맥주가 유럽의 수도원 문화의 일부로 정착하는 데엔, 켈트 수도원 문화의 영향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켈트 수도원 문화 자체가 이미 맥주에 축적해 몸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이재 실제로 성 콜롬반에 대한 기록에는 맥주를 즐겼을 때의 벌칙과 같은 구체적인 수도원 규율에서부터 수많은 기적까지, 맥주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성 콜롬반이 현재이우 수도원에 머무는 때 일이다. 사신 시간이 되어 한 수도사가 왕아리에 맥주를 들고 있었다. 그 때 다른 수도사가 와서 성 콜롬반이 찾는다고 전하자 그는 민사를 제쳐 놓고 달려갔다. 일을 보고 돌아올 때쯤, 아저! 자신이 맥주통을 찡그리지 않은 것이 퍼뜩 생각났다. 혹은 발을 받을 생각이 왕급히 맥주통으로 뛰어 가보나, 이게 뭘 일인가! 맥주가 왕아리 주둥이에서 찡랑찰랑함뿐 일로는 한방 울도 호르지 않은가. 북쪽의 미역을 실한 한 수도사가 발을 받지 않도록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일랜드의 고대 신화와 바이블 신화가 어우러진 이러한 류의 기적들은 성 콜롬반을 위시한 아일랜드 성

인들의 일화에서 종종 등장한다. 보통 맥주를 끊으로 증가시키거나 자연발효시키고, 더러는 이교도나 악마에게 재물로 바치는 맥주단지를 폭파시켜 혼을 내는 내용도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신화가 성 콜롬반의 손에 이후 유럽 대륙의 다른 성인들의 생애에서도 속속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 대륙에서 맥주가 수도원이라는 종교적 공동체 내에서, 더 나아가 종교적인 전통의 일부로 널리 수용되기 시작한 것을 일리는 중요한 징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861년 8월 아헨의 종교회의에서는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수도원 규율 조정이 이루어진다. 기존의 와인 일일 배급량을 기준으로 맥주 지급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와인은 하루에 1인당 1/2인치가 지급되는데, 와인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맥주를 그 2배인 1파인트 지급할 것을 명시한 조항이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초기 규율 제정 당시 이탈리아 수도원만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와인만 있고 맥주가 없던 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유럽의 수도원들은 이를 실제적인 지침으로 수용했고, 이후 통일된 수도원 규율의 근간이 된 베네딕투스 수도회 규율에서 수도사에 대한 맥주 지급이 명문화되었다. 이로써 켈트와 라틴 교회 모두 맥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맥주가 수도사의 일상에 그리고 종교적 전통으로 수도원 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주안점으로 살펴본다. 다음엔 수도사와 수도원 맥주가 후대에 남긴 유산에 대해 살펴보자. 그 때까지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오, 나의 고향...



# MISS OF THE MONTH MAXIM

2011 MISS MAXIM CONTEST  
THE 6TH  
SEMIFINALIST

천이슬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2011  
MISS MAXIM 콘테스트!  
이번엔 인형 미모의  
소유자, 이름까지 예쁜  
천이슬 양이 그 주인공  
이다.

EY 김희성  
PHOTOGRAPHS ARC STUDIO  
WORDGRAPHY & 송홍민  
HAIR/MAKEUP 이만형



 **생년월일** 1989년 10월 6일생  
**직업** 학생 모델  
**미니홈피** cyworld.com/cjsd1m1

**주요 서식지** 강남 일대  
**별명** 참아슬. 단지 이름 때문이다. 단 이유는 없나간?  
**취미** 혼자 구름산. 개공산에 올라간다. 재테크 관련 책도 읽는다.

**나의 매력** 청순함과 섹시함 모두를 가지고 있다. 잘 모르겠다고? 만인이 알아줄 때까지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다!  
**몸에 관라** 헬스클럽에 다닌다. 운동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남자들이 필기르세준다며 고드킨다.

**이상형** 남자라고 나를 리드해 줄 수 있고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며 예의 바른 남자(웃음) 연애인으로 치면 소지성? 과묵하지만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 권상우인가?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 어깨가 넓은 남자. 탄탄한 가슴(이건 먼저 봐야 알 텐데). 상체를 주로 본다. 성격이든 몸매든 남자다운 걸 좋아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더 관심 없는 척한다. 그래서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난 적이 많다. 흑..

**내 남자의 필수 조건** 바람둥이는 질색. 다만 좋아해주는 순정파이면 좋겠다.

**침략** 물레 휴대폰을 튀겨 문자를 본 것. 그런데 앙다리라는 걸 알고 난 후 바로 마음이 돌아섰다.  
**소원** 더 예뻐지고 싶다.

## 2011 MISS MAXIM CONTEST

MAXIM 화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리따운 여성 독자여!  
2011 MISS MAXIM CONTEST  
에 도전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 참가 신청 방법

- 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우측에 MISS MAXIM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독자들에게 오픈할 예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의 02-323-1182

alice@maximkorea.net

이벤트엔  
활영 현황



## 2권 이상 무료 배송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진정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자!

- 수시로 터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레
- MAXIM 고화질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서비스
-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 잡지에는 없는 미공개 화보 것과 기사 감상
- 연예인보다 섹시한 여성 독자 모델들의 사진 감상과 MISS MAXIM 투표 참여

### MAXIM OCTOBER 2011

정기 구독 신청 안내

**6** 개월 정가구독

~~정가 32,400원~~ ▶ **할인가 29,400원**

**3**만원 할인  
+ 1000원 적립

**12** 개월 정가구독

~~정가 64,800원~~ ▶ **할인가 57,800원**

**7**만원 할인  
+ 2000원 적립

**24** 개월 정가구독

~~정가 129,600원~~ ▶ **할인가 114,600원**

**15**만원 할인  
+ 4000원 적립

**36** 개월 정가구독

~~정가 194,400원~~ ▶ **할인가 164,400원**

**3**만원 할인  
+ 6000원 적립

**48** 개월 정가구독

~~정가 259,200원~~ ▶ **할인가 209,200원**

**5**만원 할인  
+ 8000원 적립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 확인  
하러 가기



클리어스 달팽이 세안제 루마카



시세이도 무노 품플렌칭



엔드웨어 30cm by 188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지프라이터 스페셜 에디션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버튼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69-02-079161

\*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회=1원)



길을 잃어도 좋다. 그피져 여행이 되니까  
유명한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좋다. 도시가 모두 작품이니까  
타일 하나도 예술이 되는 곳, 비르셀로나  
태양의 반짝임을 달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떠나자!  
떠나지 않으면 만남도 없으니까.



BARCELONA

# RAT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Authority

## ROCK AND ROLL BREAKER

### 스윗 리벤지

인디와 주류 음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달콤 쌉쌀한 복수를 꿈꾸는 4인조 여성  
록밴드 스윗 리벤지가 왔다.

BY 김상현 PHOTOGRAPHS ARC STUDIO

장현아

이화연

김소영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그녀들의  
깜짝출발반  
환영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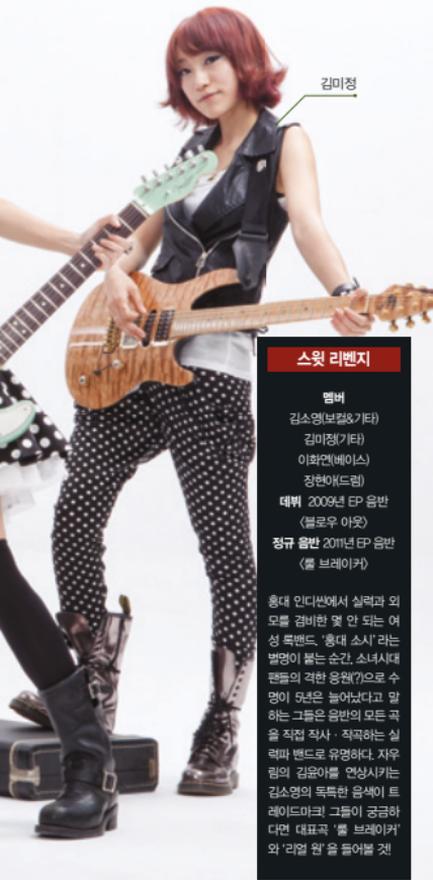
## 그녀들의 고급스러운 취향

**김소영:** 최근 100년 동안 발표된 노래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밥 딜리의 '400 YEARS'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울리는 최고의 노래

**김미정:** (리혼)의 OST는 정말 최고다. 오프닝 장면에서 아바마의 얼굴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 동등 투동 투동 투동' 소리는 귀만!

**이화연:** 자몽과 게임 중 하나만 골라내면 내 선택은 두말할 것 없이 단연 자몽이다.

**장현아:** (베이블 스트로리)에서 체력이 100 남은 상황에서 물약을 먹으면 뿌듯함과 동시에 전신의 근육기가 열리는 신묘한 경험이 가능하다.



김미정

### 스윗 리벤지

#### 멤버

김소영(보컬&기타)

김미정(기타)

이화연(베이스)

장현아(드럼)

**대뷔** 2009년 EP 음반

(블로우 아웃)

**정규 음반** 2011년 EP 음반

(홀 브레이크)

홍대 인디씬에서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몇 안 되는 여성 록밴드, '홍대 소시'라는 별명이 붙은 순간, 소녀시대 팬들의 격한 응원(가으로 수명이 두 배는 늘어났다고 말 하는 그들은 음반의 모든 곡을 직접 작사·작곡하는 실력파 밴드로 유명하다. 자우림의 김유아를 연상시키는 김소영의 독특한 음색이 트레드마크 그들이 공동히 다룬 대표곡 '홀 브레이크'와 '리얼 원'을 들려볼 것



언론에서는 왜 지금 이런 음반을 데뷔 음반이라고 떠들어대는 건가?

그렇게 말이다. 진짜 데뷔 음반은 2009년 <블로우 아웃>이고, 진짜 데뷔 무대는 관객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던 홍대의 프리버드 클럽이었다. KBS의 <뮤직뱅크>가 아니라고(웃음)

공중파를 타더니 왜 유명해졌다. 인지도에 비해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긴 힘들거든. 왜일까? 신간해서일까? 공연은 많이 하러 다녔는데 인터뷰를 한 기억은 거의 없다.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필요도 못 느꼈는데 해보니 재미있군.

스윗 리벤지를 '홍대 소시'로 언급하는 기사도 있었다.

신선초목이 웃을 일이다. 소녀시대는 짱이다. 비교 불가 자극적인 기사를 뽑기 위한 별명인 것 같다. 덕분에 손발이 오그라들고 하루하루 자발 때마다 수명이 길어지는 느낌이든다. 욕을 하도 먹어서.

홍대 인디 여가수들은 왜 하나같이 '여성 콘셉트'인가?

요즘 홍대는 '올림푸스'다. 홍대에서 활동하는 여자 싱어는 모두 여성이더라. 우리도 여성 밴드라는 타이틀이 있다(웃음) 그것 때문에 욕도 신나게 먹는데 우리가 지은 별명이 아닌 사실만은 알아달라.

이런 음반은 많이 알린다. 지난 음반처럼 '퍼킹'을 날리는 파워풀함이 아니다.

이런 음반은 정말 나오는 대로 만들었다. 대중적인 음악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가까워져주 노력했고, 굳이다가 없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 대신 아성의 상

태, 날것의 느낌은 감추려 했다. 우리 원래 옷으며 'Fu\*\*ing'을 날리는 인간들이지만 심의에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 록커는 찾기 힘들고, 여성 록밴드는 더더욱 찾기 힘들다. 그래서 당신들을 '비주얼 록밴드'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마초도 적지 않다.

왜 위에서 구사할거리는 걸까? 할 말이 있다면 앞에서 얘기하도록 큰 컨퍼터로 사 주겠다.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 말투를 들으니 오덕의 기가 감탄한다.

멤버 모두 PC방까지 오락실 체질이다. 인형 놀이부터 추억의 보글보글까지 김소영은 부산의 오락실에서 인형 놀이 기계에 영혼을 팔아 5원 만원을 투자한 적도 있다. 그 돈이면 새 인형을 하나 샀겠지만 '뽑는 쾌감'을 맛보았으니 후회는 없다.

어자들은 대체로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들 싫어더라.

은종일 게임만 하는 남자는 싫다. 데이트를 하고픈데 남자가 <철권>만 주구장창 볼 줄도 있다면 마실 로우를 골라서 풍차돌리기와 다리걸기 볼보로 승리한 후 데이트하러 나가자.

까놓고 말해서 당신들은 스타와 뮤지션 중 무엇이 되고 싶은가?

다 따로 없고 록스타!

MAXIM과 복수의 공동출판?

복수는 책사하고 달콤하며 늘 위로해준다. MAXIM도 그렇잖아?





RATED

PLAY

FILM

TV

# 사람 죽이는 4가지 방법

올 가을엔 피르고, 때리고, 장기 빼고, 쓰세요! by 송종민

## 1 싸 죽인다 <리얼 엘리트>

이해하기 힘든 이 지극히 같은 영화 제목에 비해 이야기는 흥미롭다. 은퇴한 킬러가 동료들 살리려고 영국 특수부대(SAS) 요원들을 죽이고, 그 뒤를 SAS 비밀조직 '패더쇼' 소속 사파이 크가 쫓는다. 여전히 비밀에 싸인 '오만 석유 전쟁 SAS 개입설'과 권적자의 실제 SAS 복무 당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형, 묵속 걸고 행하는 건 아니겠지? **개봉 9월 22일**



## 2 때려 죽인다 <리얼 스틸>

관중들이 열광하는 복싱 경기장의 링 위에서 거대 로봇 파이터들이 승부를 펼치는 2020년. 복서 출신 상류 프로모터와 아들이 고질 로물 싸움을 최고의 파이터로 키워내는 과정이 강동적으로 펼쳐진다. 보기도 전에 스토리가 머릿 속에 막 그려지는 게 단점이지만 개성있는 로봇들의 모습과 필살기가 기대되는 건 수컷의 분봉 전설적인 복서 슈거 레이 컬러드가 감수한 로봇 모션 캡처 덕분에 파이팅 장면이 무척 자연스럽다. **개봉 10월 12일**



## 3 장기를 켜다 <카운트 다운>

간만에 걸린 건호가 새 길은 10월 이나에 하연의 간을 이식받는 것뿐이다. 아오, 그런데 이 여자 사기꾼이다. 어찌겠나, 목마를 놓이 우물 피아지. 빈민 하연은 명 잡았다. 건호가 교도소에서 빼주고 자기 갱생 보낸 놈 찾아 복수도 해주고 목숨도 구해준다. 이러다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닐까 싶지만 건호에게 차연은 투기 갇힐 뿐. '그냥 죽어서 꺼내면 안 되냐?' 하고 고안하게 만든다는 본격 장기 적출 액션 드라마 **개봉 9월 29일**



## 4 찢러 죽인다 <삼총사 3D>

삼총사와 달타냥의 모험담이 또 나왔다. 이번엔 약역에 대해 고민한다. "우유 한 잔?"(바스타즈: 거친 녀석들!) 한 마디로 야귀미를 지리게 한 크리스토프 왈츠가 추기경으로 남남(삼총사 3D) 제작(연출) 영화에 안 빠지는 조강지처 일라 요보비치가 팜므 파랄 일러로 나온다. 올랜도 블룸은 악역 버킹엄 공작을 연기한다! 3D를 영두하고 짠 액션이 많으니 (사크나이트 3D)에 분노한 사랑이런 이거라도 믿어보자. **개봉 10월 13일**

**믿고 찾는 악어표 대학로 공연 3중 세트**

**1 스페셜 레터**  
**관련 포인트** 남일 굶지 않은 말년 병장 김병장의 인드르에 대한 관광 열차 탑승기 **보고 나면?** 당신의 불행은 곧 다른 이의 행복이란 슬픈(?)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 줄 필** 진부한 군비라 스토리도 실감 넘치는 '다테일'이 더해지는 순간 재미있는 뮤지컬로 변신 **장소/가격/문의** 대학로 SMO아트홀/40,000원/악어 컴파니(02-764-8760)

**2 옥탑방 고양이**  
**관련 포인트** 당시의 상징/백동 수를 올리는 여주인공의 사랑 장면 **보고 나면?** 올라올 때는 반드시 연애해 있다고 다짐한다. **한 줄 필** 드라마보다 노골적인, 그래서 실감 나는 청춘 남녀의 동거 일기 **장소/가격/문의** 대학로 SMT아트홀/30,000원/악어 컴파니(02-764-8760)

**3 내 이름은 김삼순**  
**관련 포인트** 예쁘지 않은 여주인공이 시크리이 지남수록 예뻐 보인다. 시크리이 외진 **보고 나면?** 매력적인 여자? 스스로의 매력은 모를 때 사랑스러움은 배가 된다. **한 줄 필** 하는 것이 예쁘면 못나도 예뻐 보인다. **장소/가격/문의** 대학로 상영아트홀 단/30,000원/악어 컴파니(02-764-8760)

TV **목요일 밤 11시에 만나요~**

**순정녀가 좋더라**

OTV의 <순위 정하는 여제순정녀는 매회 새 주제를 놓고 스타 싱글녀 10인의 발칙 속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링크쇼. 고음 신공로 수다 떠는 여제에 질색하는 당신도, 그녀들의 핫한 재래를 보면 모든 걸 덮고 눈을 화연에 처하게 된다(제작진이 여자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다). 그녀들의 이야기도 기대 이상으로 화끈하다. 화려한 꽃밭 속에 있는 남자 MC 이휘재, 불이 죽일 듯이 부러울 따름이네!

# 창과 방패의 대결

어느 날 그녀가 스마트폰을 들고 몸을 배에 꼬여 다가온다.  
 “오빠 나 믿지? 우리 비밀도 없지?” 를 연발하는 그녀.  
 아벨씨, 그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by 송홍민



## 방패 | 만나자 마자 당신의 핸드폰부터 넘어치는 그녀를 막아라



● **비밀문자** 얼핏 보면 단순한 계산기로 보이지만 007 영화처럼 특정 암호를 입력하면 비밀 금고가 나오듯 몰래 받은 문자들이 고이 보관된 비밀 공간이 나타난다. 특정 전화번호로 오는 문자들을 기본 메시지함이 아닌 여기에 숨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모르고 실행하더라도 실제 계산기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누가 봐도 계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계산기!' 같은 당신을 위한 맞춤형 비밀 금고!

● **가짜 통화 기록** 제조회사 자위권 순위도 채워 넣기는 어렵다. 바로 통화 목록 이야기다. 그녀가 봐서는 안 되는 통화 목록을 무작정 지우다가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원뿔 연기도 한두 번이지. 지친 당신을 위해 그럴 듯한 통화 목록을 만들어보자. 날짜와 통화 시간, 통화한 인물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통화 기록이 위조된다. 수신과 발신도 조작 가능하고 심지어 부재중 통화까지 위조할 수 있다. 당신이 실제 원뿔도 이었던 있으면 인기 많은 척 할 수 있다. 아야. 눈물이...

## ULTIMATE SOLUTION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든다. 스마트폰을 부셔버리고 2G폰을 장만한 다음, 예전의 광신도로 개종하고 아이폰을 구입한다(커플러는 안드로이드 전용이다). 애초에 '오빠 커플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뽑구나. 인생을 첫 살때와 같은 맥락 없는 분노의 단어를 토해내며 노뿔대할 화를 낸다. 영심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 각서에 사인하는 순간 난 노예야! "이런 길 찾는다"는 자체가 우리 애정 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라니깐?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커플이 되자! 그 그녀를 설득해라 그리고 너도 쿠팡가는 일 하지 마. 그럼 못 써.



## 창 | 커플러서 앞에서 무장해도 소용없다. 방패들 긴장해라.



### 1. 문자 감시 기능

“오빠나 사랑해” 같은 단어가 들어간 문자는 재깍 남치되어 그녀의 폰으로 전송된다. 제작자의 마지막 양심인지 막 두 단어만 필터링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 불행 중 다행. 상대방이 ‘유하, 사랑해’ 같은 허 꼬인 소리만 한다면 락케

●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감시가 불가능하다. 목록.



### 2. 위치 추적 서비스

그녀는 실시간으로 당신의 현재 위치를 검색할 수도, 하루 동안 이동한 경로를 볼 수도 있다. 시중에 이런 GPS 위치 속이기 앱이 많은데 그걸 썼다가는 대번에 '위치 속이기 앱들 사용 중'이라는 메시지가 날아온다. 뺨이 얼 일고 깨물었다가 진짜 황천 가는 수가 있다.

● 핸드폰을 버려라. 범법이다.



### 3. 통화 목록 감시 기능

3분 이상 두 분기와 통화를 하면 바로 그녀에게 해당 번호가 전달된다. 얼마 번호라고 우겨도 소용없다. 여자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아~

● 스카이프와 바이버 등의 무료 통화 앱을 활용하면 들릴 염려가 없다. 하지만 큰 금액만 위하는 포전한 불이려고 찍히거나 누가 위가 누르면 의심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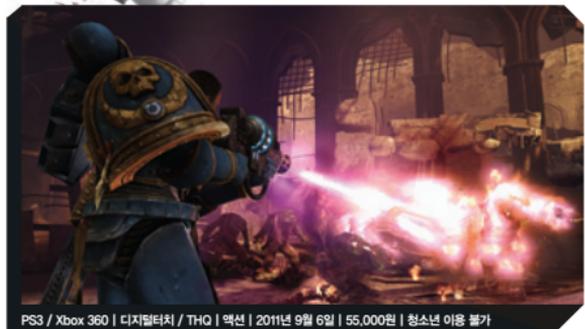
# For the Emperor!



## 워해머 40,000: 스페이스 마린

© Warhammer 40,000: Space Marine – Copyright © Games Workshop Limited 2011. Space Marine, the Space Marine logo, GW, Games Workshop, the Games Workshop logo, 40K, Warhammer, Warhammer 40,000, Warhammer 40,000 Device, 40,000, the Double-headed Eagle device and all associated marks, logos, places, names, creatures, races and race insignia, devils, logos/symbols, vehicles, locations, weapons, units and unit insignia, characters, products, illustrations and images from the Space Marine game and the Warhammer 40,000 universe are either “TM and/or © Games Workshop Ltd 2000-2011, variably registered in the UK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used under license. All Rights Reserved. Uses RRK2 Library 2.0.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Relic Entertainment. THQ, Relic Entertainment and their respective logos are trade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Q Inc.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trademarks, logos and copyright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GAMERZ



PS3 / Xbox 360 | 디지털판/터치 / THQ | 액션 | 2011년 9월 6일 | 55,000원 | 청소년 이용 불가

### 1 워해머 40,000 시리즈, 차세대 콘솔 첫 등장

서양의 테이블톱 게임계에서 인기가 상당한 미니어처 게임 《워해머 40,000(이하 워해머 40,000)》은 방대한 설정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여러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성 있는 다양한 종족과 설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명가 레이크에서 내놓은 《워해머 40,000: 다운 오브 워》 시리즈를 포함해 이미 여러 번 게임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었다. 레이크에서 이번 신작은 액션 장르에도 도전했다. 《워해머 40,000: 스페이스 마린》에서는 방대한 워해머 세계관의 일부를 차세대기의 그래픽으로 체험 가능하다.

### 2 인류 제국의 수호자, 죽음의 천사 스페이스 마린

《워해머 40,000: 스페이스 마린》에서 플레이어는, 스페이스 마린 중에서도 유명한 캠퍼인 울트라마린(Ultramarine)의 최첨대 중대를 이끄는 캡틴 타이더로서 인류 제국의 수호를 적을 상대로 싸우게 된다. 인류 제국의 군인 중에서도 인류 제국의 지도자인 ‘황제’에 대한 충성심, 강력한 무기, 19기지에 달하는 신체 강하고 수술로 얻은 몸을 가진 초인 전사 스페이스 마린은 황제의 의지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 우주 곳곳에

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공포를 모르는 존재’로 유명한 그들은 황제가 신뢰하던 아들 ‘호루스’가 사악한 ‘카오스’에 미쳐 많은 스페이스 마린 캠퍼와 함께 일어난 ‘호루스의 이단(Horus Heresy)’을 겪고 강력한 무기와 기술을 잃었다.

이제 스페이스 마린은 캠퍼당 1,000명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 밖에 안 되지만, 아직도 쓰러진 황제와 인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외계 종족과 은하계 곳곳에서 싸우고 있다. 《워해머 40,000: 스페이스 마린》에서는 스페이스 마린의 박력 넘치는 전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3 죽음의 천사들에게 두려워 할 적은 없다

《워해머 40,000: 스페이스 마린》에서는 전작에 나오는 다양한 종족의 일부가 등장한다. 스페이스 마린을 돕는 인류 제국의 군인 ‘인페르럴 가드’ 외에도, 싸움을 위해 태어나 싸움이 없다면 자들끼리도 싸우는 싸움광 외계 종족 ‘오크(Oak)’, 사악한 힘인 ‘워프’에 홀린 인간이나 워프에서 튀어나온 괴물 등으로 이루어진 인류 제국의 영원한 적이자 배신자인 ‘카오스’와도 싸우게 된다. 여러 종족의 무기를 자들들 멋대로 뜯고쳐서 사용하는 녹색 피도의 오크와 워프의 힘으로 인류를 현혹하고 저주하는 카오스물 상대로, 스페이스 마린들은 인류를 지키기 위해 똘똘서주하게 될 것이다.

### 워해머 40,000란?

영국의 미니어처 게임 회사인 게임즈 워크샵에서 출시한 테이블톱 미니어처 워크게임의 한 종류. 간단한 비유를 하자면 ‘미니어처, 주사위, 종자를 이용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제국과 수많은 외계 종족으로 이루어진 각 진영의 미니어처, 규칙을 담은 룰북, 각 진영이 가진 유닛의 특성, 과 설정이 담긴 코덱스를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여러 유닛을 조합한 자신의 아미군단을 구성해 플레이하는 워크게임으로서의 완성도도 높지만, 매우 다양한 미니어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도색하고 꾸미거나 작작 미니어처정식 워해머 경기에는 쓸 수 없다. 다들 만드는 것을 취미로 삼는 미니어처도 있다. 원하는 미니어처를 구매해서 군단에 넣을 수 있지만, 일부 미니어처는 크고 생김이 뛰어난 만큼 가격이 비싸다. 한국에서는 서을 흥락대 학교 입구에 있는 ‘오크타운’에서 이를 정식 수입, 판매하는 중(게임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다). 미니어처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 둘러보도록!



<워해머 40,000: 어벤트 온 블랙 리치>  
-게임용 배로 줄길 수 있도록 스페이스 마린과 카오스 진영의 간단한 일부 미니어처 룰북, 각 진영의 코덱스, 기타 등등을 담은 스타터 박자(1-게임 방법, 미니어처를 배치하고, 주사위를 굴러 이동 후 테이블에서 상상의 게임을 재는, 주사위로 어떤 영웅을 결정한다. 어떤 상자?



# 명작 사이버펑크의 귀환! 데이스 엑스: 휴먼 레볼루션

Deus Ex: Human Revolution ©2011 SQUARE ENIX LTD. Published by SQUARE ENIX LTD. Developed by EIDOS-MONTREAL, SQUARE ENIX and the SQUARE ENIX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quare Enix Holdings Co., Ltd. DEUS EX: HUMAN REVOLUTION, DEUS EX, the DEUS EX logo, EIDOS, the EIDOS logo, and the EIDOS-MONTREAL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quare Enix Ltd.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ll rights reserved.

GAMERZ



PS3 | 빈다야널코 파트너즈 코리아 / 인트라링크스 | 액션RPG | 2011년 8월 | 가격 미정 | 등급 미정

## 1 진정한 의미의 '자유도'가 여기에 있다

(데이스 엑스)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수준 높은 스토리 라인과 함께 철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자유도. 게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일수하고 놓쳤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들려주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인 아담을 대하는 태도부터, 크게는 시나리오 진행 자체가 달라지는 등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매우 많다. 10회 플레이를 하면 10회 모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정도다.

## 2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추어

### 신체를 강화시키자

이 게임의 주인공 아담은 신체의 거의 대부분(혹시 그 정도?)이 사이보그화되어 있다. 얼마든지 신체의 개조와 변경,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스나이핑에 자신 있는 플레이어를라면 호흡을 안정시켜서 조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정해볼 것. 육박전을 선호한다면 근력을 강화해 격투에 특화시켜보는 것도 좋으리라. 물론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올라운드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차미 아담의 신체 개조는 당시 최고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장 멋지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 오케?



## 데이스 엑스는?



《플레이드》 시리즈로 유명한 에이도스가 제작 중인 이 시리즈는, FPS에 RPG 요소를 대폭적으로 가미한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지평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수준 높은 시나리오와 완성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명작 시리즈다. 콘솔 게임 덕후들이 생애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이런 명작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의 시대대 배경보다 30여 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프리퀄 작품이 바로 지금 소개하는 게임, (데이스 엑스) 시리즈: 휴먼 레볼루션이다. 덕후들의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려오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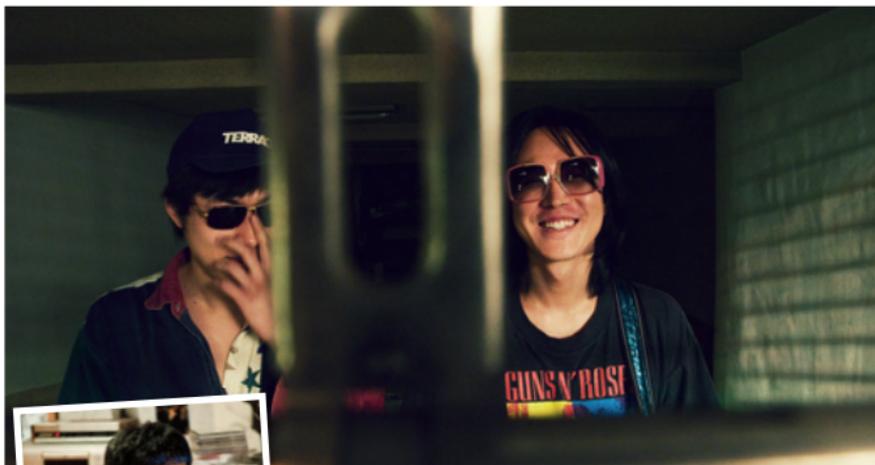
기술은 발전했지만 임용일은 더욱 짙어진다. 디스토피아, 그런 시대가 바로 (데이스 엑스) 시리즈의 배경이다.



리턴에 '데우스 엑스 머키나(dex ex machina)'라는 말이 있다.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이는데, 단어 그 자체만 해석하면 '기계 장치의 신'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보통 연극에서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절대자가 등장해 이를 간단히 해결해주는 특별한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 어쩔 수 없는 또라이 ‘온혈 밴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뜰개와 불친절한 밴드 이름에 속지 말 것! 그 안에 숨겨진 친절함과 쓸쓸함이 뒤섞인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음악이야말로 그들의 참모습이니 말이다. **BY 황해비**



### 불친절한 넘은 맥락도 의미도 없는 괴이한 이름이어

겉과 불친절한 이름의 밴드는 예전부터 꽤 많았다. '결혼한 애인 교통사고사 비관 자살' 같은 음침한 이름도 있었고, 지금은 고인이 된 이진원씨의 원맨밴드 '달빛 요정역전만루출판도 있었다. 뜻을 헤아리기 힘든 걸로는 '네놈박이나무일부시기나' 우리는 속속도 생겼고 여자도 늘었다네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자는 딱장발레릭 나무일부시기과의 공중 이름이고, 후자는 영상성의 소설 (인제전의) 페이지를 임의로 펼친 다음 "암흑집도 생겼고 기왓장도 늘었다네"라는 구절을

### 불친절한 이름과 조우하다.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라는 불친절한 이름을 처음 마주친 것은 홍대 앞 어느 클럽의 공연 광고 벽보에서였다. 광고 벽보라고 해도 제대로 인쇄된 포스터가 아닌 쓰다 남은 다른 포스터의 뒷면 하단 바탕에 마커로 쓱쓱 쓱쓱 그날 공연 팀의 이름과 시간, 입장료 정도를 써넣은 것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홍대 앞의 크고 작은 수십 개의 클럽에서 매주 벌어지는 공연 중 하나였고 그 중 한 팀이었다. 공연의 벽보를 쓴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밴드의 이름이 간데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해야 할 정도로 괴이쩍었으니 말이다.

찾아 바든 것이다. 그런데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라는 이름의 맥락도 의미도 없었다.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괴이한 이름이다.

### 거부감을 호감으로 '도시생활' 유직비디오 '도시생활'

불친절함에 반작용처럼 따라붙던 막연한 거부감이 금호호감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1집에 수록된 노래 '도시생활'의 유직비디오를 보고 나서다. 2007년 정도 즈음 인디 음악팬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회자되었던 이 유직비디오로 나는 처음으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엔 준수한 외모와 열렬한 허우대를 자랑하는 2명의 청년. 투박한 질감의 천자 비트, 그윽리티는 아·지·만 따뜻한 울림의 기타 소리, 나른하고 달든 것 같은 묘한 울림의 미성이 함께했다. 하지만 가사는 의외로 참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도시의 생활 지겨울 만큼 하고 있고/사커 먼 공기도 마실 만큼 마셨고(…) /도시에서만 살기는 젊음이 아깝잖아." 어딘가 조영남의 '도시여 안녕'이나 윤수일의 제2의 고향 같은 노래가 생각나는 이 곡으로 나와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심리적 거리는 놀라울 만큼 좁혀졌다.



###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1집 음반

알고 보니 '도시생활'이 수록된 1집 음반은 우여곡절 끝에 발매됐다.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조중과 임병학각각 '조부라움'과 '임팩트'이라는 예명도 쓰고 있다는 대학가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취미삼아 데모테이프를 만들어 인디 레이블의 명가인 카바레 사운드에 보냈는데 레이블 측에서 그만 실수로 이 데모를 분실해버렸다. 카바레 사운드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자야 음반 발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이들이 운영하던 술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때 조중과 임병학은 가게를 잡고 해외로 떠나려하던 참이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온 1집 '우리는 깨끗하다'를 기반으로 그들은 꾸준한 라이브 활동을 가지면서 팬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 그들다워 더욱 매력적인 2집 음반 <우정모텔>

이번 음반 재킷에는 두 멤버가 모델 객실에서 가는 차림으로 유투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goonamgula)에 따르면 이들은 재킷 사진을 찍은 대략한 한 포스터로 찍어서 '운동 삼아' 직접 풀이러 다녔단다. '이번 상도라이드...'이라는 흔 것말을 삼키며 음반을 듣노라면 돌고래 불친절함을

배반이라도 하듯 너무나 정상적이고 진지한. 심지어 좋기까지 한 노래가 이어진다. '살면서 알게 되는 건/건강이 참 중요하단거/갑기만 걸러 봐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게 되지(갑기)망상'라던가 '사람 살다 보면 온/괜히 말 가는 사람 있더라/그래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우리 쓸쓸 하더라(장단) 같은 노래는 보편적인 울림을 가지면서도 처음 듣는 순간 귀에 '콕' 와서 박힌다. 장담하건대 이 쓸쓸한 온기는 몇 해 지난 어느 날 새벽, 술집의 마지막 테이블에 남겨진 어떤 남녀의 마음을 대위할 거다.



### '아침의 빛'으로 절정에 달한 감흥

1집 '우리는 깨끗하다'에 대한 인상이 '도시생활'의 뮤직 비디오로 수렴된다면, 한결 나긋나긋해졌지만 까칠함과 생경함을 잃지 않은 이번 음반의 감흥은 노래에선 순 '아침의 빛'에서 절정을 이룬다. 처음 만난 여자랑 술을 빌리며 몸을 섞은 후 일어난 아침의 당혹감과 상념.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삼십대 남녀라면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 한 어덜트한 시유에이션이 유들유들한 리듬감 속에서 흥상수의 영화처럼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아침의 빛'은 EBS의 <스페이스 공감> 공연 영상으로 감상하는 게 제격이다. "따스한 온기와 향긋한 숲결/이 사랑스러운 여자도 언젠가 사랑을 하겠지/나도 언젠가 사랑을 하겠지만/지금쯤 그제 배가 고프다/살짝 얼어 둔 침동으로/아침의 빛이 스며든다."는 가사는, 여성가족부가 문제 삼을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누가 들어도 교육적이진 않다. 곡이 연주되는 동안 객석을 출던 교육방송의 카메라는 부모님 손을 잡고 따라 온 초등학교 남학생의 모습을 비춘다. 그 순간 아이의 병진 얼굴이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기분 좋게 웃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나도 그들처럼 어쩔 수 없는 또라이라는 뭐 그런 예기다.



**24 HOURS TO LIVE**

# 정열맨의 리얼 히어로 귀귀!

사랑과 정열의 귀귀 월드에 어서 오세요. BY 송승현 ILLUSTRATION 귀귀

귀귀라는 별명 외에 알려진 정보가 하나도 없다. 신비주의인가, 뭇생인 건가? 후자다. 시발.

당신이 교보본고 한복판에서 “내가 귀귀!”라고 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0만 원이면 생각해보겠고, 1,000만 원이면 방세도둑 사우팅에 바이브레이션을 넣어 외치겠다. 1억이면 뭇 벗고 물구나무 서서 외치겠다.

미안하지만 당신 목소리가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 이래도 슬길 건가?

글이 알려지 않을 것 같은데? 처리리 멋진 보트 하나 훔쳐서 죽기 직전까지 바다를 질주하다가 자살하겠다는 행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족을 위한 그림을 그려겠다. 유적이든 돈 좀 되지 않을까?

그럼 부모님은 당신이 귀귀인 것을 아나?

물론이다. 아버지가 내 민화를 보고 뭇

는 모습을 봤다. 호도한 것 같아 기분 이 좋았다.

어릴 적에는 무엇이 되고 싶었나? 화가. 부자. 합쳐서 부자 화가.

어릴 적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워인 귀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인가.

중1 때 전교학생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부 형들이 찾아와 네가 그린 게 맞느냐며 물었다. 그 후 웬지 그림은 안 그려고 이상한 낙서만 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은 뭔가? 모르겠다.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천칭.

최근에 보고 폭소를 터뜨린 상황이 있다면?

반려견으로 사메이를 키우는데 보고만 있어도 웃는다. 자고 있는데 입가에 음소를 가져다 보면 언젠 갔는 듯 할래벌떡 씩는 모습에 신나게 웃었다.

김성모마리아님의 패러디가 유독 많다. 그분을 존경한다. 사실 성투적일 수 있지만 김성모 작가님뿐 아니라 모든 만화작가가 존경스럽다.

그럼 엉영어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동성 코드가 들어간 건가? 아니면 일종의 커밍아웃인가?

2부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심 차게 준비했던 부분이야. 호불호가 갈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아깝다. 커밍아웃은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여자친구는 있나? 있다. 요즘 만난 것이 아라! 10년 만 같다.

“귀귀의 스토리는 단지 말장난 개그를 위한 말장난이다!” 라는 말이 있다.

《정열맨》 같은 경우 나름대로 큰 스토리를 잡기 위해 머리맡 뼈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1부는 큰 스토리는 잡아왔지만 거의 에드립으로 진행하느라 고생했다. 2부는 1부에 비해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물론 개그를 위해 스토리가 만들기도 하지만 말장수준이라고 하면 속상할지도.

《정열맨》 2부 마지막에 직봉이라고 불리던 뿔 만큼 걸러뿔이 대충이던데?

마지막 부분만 올 컬러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나름대로 작화는 발전 중이라 말하고 싶다. 특히 마지막 에필로그 편은 2분을 임하는 정성을 쏟았다.

웹툰 마감 시간을 못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뿔 하느라 맨날 늦나?

마지막 이틀 정도는 거의 잠도 안 자고 작업한다. 하지만 11시 50분 마감으로 버저비터를 날린 적은 있어도 날짜를 넘긴 적은 없다.

2부가 끝났다. 설마 《정열맨》 3부도 준비 중인가?

구체적인 예정은 없다. 속편인 낚시 신공도 생각 중이고, 이미 스토리 구상을 마친 추구 민화를 그림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 아직 생각 중이다.

죽기 전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싶은가? 《정열맨》 초반에 나온 육살 등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열혈 초등학교》도 많이 억누르며 그리는 편이다. 그런 경계기 없는 민화를 그리고 싶다.

묘비에 뭐라고 쓰고 싶나? 묘비림.

죽기 전에 사시 한번 넣어주겠다. 다음 중에서 골라라. 오징어달걀, 매운 카레달걀, 오마레라 치즈 피자, 시래기국. 필요 없다. 실랑려라. 아니 실랑려주세요 ㅎ

내 인생의 영화: 《관의 미로》, 《아드레날린 24》, 《산우》, 《미스트》, 《블라인드 테라》 등  
 내 인생의 음악: 미국 스윙 영화들  
 내 인생의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 인생의 만화: 내 개그 코드에 많은 영향을 준 《피자거북》

# S+TUFF

## 스캐너 마우스 :BORN TO THE SCAN!

LG전자가 기동찬 마우스를 하나 내놓았다. 스마트폰에서 삼질의 신세계를 개척 중인 회사의 제품이라면 믿기지 않는 센스가 돋보인다. 이제 스캔은 이 녀석에게 맡겨두자고. **BY 김성민**

### LG LSM-100

□ 지털카메라의 보급,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 업그레이드로 집에서 스캐너를 쓸 일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좋은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라도 스캐너와 달리 주변부의 왜곡된 부분을 없애기란 쉽지 않다. 특히 텍스트를 포함한 문서는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태블릿이나 이북리더기로 볼 만한 이미지를 얻기 힘들다. 그렇다고 가끔 스캔 작업하자고 평소엔 짐짝 같기만 한 스캐너를 지르기는 부담스러운 라이트 유저를 위해 LG전자가 이능을 내놓았다.

□ 마우스에 스캔의 기능을 이식한 LSM-100! 스캔 버튼을 누르고, 스캔할 대상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된다. 마우스가 지나간 자리는 스캔 이미지로 자동으로 변환돼 모니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A3 사이즈도 커버 가능한 해상도(320dpi)를 지원하며,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스캔한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출이 가능해 자료를 스크랩하기도 좋다. 다만, 성인 남자의 손에도 다소 큰 사이즈(65mm×115mm)와 묵직한 무게(115g). 스캐너에 비해 화질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편의성, 스피드를 고려한다면 자료 정리를 자주 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편집장님, 하나 사주세요.

가격 140,000원 (세예정)  
문의 1544-7777 [www.lge.co.kr](http://www.lge.co.kr)

### → 대안이 필요하다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패드를 이용한다면 핸드스캐너 '씨편 3.5'를 눈여겨볼 것. 카메라를 이용한 스캔 방식의 입력기로, 책이나 잡지 등에 밑줄 긋듯 스캔하면 글자로 변환해 자동 입력된다. 번러기, 메모장 앱과 활용하면 금상첨화  
가격 298,000원 문의 0505-470-3000 [www.ectaco.co.kr](http://www.ectaco.co.kr)



**LOOK!**



# SEXY BACK PACK

지랄 같은 일교차가 미친년 날뛰듯 하는 가을 날씨에는 거북이 등껍질만큼 든든한 백팩이 최고다. 이왕이면 뒤태를 멋지게 해줄 녀석으로!

BY 김상현  
PHOTOGRAPHS ARC STUDIO  
STYLING 곽경희  
MODEL 조유령

COOPERATIONS 헌터, 북시, 낙스,  
비엔지비, 지프(02-546-7764)  
슈즈텐(02-3443-1703)



신발 헌터

**JAN SPORT**  
TYU77UC

수컷이라고 칩시다. 보기가 달리 수납공간도 꽤 넉넉한 편이라 15인치 노트북도 거뜬하니 공돌이가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칩시다 등산 가방 대신 편하게 들고 다닐 백팩을 찾는 이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다.

있을 것이다. 보기가 달리 수납공간도 꽤 넉넉한 편이라 15인치 노트북도 거뜬하니 공돌이가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칩시다 등산 가방 대신 편하게 들고 다닐 백팩을 찾는 이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다.

가격 99,000원

문의 070-7150-3626 [www.multisky.co.kr](http://www.multisky.co.kr)

[ GOOD 신뜻해지고 싶은 수컷이라면 ]  
[ BAD 킬러물한 것따름 씹은 수컷이라면 ]



동 큰 백팩이  
필요하다면?



#### 글림피아 미니백팩

튼튼한 질로는 무이다. 17인치 노트북도 넉넉하게 품어줄 뿐 아니라 접다한 물건들을 속 집어넣고도 여유가 남는다. 외로움에 지쳐 가방을 메고 산으로 훌쩍 떠날지도 모를 당신을 위해 구조용 호루라기도 장착했다.

민소매 나트 북시  
시계 너슨

## IDEALITIC ET NAVY

인케이스 백팩은 개나 소나 들고 다니는 데다 당신은 니쿰이 아니니까 정착해도 품이 안 나니 비추다. 백팩에 17인치 노트북 정도는 넣어줘야 안심이 되는 수컷은 널찍한 아이디얼리틱백팩이 딱이다.

가방 위쪽에 특수 소재를 사용해 모양이 망가지는 걸 잡아준다. 스마트폰을 담을 수 있는 사이드포켓이 있다는 것도 매력적. 다만 추억의 학습지 '아이템플'을 연상시키는 대가리 로고는 안습.

가격 87,000원

문의 070-7150-3626 [www.multisky.co.kr](http://www.multisky.co.kr)

[GOOD] 군더더기 없는 맛있게 사용하는 수컷이라면  
[BAD] 민자 머리 로고를 견딜 수 없는 탈모 수컷이라면

가능성 백팩이  
필요하다면?



**노스페이스 플라이웨이트**

평소에 전공책을 가득 넣어 다니지만 주말에는 태블릿 하나만 허허로이 들고 다니는 당신이라면 이 놈이 매력적일 거다. 가방 안에 탑재된 지체 주머니에 잉여 공간을 밀어 넣어 부피를 확 줄이는 게 가능하다. 와우!

시계 너은  
신발 수조원



**KALEB  
DESIRE  
ELAH-BIG  
BACKPACK**

런던 보이즈의 히트곡 '할렘 디자이너' 만큼이나 잘나가는 컬랩 디자이너의 백팩이다. 깔끔한 절모습만큼이나 내부 공간도 활용하기 좋다.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천연 포켓, 충격 방지재로 무장한 노트북 수

납부는 물론이고, 가방의 하단 스트랩으로 우산이나 코트를 거치할 수 있다는 게 특히 만족스럽다. 잡다한 것들을 우겨 넣어서 당신 배처럼 볼록 튀어나온 백팩의 안쓰러운 물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가격 88,000원

문의 070-7150-3626 [www.multisky.co.kr](http://www.multisky.co.kr)

**[ GOOD 개념 충만한 백팩을 찾는 수컷이라면 ]**  
**[ BAD 심플한 게 매력이라고 믿는 수컷이라면 ]**

STUFF



비키니 끈시  
체크셔츠 지프  
신발 슈즈원



## THE EARTH PLATE BACKPACK

여저든 물건이든 금세 실증이 나는 당신이라면 디얼스 백팩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가방의 앞부분(플랩)을 다른 색상으로 교체 가능하니, 동으로 길지 않고도 새 것 같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딱딱한 정장만 아니면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린다는 것도 강점. 생활 방수 기능이 있으며 백팩의 높이가 50cm 정도라서 큼직한 전공서적에 LP판까지 담기에도 충분하다. 백팩 내부의 공간을 고정시켜주는 힘이 약한 점은 아쉽다.

가격 89,000원

문의 070-7150-3626 [www.multisky.co.kr](http://www.multisky.co.kr)

[ GOOD 넉넉한 수납공간이 필요한 수컷이라면 ]  
[ BAD 내부가 완벽히 분리되어야 하는 수컷이라면 ]

# SPECIAL EDITION WATCH

뒀도 아닌데 한정판이라면 캔슬레 눈길 이간다. 제대로 물건인 녀석들이 한정판이러니 눈이 뒤집혔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Y ARC STUDIO

## ALIVE TOKYO 3RENSHO PROJECT CADENCE

픽시에 어울리는 시계를 열망하는 픽시 덕후 디자이너 3명이 얼라이브 도쿄와 함께 '3렌쇼 프로젝트'를 위해 합세해 들어갔다. 그렇게 탄생한 카덴스는 스피드와 함께 시계까지 돋보이길 원했던 캐나다 픽시 선수 출신 디자이너 이름을 그대로 달고 출시된 모델이다. 카덴스의 픽시 사관을 고이 담아 스피드 라이딩을 위한 가벼운 스테인리스 베젤과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실리콘 밴드로 만들어졌다. 픽시에 할당된 라이더라면 바퀴 한 쪽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을 거다.

가격: 450,000원 문의: 02-730-3906

COOPERATIONS 세이코코리아(www.seikokorea.com) 마에스터 카시오(www.casio.co.kr) 알라이브도쿄(www.alivesthetics.co.kr)



## SEIKO IAAF LIMITED EDITION SNAE53J

세이코는 1965년 이후 IAAF(국제육상경기연맹)의 모든 대회에서 공식 타이머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출시된 20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 한정판은 육상팬은 물론이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수컷이라면 누구나 군침을 흘릴 만한 녀석이다. 육상 트랙을 연상시키는 원형 문자판 디자인에 1/5초 단위로 최장 12시간까지 측정 가능한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알람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 300개만 한정 출시된다. 가격: 590,000원 문의: 02-511-3182

## MEISTER PRS108RB SUPER CR3W SPECIAL EDITION

슈퍼크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제일 잘나가는 비보이 팀이다. 얼마 전 MTV (America's Best Dance Crew Season 2)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대기까지 좋고 상성할 기세인 슈퍼크루를 마에스터가 제대로 잡았다. 이 슈퍼크루 시그너처 모델의 (차별 보이지도 않을뻔)에는 슈퍼크루 로고와 함께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다. 블랙과 레드의 강렬한 컬러가 카리스마 있는 남성적 매력을 뽐낸 풍기는데, 마치 최인수가 손목에 감긴 느낌이었을까.

가격: 295,000원 문의: 02-778-1590



## CASIO EDIFICE EF-565RB-1A

더 최정상 레드볼림과 카시오의 고급 라인 에디피스가 만나 레드볼 레이싱 한정판 모델을 출시했다. 매년 40억 캔이 소비되는 에너지 드링크 레드볼은 F에서도 완전 참나무는 녀석이다. 매해 유력한 우승 후보인 데다가 이번 2011 F1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도 압도적 차이로 1위를 지켰다. 레드볼 로고와 블루 컬러가 적절히 혼합된 문자판은 1/100초까지 잴 수 있고 10기압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

가격: 375,000원 문의: 02-2118-5152

STUFF

# Back to The Future: 애니콜과 사이언의 조상을 찾아서

1991년 찬 바람이 불던 밤, 갑작스레 울리는 삐삐에는 그녀의 번호가... 하지만 당황하지 않아. 나에겐 도시 남자의 필수품, 금성 핸드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이동전화 서비스는 1988년 7월 1일, 한국이동통신이 미국 AT&T의 아날로그 방식 이동전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카폰이라고도 불리던 소인이 돌아경야 경음이 있었다. 1984년 등장한 카폰은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였고 통화로도 이어야 했지만 구입해두면 값이 편다는 소인이 돌아경야 경음이 붙기도 했다. 틀린 말은 아니게 주파수 분할이 효율적이지 못한 아날로그 서비스의 태생적 한계로 회선 증설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부르는데 걸림이 될 수도 있었다. 확실히 '차 안에서 전화하기'라는 코트코리의 꿈은 예나 지금이나 먹여주는 기술이었다. 차량 기어 박스 한 칸에 놓인 돼지코리드 카폰은 진정한 간지이자 로망이었다. 카폰의 존재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91년 휴대전화 광고에서 아직도 '휴대폰을 카폰처럼 쓸 수 있다'고 어필할 정도다. 1988년 2월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가 휴대폰 하나 못 만들어서야 쓰겠냐'며 삼성전자가 모토로라의 휴대폰 다이내믹(DynaTAC) 10대를

사와 분해, 조립을 반복해 가며 얻은 기술로 국내 최초의 휴대폰 SH-100을 만들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둘 다 흥기로 보이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재량 상성이 만든 제품답게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덩치를 줄인 경량화 모델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났지만, 휴대폰 시장은 여전히 외제가 강세였다. 수요는 폭증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국산 대항마가 없어 우리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때 국내 기술로만 만들어진 제품이 나왔는데, 금성통신의 핸드폰 CSP-9100이 대표적이다. 이미 외제는 토폴 방식을 채용한 모델들이 발매되고 있었고, 크기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 상황. 이에 금성통신은 한국어 음성인식이라는 승부수를 걸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오늘날 음성인식이란 게 기계음성을 인식하는 건지, 내가 기계에 적응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수준을 먼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박서당시 성능은 안 봐도 알 만하다. 그나마 어필할 것은 165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정도.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외국 제품을 그대로 수입하거나 OEM 판매에 의존 시장에 금성통신이 자체 기술로 제품화가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CSP-9100의 출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외국 업체는 자사 제품의 가격을 20~30% 내렸으며 국내 다른 업체들도 기술 무차 확대를 서둘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송흥민 수습 에디터

## 우리는 지금

1. 이형호군 유력 사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등 동아 실종 사건으로 전국이 들쭉
2. 낙동강 재물 무단 방류 사건
3. 1991년 해태 타이거즈, 통산 여섯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4. (수전 브링크의 아리랑) 개봉 화제
5. 김완선 '베어로는 우릴 보고 웃지'로 전성기를 이어감, 노사연 '반딧불'으로 인생의 한 번 뿐인 전성기를 맞음

## 세계는 지금

1. 걸프전쟁
2.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3. 소련 붕괴
4. (미녀와 야수), (터미네이터) 개봉
5. 브라이언 아담스가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로 여성의 마음을 잡음

## 1991년의 물가

- 버스 요금 17원
- 짜장면 한 그릇 900원
- 스키아 극장 관리료  
조조 3,500원 일반 4,000원
- 대우 자동차 티코 450만 원



- 대우 자동차 에스페로 20  
수동 5만 모델 960만 원



20년 후 이 아이는...  
옵티머스 3D가 됩니다



	GOLDSTAR	LG
길이 / 무게	18.5cm / 370g	12.2cm / 168g
배터리 지속시간	통화 대기(모드) 16시간	통화 대기(모드) 450시간

기사 참고: 1991년 11월 동아일보

# VINTAGE GEAR

購 讀 申 請  
02-323-1182



업체	품 목 명	가격	특 징
現代전자	F-80	260	134cm, 280g(배터리 포함) / 초소형 초경량 접고 펴는 송화기 / 차량 장착 가능
금성통신	CSP-9100	165	185cm, 370g / 자체 기술 개발품 한국어 음성인식기능 / 차량 장착 가능
三星전자	ST-600	220	18cm, 300g 차량 장착 시 별도의 송수화 마이크 사용 가능
모토로라	마이코트릭 BC	190	135cm, 303g / 고속 충전기 / 접고 펴는 송화기

MOTOR

Ready to Jump!

# KTM 125 DUKE

모터 사이클을 가지고 노는 방법은 이렇게 많다!

BY 송종민 PHOTOGRAPHS ARC STUDIO FILM 박현필/누리 PERFORM 이세성  
COOPERATION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smc.co.kr)

오스트리아에서 온 발랄한 오렌지 군단 KTM은 마치 BMX나 스케이팅 보드처럼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감각적 놀이도구로서의 모터 사이클을 제시한다. 여느 스케이팅 보드나 서핑 데크 만큼이나 멋진 디자인과 알 바퀴를 들고 뒷바퀴를 마구 미끄러뜨리는 멋진 트릭은 X게임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당기기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트리키한 바이크는 가격과 면허 모두에서 그 장벽이 높은 대형 바이크뿐. KTM 이 125cc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바이크를 만들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배기량을 줄여 절감한 비용을 모두 최고급 피츠를 갖추는 데 쏟아 부은 최고급 정난감, 듀크를 만나보자. 도심이 운동 당신의 놀이터로 변할 것이다!

5km/h 최대 동력 가속력  
50km/h 최고 속도 동급 최강력

# DRIFT

뒷 바퀴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어 랑을 시킨 후 프론트 휠을 진행 방향으로 유지시켜 준다. 까딱하면 하이 사이드(바이크가 두서기처럼 라이더를 내팽개치는 현상)여, 또는 4단에서 2단 정도로 한계면에 시프트 다운을 해주면 리어가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때 가벼운 브레이킹으로 리어를 락시킨 후 프론트에 모든 하중을 쏠리게 하고 리어를 가볍게 돌려준다.



3. 오프로드용 최고급 서스펜션인  
WP 서스펜션

4. 본래의 시브 본래의 80mm제  
레디얼 마운트 브레이크 캘리퍼

2. 스포츠하게 세팅된  
6단ミッション

1. 본래의 수냉식 단기통  
1200cc 엔진

GO TO  
MAXIM  
iPAD  
마음껏



바이크는  
달려야 맛이제



# JUMP

램프에 진입 시 오버 스톱들이 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 공중 동작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착지할 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 공중에서 네(Knee) 그림으로 중심을 잡고, 핸들을 90도 각도로 위에서 내려 누르듯이 잡아주어 착지 자세를 취한다. 시선은 착지 지점에서 좀 더 멀리 두어야 지켜지지 않는다.



**"저에게 직접 트릭들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한남동 KTM 매장으로 오세요. 일단 계약서부터 작성 하고 이야기 하시죠"**

- 2007년 New Zealand Taupo Motocross Championship 4위
- 2007년 New Zealand School Sham 3위
- 2004~2009년 한국 모터크로스 챔피언
- 2009년 제 10회 원주 시장배 모터크로스 대회 1등
- 2010년 KMRC 레이스 1전 모터드A 1위
- 2010년 KMF 회장 배 ENDURO CHAMPIONSHIP 3전 쿨라이트 1위



클러치를 올켜주고 살짝살짝 브레이크를 두 번 정도 잡아 주다가 강하게 잡아 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되면 리어가 떠오르는 정도를 보면서 스로틀을 풀어주면 리어가 내려가고 다시 잡아주면 떠오른다. 재빨리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 시선은 정지 자세에서 조금 더 멀리 봐야 한다. 응용 동작으로는 뒷바퀴를 들고 승술 전진하는 기술이 있다.

# JACK KNIFE



번 아웃은 잭 나이프 동작의 응용이다. 리어를 살짝 띄워준 후 공중에서 바퀴를 회전 시키며 땅에 닿게 한다. 그레아 제법가량 엔진으로든 무리 없이 아스팔트에 타이어를 미칠라고 회전 시킬 수 있다. 프론트 브레이크를 계속 올켜주고 있어야 바이크가 튀어나가지 않겠지?

# BURN OUT

체중을 살짝 뒤로 싣고 1이나 2칸에서 RPM을 충분히 올린 후 클러치를 핑기듯이 단번에 연결 해준다. 자연스럽게 프론트가 떠오를 것이다. 프론트를 잠겨두면 브레이크를 더 올리려면 스로틀을 당겨서 각도를 유지한다. 옆이나 앞바퀴를 들고 오려 바티는 나가 간지의 기준.



# WHEELIE

## 정정보도 및 사과문

직전 호인 2011년 9월호 MAXIM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2011년 9월호 MAXIM의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걸쳐 실린 피쳐기사 '2012 지구 열망 시나리오'(담당 에디터 김희성)의 4번 페이지(81페이지) 좌측에 증산도와 증산도의 교리 서적 '쉽게 읽는 개벽'에 대한 1/4페이지 분량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증산도는 '상생의 문화를 바탕으로 1871년 구한말 격동의 시기부터 역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의 바른 가치관 및 명성 문화를 사회에 계몽해 온 단체'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관한 기사에 증산도를 언급한 것 자체와, 해당 기사에서 "그들에 따르면 2012년이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며, 2012년에 우리는 멸망하는 때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진리'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산도는 '쉽게 읽는 개벽'을 비롯하여 증산도의 어떠한 진리서적과 교리에도 2012년 종말을 언급한 바 없습니다. 본 편집부는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이 잘못된 기사를 낸 과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증산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1백만 증산도 신앙인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MAXIM 편집부는 왜곡된 문체의 내용이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편집장 이 영 비

## 제6회 MAXIM 무료 티팅 당첨 독자는?

제3회 당첨자 나경태 독자의 솔라การ์ด 열차단 티팅 후기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20대 후반 남자 독자입니다. 안성기 호부터 최근 감성도 호까지 모두 구독한 열혈 마니아입니다. 예마는 핵스텐입니다. 출시 되자마자 질렸지요. 이 녀석과 함께 통내타에 열심히 광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맛과 멋의 아이콘 광주(光州)는 빛과 예술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빛의 도시이다보니, 제 예마의 기본 티팅이 이과 다한 광량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마비 누님 핑그리신 거 보이시나요? 얼마나 광주 벌이 세면 이렇게 핑그리고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나도 눈이 부셔서 이렇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운전할 땀텐데, 누가 무시워서 예마 타겠습니까?

지난 호를 보니 여자친구와의 러브 라이프를 위해 티팅을 원한다는 사연을 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루빨리 어둠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리다 눈이 멀겠습니다. 제길, 제 눈이 멀면 MAXIM은 고급 독자 놓치는 겁니다. (아침, 저는 여자 화보 때문에 MAXIM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형님들의 남성이, 워트 남치는 뒷보지 엄청 좋아합니다. MAXIM은 어서 빨리 바팔의 아드님 총범표를 설치해십시오! 전설의 래전드만이 등장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총범표를 접신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 - 빛의 소년(소니유저) 핵스텐

저, 당신의 바람대로 솔라카드 열차단 티팅을 그대로 예마 핵스텐에 끼였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당신의 기본 예마의 전설을 이해한다면 이제 이중범을 설치해야만, 막대한 생가는 공짜도 하지 마라, 저주 끝까지 쫓아가 당신에게서 이 총범을 받아보고 말 테니 그리 말라.

### 솔라카드 열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나노코팅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이 항공 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 100년 전통의 명품, 솔라카드 열차단 필름이요!




###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가을이 왔다. 하지만 오너 드라이버 MAXIM독자들의 티팅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져만 가고 있다! 한 번 응모했다 멀어진 독자님들이, 한 큐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소심하게 빠져있지 말고, 남자들이 재도전해라. 차 살 때 받은 기본 티팅에는 보통 가장 중요한 유리 티팅이 빠져있다. 오늘을 위해 비워둔 유리에서 솔라카드를 꺼냈다. 똑같 이 다르다나??

- ▶ **응모 기간** : 2011. 8. 22 ~ 2011. 9. 18
- ▶ **상품** : 22만 원 상당의 열차단 티팅 시공 (전원 시공, 즉 후면 제외)
- ▶ **응모 방법**
  1. 예마의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쁜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이 걸리면전단면 완전 통과
-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진, 연락처를 보내라.
  - 010-5199-1182(편지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 한 문자를 보내주세요.

# 숫자로 보는 포뮬러 원

F1이 얼마나 대단한지 쉽고 빠르게 느끼게 해줌. by 송준민



새나 예고편 감상



최연소 월드 챔피언의 나이. 현재 기록은 2010년 우승한 세바스찬 베텔의 23세 4개월이다. 이전 기록은 루이스 해밀턴의 23세 10개월. 6개월 차이로 베텔이 최연소 타이틀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

# 23

## 0.078

F1 마신이 10백력의 힘을 내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L). 양상차의 경우 10백력에 0.09L 이상의 기름을 먹는다. F1 연진이 일반 자동차의 엔진보다 20% 가량 효율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다.

## 1.6

F1 마신이 달릴 때는 항공기와 반대로 공기가 차체를 아래로 내리 누르는 힘이 생긴다. 이를 다운포스라 한다. 350km/h로 달릴 때 다운포스 때문에 앞 바퀴에 걸리는 무게는 1.8배에 달한다. 뒷부분에는 1.1배의 다운포스가 적용된다.

## 1500

브레이크의 최소 작동 온도. 브레이크의 평균 작동 온도는 700°C가 넘는다. 이 온도를 유지해야 최적의 브레이크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브레이크 시에는 1000°C까지 상승하기도 한다. KERS\*로 800마력의 힘을 만들 수 있는 이유다.

\*KERS (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필진기를 돌려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고, 바쁜을 누르면 모터가 힘을 보태 가속력을 높여주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하지 않던 모터와 배터리, 컨트롤러 등 시스템을 한산 40kg가 넘기 때문에 경량화가 중요한 마신 설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 2.9

피트 크루들이 경주차의 타이어 4개를 새 것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초).



## 1.9

F1 마신이 200km/h로 달리다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초). 이 때의 필요 제동거리는 55m. 드라이버가 느끼는 압력은 5G이다. 드라이버가 안전띠에서 받는 압력이 자기 체중의 다섯 배라는 의미이다.



포뮬러 원 마신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 타이어가 달구어지는 최대 온도. 물을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열이다. 타이어의 적정 온도는 대략 90°C 정도로 그 이하에서는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레이스 출발 직전까지 타이어 워머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기장판을 타이어에 감아둔다.

## 34

최고의 F1 레이서라 불리는 아일톤 세나의 사망 당시 나이. 그는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알랭 프로스트와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영화보다 더 영화적 치열한 라이벌전을 펼쳐 F1을 최고의 인기 스포츠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의 드라이빙은 10월 20일 개봉할 영화 <세나: F1의 천성>에서 재현될 예정이다.



## 750

F1 마신의 평균 연진 출력. 말 750마리에 해당하는 열이다. 마신의 배기량은 2.4로 소니타와 같다. 소니타는 같은 크기의 엔진으로 1790마력에 내지 못한다.

2011년 F1 출진 드라이버의 수. 총 12개 팀 각각 두 명의 드라이버를 24명이 경쟁을 벌인다. F1 그랑프리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FIA에서 발급하는 드라이버 라이선스 F 중 최 고 등급인 슈퍼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슈퍼 라이선스는 GP2나 F-3급, 혹은 WTC나 FIA GT급이 국제 규모의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입성 경쟁도 많은, 한미터로 최고의 실력을 쌓은 드라이버들에게만 지급된다.

24 F1 마신의 제로백은 단 2.4초다. 정지 상태에서 200km/h까지는 5초가 소요된다. 거리상으로는 140m에 지나지 않는다.

## 15

DRS\*\* 시스템으로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속력 15km/h.

\*\*DRS (Drag Reduction System)

최근 몇 년 사이 FIA(국제 자동차 연맹)는 레이싱에서의 치열한 추월전을 유도하고자 해왔다. 율해부터 도입된 DRS 역시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이번 리아워라고 생각하면 된다. DRS는 리어링 율해부분의 플랩을 높여 최고속도를 높여주는 장비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선구간에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작동한다. 5cm의 플랩이 동안으로 최고 15km/h 정도의 속력을 높일 수 있다.

## 140



드라이버의 경기 도중 분당 삼박수. 일반인이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걷고 있을 때 분당 60~90회 사이.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타닌 포인트를 지나서 사점을 넘어갈 때가 대략 160~180회다. 삼박수가 180가량 치솟으면 뇌에서 아드레날린과 엔도핀이 분비되어 일종의 마약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러니스 하이'를 겪는다. 드라이버들은 경기 내내 140~180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F1의 경우 1시간 30분. 르망 레이스의 경우는 3시간 그 부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600,000,000

F1을 관람하는 전 세계 시청자 수. 1950년 공식 출범한 이 대회는 연간 400만 명의 관중이 몰리고 TV 시청자수만 6억 명에 달하는 등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손꼽힌다.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이 연간 4,000억 원 가량의 운영자금을 들여 F1 팀을 운영하고 있고 300개가 넘는 후원 기업들이 연간 4억 원 넘는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국제적 스포츠 비지니스다.

# 24

# MAXIM ASSISTANT SPECIAL

MAXIM 100호를 축하하기 위해 2010 MISS MAXIM 최혜연 양과 2011 MISS MAXIM CONTEST 예선 5회 차 우승자 천이슬 양이 손잡고 MAXIM 스튜디오를 습격했다. 부럽지?

BY 김화성  
 PHOTOGRAPHS ARC STUDIO  
 HAIR&MAKEUP 이현정 FILM 송승민 MODELS 최혜연, 천이슬



▲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왔는데,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시겠죠? 예뻐, 저희 바니 길로 변신했는데 귀엽나요?” ▶

“피자가 얼굴보다 더 커요.”

# 2011 MISS MAXIM CONTEST THE 6TH SEMI FINALIST 천이슬

▼ "이번 호도 땀 터질 거예요."



**BIG MATCH!**  
MISS MAXIM  
VS. MISS MAXIM



크로스셋 세시무키

**MAXIM 스튜디오를 방문한 소감이 어때요?**  
MAXIM에서 보던 사진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되나요?

**물론 환영이죠. 오늘 촬영장에서 일할 어시스턴트를 했는데 원래는 무슨 일을 하나요?**

모델이에요. 연기자 지망생으로서 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포즈도 일종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안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즐겁네요.

**와, 조만간 이슬 씨를 TV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하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컬그림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노래나 춤에는 자신 있나요?**

사실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는데 실제 가수를 할 능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 가서 분위기를 띄우고 재미나게 놀 정도 실력은 돼요. 같이 클럽 한 번 갈래요? (웃음)

**MAXIM PARTY에 꼭 놀러 와요! 만약 사방하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일 욕심이 더 많아요. 꿈을 이루는 일이 첫 번째 목표예요. 제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당신을 이해해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저를 편하게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매너 좋은 남자면 돼요. 유, 야머리스한 남자라면 더 좋고요. 하지만 말이 많고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는 쪼잔한 스타일은 싫어요. 미미보이 길거든요.

**이렇게 기다리게 구는데도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건 왜일까요?**

제가 '불(수목) 매력 있는' 스타일이거든요.(웃음) 새침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마음이 예리하고 살짝 푹수투가 있습니다.





수줍은 포토그래퍼

“일일 어시스턴트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

“말 씩으면 통침으로 밟히는 수밖엔!”

## 2010 MISS MAXIM WINNER 최혜연

MAXIM 100호를 축하해주려 직접 바니 걸 의상까지 챙겨 오다니...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MAXIMO 100호를 맞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동안과 때부터 MAXIM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곤 했는데 2011 MAXIM GIRL로 뽑히게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200호 때도 먹을 거 진득 사가지고 올게요. MAXIM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루 동안 MAXIM 어시스턴트로 자랐는데, 그동안 해본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홍대에서 일하다가 아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과만 서빙을 하는 게 어색하고 칭피해서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를 해본 소감도 궁금해요.  
재미있었어요. MAXIM에서 받아주시면 배를 문질렀습니다!

날씬당은 아니지만... 해연씨 빠리엔 가뒤편드려요.  
속스럽지만 제 팬카페가 생겼어요. 모델 최혜연의 팬카페(cate.daum.net/otaku-rabbit) 놀러오세요.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제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후후.



언더웨어 칼라질  
구두 슈즈원

▶ "유혹? 우리는 1분이면 충분해요."

▼ "계속 일만 하면 바보가  
된대요. 우리 같이 놀아요."



촬영장  
놀이가기



10월의  
살해 대상



▲  
(좌)  
앤더웨어  
키스리퍼블릭  
반지와 뽕글  
스파이시킵라



# Shin Jin Sik

갈색 폭격기  
: 신진식

ICON

할처럼 흰 몸에서 붉어져 나오는  
초강력 스파이크로  
배구 코트를 맹폭했던 갈색  
폭격기 신진식이 MAXIM을 강타했다.

BY 김상현  
PHOTOGRAPH ARC STUDIO  
STYLING 조유림  
FILM 김민욱



당신은 공·수를 겸비한 역대 최고의 배구선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격과 수비 중 어느 쪽에 더 자신이 있었나?  
아무래도 공격이지. 수비보다는 공격할 일이 더 많았으니까(웃음).

부상으로 경기를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배구공을 만지면 부상의 고통을 잊을 만큼 배구에 몰입했ند?  
코트에 들어서면 긴장이 되고, 그때부터 승부욕이 불타오른다. 그러다 보면 아프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린다.

배구선수 치곤 작은 188cm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점프력을 바탕으로 한 스파이크로 코트 구조석을 맹폭하는 게 전매특허였다. 그런 정찰 허리가 할처럼 휘더라.

공격보다 스파이크 서보를 넣을 때 허리에 부담이 적절한다. 그래서 선수 시절 복근 운동은 정찰 토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했다(웃음) 수비 할 때는 허리는 안 쓰지만 대신 손목이 썩는다.

당신 팔은 빛과 닮아 흰승이, 아니 (혹성탈출)의 주인공 시저를 연상케 한다. 킬볼레스였던 적은 없었나?  
오해다. 팔이 아니라 다리가 길다! 그러나 팔 때문에 킬볼레스였던 척도 없지(웃음) 다리가 너무 길어 정장을 입거나, 바지에 옷을 입어 넣으면 허리 실종 폭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정장은 피한다.

정장이야 그렇다선 처도 7:3 가르마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상당히 토속적인 헤어스타일인데 운동할 때 그게 편하냐?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내가 어떻게 손을 보려고 해도, 가르마는 자신이 타고온 길을 가더라(웃음). 그게 바로 7:3일 뿐이다.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내가 어떻게 손을 보려고 해도, 가르마는 자신이 타고온 길을 가더라(웃음). 그게 바로 7:3일 뿐이다.

현역시절 삼성화재에서 1년 선배인 김세진과 함께 '자진식 우세진-최우 쌍포'를 이루며 10년 동안 리그 9연패, 77연승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사기유니 2개가 합쳐져 최강군단을 이루다니 불경중대!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절이었다. '배구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지.

하지만 당시 삼성화재의 일방적인 독주로 배구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배구를 보라. 재미있잖아. 그럼 됐지 뭐(웃음)

통료이자 라이벌 김세진은 '내가 세터였다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신진식에 공을 넘기겠다'고 말했다.

김세진이 세터였다면 내가 30살 이전에 은퇴했겠다. 현대 캐피탈의 '캐나다산 폭격기' 가빈도 아니고, 내 어깨가 남아있을 않았을 거다.

전성기가 지난 무렵인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할 태야말로 가장 '신진식'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코트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갈색 폭격기는 강중 2 자체였다!  
나보다는 후배를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경기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2007년 은퇴를 결정할 당시 소속팀 삼성화재는 코치직 보장 관련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후주로 2년간 어학연수를 보내줬지만 성실하

진 않았나?

잠시 성실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은퇴를 후회한 적은 없다. 내가 선택한 길에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보면 당신은 정말 우승 운이 따르는 선수였다. 삼성과 1,2학년 시절 전승, 성공관대 재학 시절 수차례의 우승, 여기에 삼성화재 연습까지!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가?  
팀 동료들 잘 만났다(웃음) 그리고 다행히 그곳에서 내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감독이 돼서도 성적이 여전하다. 당신이 취임하자마자 올해 총대 배구팀은 순계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역시 모든 사람은 무얼 해도 되는 건가?

운이 좋았다. 총대대 배구부의 멤버가 나쁘지 않았으며 상대팀의 전력이 100%가 아닌 상태여서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다.

모교인 성공관대가 아니라 총대 감독으로 부임한 이유가 궁금하다. 수질 끝내주는 총대 클럽 때문은 아니겠지?

총대 배구부 소속자 경기도 화성인 줄 미리 알았다면 감독직을 고사했을 거다(웃음) 농성이고, 어느 학교 감독인가가 중요하게 아니다. 지도자로서 한 걸음 내딛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마지막으로 '신진식은 박신양의 외모에 김원준의 목소리를 합친 모한 남자'라는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나와 닮은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난 내 얼굴이 마음에 드니까 예쁘니까 소중하니까(웃음) 그나저나 굳이 닮은 걸로 치자면 김원준보다는

비즈의 민경훈 쪽이 아닐까?

신진식은?  
우리나라 배구 역사상 최강의 좌측 공격수. 미야를 조던처럼 공격력과 수비력을 겸비한 무결점 선수. 결정적인 순간에 직결하는 불로림은 상대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다. 삼성화재에서 김세진과 함께 최우승으로 활약하며 77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정규시즌 4번의 MVP를 수상했다. 2001년과 2006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까지 획득한 성적이 넘치는 새대다.



“  
가르마는 7:30이지  
”

그가 말하는 남자의 조건은?

남자라면  
당연히  
•••

형이지  
리관을 좋아해야지  
줄넘기 2단 뛰기 정도는 해야지

김세목격기의  
MAXM 아티





## 오빠, 군대 어디 갔다 왔어?

MAXIM이 국군의 날을 기념해 지상 최고로 몽땅하기로 손꼽히는 육군 부대를 모아봤다. 여자들이 보기엔 하나같이 모두 '군인' 일 뿐이지만 군부대에도 메이커가 있다. 좌 박한빛누리

### ■ 남자의 한숨을 부르는 숫자

# 55,209,600

군 복무 기간은 2개월이다. 입대하는 순간부터 마음 속으로 55,209,600초를 세면서 제대할 수 있다.



# 1,551

육군 인당 1일 평균 급식비는 4,654 원으로 한끼에 1,551원 풀이다.



# 462

대한민국 육군 병장의 월급은 10만 3,800 원이다. 이 돈으로 2011 레보레 카마로를 사려면 462년이 걸린다.

### ■ 아는 여동생들을 붙잡고 물어봤다. "이 마크 뭐 같아 보여?"



#### 1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제일 뽀새다. 일당 백이다. 뭐 이런 의미 인가?"

사단은 1950년 한국전쟁 때 평양을 가장 먼저 돌파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진부대라는 이름을 직접 붙여준 부대로, (후퇴는 했지만) 단 한 번도 북한군에 진 기록이 없다. 영호로도 유명한 공릉경비구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경계하는 부대기도 하다. "북한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어? 핀문장까지 우리 관할이 있거든. 난 북한 사람들을 우리 부모님보다 많이 봤잖아. 별거 없어 생긴 것도 우리랑 똑같던데?" -3사단 07전역 N군



#### 2 제2보병사단 노도부대

"빨간원 조준하고 쏘라는 거야?"

2개의 원은 2사단을 나타낸다. 휴전선 중동부 전선을 맡고 있는 사단으로, 육군에서는 인선상륙작전에 참가한 유일한 부대다. 그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의 정부, 북한간, 급회, 저격능선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다. "양구가 분지라서 여름에 진짜 더워. 나 무슨 대우인 줄 알았잖아. 겨울엔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야?" 날씨가 미친년 같아. 완전히 극단적이지!" -2사단 08전역 Y군



#### 3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교통표지판? 평소엔 교통 정지도 하는 곳이구나!"

3을 의미하는 3개의 별과 삼각형이 3사단을 나타낸다.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고향방을 되찾겠다는 의미로 철모에 백골을 그려 넣은 데서 유래가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백전백승에 가까운 승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6·25 때 우리 부대가 3·8선을 제일 먼저 돌았잖아. 그때 마침 안개가 끼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비처럼 쏟아지는 총알을 들고 국경선 최북단까지 올라갔다 나한테?" -3사단 08전역 86년생 P군

	<p><b>4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b> "영두 먹고 싶다."</p> <p>5사단의 5에서 열쇠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졌으며 여기서 열쇠는 동일한 열쇠를 뜻한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의 성과를 올린 피의 능선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력 부대다. "왜 미크가 활채어랑 비슷한지 알아? 훈련이 하도 백채서 다들 전 역할 때 활채어 타고 나와서 그래. 임야."-5사단 06전역 S군</p>
	<p><b>5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b> "보안관?" "마법으로 변하는 그랑죠,!"</p> <p>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최진형 부대로 육군형의 별이 6사단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당시 압록강 물을 떠다 이송한 전 대통령에게 바쳤다는 일화가 있는 전설의 부대다. "진짜 오지게 심했잖지. 진지 구축, 제초 작업, 도로 평탄화 작업, 재설 작업 등 흔하 십사단이 아니야. 오죽하면 건설업체에 지원할 때 6사단 나왔다고 하면 바로 채용된다잖아."-6사단 04전역 J군</p>
	<p><b>6 제8기갑화보병사단 오목이부대</b> "눈사람 아니야?"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인가 봐."</p> <p>숫자 8을 형상화했다. 군 전투력 시범 부대로 육군에서 만든 거의 모든 훈련은 8사단을 거친다. "원래 오목이에 팔다가 다 달려 있었거든? 근데 훈련이 하도 백채서 진짜 떨어져 나간 거야. 은월에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지를 고인 거 보지? 내가 그런 데서 군생활 했다. 아가야."-8사단 07전역 C군</p>
	<p><b>7 제11기갑화보병사단 화랑부대</b> "저가랄같이 마르고 신라 화랑 같이 잘생긴 꽃미남 부대?"</p> <p>백색 두 줄이 11사단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발발 2개월 후에 창설되어 정말 무수히 많은 전투를 치러 총 90여 회의 부대 표창을 수상했다. "옛날 보병사단 일 해. 나 진짜 병만치고 전역하기 전까지 행군으로 자주 반 바퀴는 돌았잖아.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면 만리장성이랑 11사단 행군하는 거 보인다."-11사단 06전역 A군</p>
	<p><b>8 제27보병사단 이기자부대</b> "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냐?"</p> <p>전투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서 이기자 부대가 되었다는 게드립이 있지만, 사실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미다. 경례 구호가 "충성", "필승"도 아닌 진짜 "이기자". "군대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옷통 벗고 구부 튀었거든? 제대하고도 가끔 그때처럼 튀어볼까 생각하는데, 만약 진짜 옷통 벗고 동네 달린 적 있다고 하면 나랑 친구 안 할 거냐."-27사단 08제대 현안 거주 최동민</p>

**1,000,000,000,000**

광고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현빈의 입대 장영 생중계와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광고료로 환산한다면 해병대는 1조 원이 넘는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등병 현빈은 한 달에 7만 8,300원을 받는다.

**부대 마크 감별법**  
부대 마크에서 풍기는 사단 스타일~

- 1.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  
여지간한 눈썰미가 아니면 9를 찾기보기 힘들다. 마크 안에 있는 백마 길귀 수가 9개다.
- 2. 제21보병사단 백두산부대**  
산을 자세히 보라. 701 원뿔으로 3개 기울어진 모습이다. 7X3-21사단을 표현했다.
- 3. 제30기갑화보병사단 필승부대**  
이 색사단! 부대마크 덕분에 30사단이 왜나 유명세를 탔다. 봉긋한(?) 부대마크 3, 펜티 모양이 00이다. 현역, 예비역 사이에선 뽀뿌브라부대로 통한다.
- 4. 제28보병사단 태동부대**  
사방으로 2개의 8이 겹쳐져 28사단이다.
- 5. 제39보병사단 파도부대**  
파도 속에 3개의 9가 보인다.
- 6. 제50보병사단 강철부대**  
5를 가리키는 로마 숫자 V, 그 길 둘러싼 O가 50을 의미.
- 7. 제66보병사단 햇빛부대**  
6을 나타내는 육각형이 2개여서 66사단.
- 8. 제75보병사단 참미부대**  
옆면 보면 농협 마크 길지만 왼쪽에 보이는 자령이가 7, 오른쪽이 5다.
- 9. 육군포병학교 & 육군정보통신학교**  
포병을 양성하는 육군포병학교는 포의 각도와 사살에 대해 잘 알아야 해서 '알아야 한다'가 새겨져 있다. 통신을 가르치는 정보통신학교는 전파가 잘 통해야 한다고 해서 '토.오.하리'다.

# D E S T I N

BY JESSE  
BRUKMAN  
PHOTOGRAPHS  
PATRICK HOELCK

촬영 현장과  
예고편 보기



**FINAL  
DESTINATION  
5  
FOX**

A T I O N :

JACQUELINE  
MACINNES  
WOOD

그녀가  
심장을  
훔친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는 어떤 영화인가?  
위기에 처한 한 우리의 사람이 등장한다.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이후 내용은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지에 관한 거다.

예고편을 보니 레이저로 눈 수술을 받던데... 실제로 내가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다. 이 장면을 찍을 때 내 눈을 마취해야 했다. 그것도 무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눈을 계속 무감각하게 하고 인과에서 눈 검사할 때 쓰는 검안경을 쓰고 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척 즐거운 작업이었다.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 2009

년에 나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가 진짜 '파이널' 인 줄 알았건만, 다행스럽게도 프로듀서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었다. 덕분에 우리 캐나다가 낳은 미녀 **재클린 맥킨네스 우드**를 만날 수 있게 됐다.

GO TO  
MAXIM  
IPAD



미공캐릭터



창의적인 방법으로 죽는 것 말고, 현재 당신이 꼭 빠져 있는 다른 일이 있다면?

<더 콜드 앤 더 뷰티풀>이라는 드라마에서 스테피 포레스티 역할을 맡았다. 한마디로 붙여우 같은 여자다. 이 작품을 하는 게 너무 좋다. 영화링은 완전히 다른 매력이다. <파이널 테스트이션 5>는 너 달 동안 120 페이지 분량의 대본을 촬영했는데, 드라마에선 하루에 100페이지 분량을 찍는다. 그러니까 4일 동안 예시 소드 8~11개 정도를 만든대!

우리가 틀기론 촬영 중간 중간에 틀음이 브라질의 무술 카포에라를 배운다고 들었다.

내가 아마 녹색 띠 정도는 될 거다. 그게 좋은 건가? 아무튼 브레이크 맨스든 격투든 문제없다! 춤, 음악, 그리고 조르기... 게다가 난 악당 로트 흉내도 상당히 잘 낸다.

캐나다 역량을 없애려고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나?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캐나다 역량이 돌아올 거다. 그럴 땐 물론 동료 배우들도 몹시 웃을 거

다. 나는 내 역량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 말투 때문에 감독이 나한테 욱박지르거나 않으면 좋겠다.

살면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은?

한번은 뽕브리를 착용하고 클럽에 갔다. 거의 윈드밀을 할 기세로 스나키 춤을 추었는데, 너무 격하게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뽕이 빠져버렸다. 다행히 난 이런 일에 풀지 않는다. 원래 잘 뽕병대니까. 또 뽕가 실수를 저지를 거고 난 그냥 웃겠지. 클럽 뽕 밟출 사건은 별로 놀랍지

도 않았다.

남들은 모르는 당신만의 스킵은?

게임을 진짜 잘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빼놓을 수 없게. 일단 내가 출몰하면 게임 끝이다.

슬기과 싶은 은밀한 비밀이 있다면?

자칭 이후까지 과거를 먹으면서 흡소핑 채널에 빠져 있는 내 모습. 



재클린  
맥킨네스  
우드

생일: 4월 17일  
태어난 곳: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숨은 재능:  
"허로 체리 꼭지를 뭉을 수 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섹시한 말:  
"I want you."

가장 섹시한 신체 부위:  
"발이 꽤 섹시하다."

최악의 직업 멘트:  
"발가락을 뺄고 싶다."

트위터: @Jacqueline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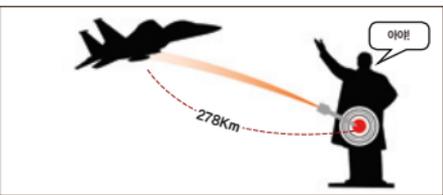


FIGHTER-  
BOMBER  
IN THE  
SKY

# F-15K SLAM EAGLE

궤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대한  
민국 공군의 돌부처급 구원투수 이놈이  
출격하면 깡죽대던 적군도 "아...자리갔소!"  
하여 도망치기 바쁘다지 아미? by 김형

**공**군 전투기 중 스캐폴드 유재석 뺨을 후려칠 만큼 바쁜 녀석이 바로 F-15K 슬램 이글이다. 2002년 4월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당첨된 녀석으로 총 40대가 제조사 미국 보잉에 주문이 들어갔다. 당시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순신하게 그저 '기능'만 어필한 라팔 제조사 다소는 시원하게 물을 먹었다. 2008년까지 40여 대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됐고, 이미 21대의 추가 주문이 끝난 상태다. 따끈한 신상급인 데다 성능도 좋아서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11월 연평도 포격까지 사건이 타자다면 일단 덕치고 고고상했고, 적의 추가 도발을 차단하는 데 일조했다.



**항공의 킬링 머신 F-15** 하늘의 악마로 군림하는 전투기 F-15는 1969년 처음 만들어진 후 다 양하게 개량됐다. 공중을 제압할 목적으로 개발된 F-15A는 197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고, 이후 C/D(콘돌 아너디)형으로 개량됐다. F-15 전투기는 이스라엘에 최초로 판매됐고, 중동 국가에 그레이드 17을 먹이는 데 일조했다. 이스라엘 공군의 F-15 전투기는 중동전쟁에서 시리아 공군의 미그기를 몰살했고, 시리아 공군은 바로 G.6를 선양했다.

이후 F-15 전투기는 우수한 제공 능력과 대지 공격을 겸비한 D형으로 개량됐다. 스트라이크 이글(Strike Eagle)이란 별명의 F-15E 전투기는 1986년 12월 처녀비행을 마쳤고, 1991년 걸프전쟁을 시작으로 1999년 코소보전, 2001년 아프간전, 2003년 이라크전에 맹활약했다. F-15E 전투기를 다시금 업그레이드한 F-15K 전투기는 2006년 공모를 거쳐 슬램 이글(Slam Eagle)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며, 엔진 역시 2개인 쌍발 엔진 전투기로서 길이 19.43m, 높이 5.6m, 날개 폭이 13.5m에 달한다. 최고 속도는 마하 2.5(0.85km/s). 서울과 부산의 직선 거리를 314km로 가정한다면 약 6.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다.

**불꽃 화력을 자랑하는 F-15K** 스펙발을 중시하는 우리 공군의 스타일 때문에 F-15K 전투기는 기존의 F-15 시리즈보다 업그레이드된 스펙을 자랑한다. 특히 화력에선 끝판왕 수준. 하문 대함미사일을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개조한 슬램(SLAM-ER)은 최대 278km 떨어진 목표물을 곡 접어 공격이 가능하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 해군 공격기에서 발사된 2발의 SLAM 순항 미사일은 이라크 발전소 환풍구 안으로 들어가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에서 발사하면 평양에 위치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건 기본이고, 건물도 창문들 안까지 유도가 가능한 수준.

GPS로 유도되는 스마트 폭탄 제이엄은 덤이다. 공중전 용도로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 최신형 AIM-9X, 사정거리 64km의 AIM-120C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준비했다. 탑재한 무기의 무게만 11톤에 달하는데 제자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B-29 폭격기의 2배가 넘는다. F-15K를 전투기가 아닌 전폭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 RIVAL SHOOTER

### 북·중·일 전투기 모두

F-15K가 뜨면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한미미노 신상 전투기에 관한 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평이한 거다.



#### 북한 MiG-29 전투기

1965년 구소련에서 MiG-29를 최초로 도입했고, 1990년대 초에 조립생산 공장을 세웠지만 구소련이 망망하는 바람에 부속 공급에 차질을 겪었다. 2003년 미 공군의 RC-135 정찰기를 위협했지만 성능은 F-15K에 비할 바가 못 된다. KF-16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 우리나라는 제3국을 통해 MiG-29를 영입, 장전점수를 모두 파악했다. 북한 지못미.



#### 중국 Su-30MK2 전투기

중국은 독자 개발한 J-20 스텔스 전투기 러시아에서 도입한 Su-27, Su-30MK2 등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J-20은 실전에 배치되려면 아직 멀었고, 나머지 2대 역시 F-15K와 맞먹 투기에는 레더 성능, 무장 탑재 능력 등을 고려하면 F-15K에 비해 떨어진다. 역시 평가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다.



#### 일본 F-15J 전투기

F-15J 전투기는 1980년대 초 도입된 제공 전투기 F-15C/D 전투기의 일본형 모델로, 총 200여 대가 생산되었다. F-15J 전투기는 F-15K 전투기보다 구형이다. 공중전에 최적화되어 지상 적전 능력이 미미한 편. 일본은 F-15J 전투기를 최선형 레이더와 국산 근대급 미사일을 장착한, F-15J 200k 전폭기로 개조할 예정이다.



일행 있는교?



애! 두경 엘리베!

**한반도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F-15K 전투기는 기존에 공군에서 주력으로 사용했던 KF-16 전투기보다 운신의 폭이 넓다.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행동반경이 1,800km에 달한다. 독도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니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닥치고 고고상하는 거다. KF-16 전투기는 독도에서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맞짱을 뜰 경우 5분이 지나면 연료가 떨어져 귀환해야 하는 조류 전투기였지만, F-15K 전투기는 30분 이상 비행 수 있어서 독도 상공에서 제대로 된 맞짱을 뜰 수 있다. 중국, 일본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수도인 베이징과 도쿄로 폭탄 배달이 가능하던 것도 장점.



· **매의 눈 F-15K** 무기가 많아봤자 적을 놓치면 무슨 소용인가. F-15K는 스텔스 전투기를 잡아내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IRST, 최신 야간 저고도 항법, 조준장치 타이거 아이(Tiger Eye), 조종사의 헬멧에 정보 표시는 물론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로 무기를 발사 가능한 통합형 헬멧장치시현장치(J-HMCS), 1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AN/APG-63(V) 레이더까지 있다. 상대는 적군 입장에서는 치트키에 뺨까지 켜 사기 캐릭으로 보일 수밖에...



###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웹진 아미진(ARMYZIN)에서 〈영하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며, 안팎닷컴에서 국방포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http://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 귀하신 몸, 비싼 몸값

F-15K의 대당 가격은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금까지 우리 공군이 도입한 전투기 중 단연 최고가다. 40대를 도입한 F-X 1차 사업의 총금액은 5조 4,000억 원에 달하는데 다행히 각종 무장과 부대시설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그러나 비싼 몸값의 전투기답지 않게 F-15K는 사건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2006년 6월에는 동해에서 야간 요격 훈련 중 추락했는데, 전투기를

급격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가속도로 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것이 이유였다. 2007년에는 활주로서 정비기로 이동 중, 방승인 윤기원처럼 맨줄에 빠져 왼쪽 날개가 바닥에 부딪쳐 파손됐다. 작년 7월에는 공군 대학 소속 최 모 소장이 지상 활주로의 F-15K 전투기 후방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살펴보다 조종석 사출장치를 건드려 본인은 인간 포탄이 되어 날아가고, 기체 일부가 파손됐다.

**F-15K의 미래는?** 이라니 저러니 해도 F-15K는 여전히 그 인기가 뜨겁다. 우리나라에 이어 싱가포르도 F-15K를 도입했다. 강력한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대한 싱가포르의 F-15SG는 F-15K보다 성능이 한 수 위라는 평가다(하지만 F-15K를 베이스로 개량한 기체라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받게 됐다). F-15K를 만든 미 보잉사는 지금 도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F-15SE(Silent Eagle)로 꾸준히 개량 중이며, 다시금 공군의 F-X 3차 사업에 간택되려고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미 록히드 마틴사의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와 유럽 4개국이 합작한 유로 파이터사의 유로 파이터 타이론 전투기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전투 경험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F-15K의 후속 모델 F-15DE를 제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





# SUPER STAR's REAL HEROINE

《슈퍼스타》 시즌2의 진짜 주인공은 그녀다. 본선무대에서 가장 빨리 떨어진 그녀가 가장 먼저 가수로 데뷔한 것도, 가장 많은 히트곡을 가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BY 고경희 WORDS 김상현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곽영은 FILM 김진옥 ASSISTANTS 조유림, 조다현

COORDINATOR 제이앤제이(02-784-784) 소디, 이소(02-546-7194) 뷰티(02-348-7753)  
블로그: @이도우(02-516-0883) 키스, 주영민(02-782-0883) 키스(02-348-9489)

사람들에게 "김그림은 어떤 사람이예요?"라고 물어 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나?

"재?" (슈스케) 싸가지! 최근에는 인터넷이 팬으로 대거 전향해서 (슈스케)에서 데뷔한 '너밖에 없겠다'를 부른 가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웃음)

하지만 요즘도 (슈스케)에서 비호출 캐릭터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당신 이름이 거론된다.

시간이 약이다. 가수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아지지.

따지고 보면 당신도 피해자다. 지랄 맞은 편집 때문에 문보살 안뜰이나 악플에 시달리지 않았나?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을 한명씩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곳방귀도 안 켜줄 거다. 하지만 나에게 (슈스케)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 부모님께 마지막 도전이라고 설득한 후 군대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매달렸다. 모든 걸 걸어야만 했다.

(슈스케) 본선 무대에서 떨어질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잖나.

그때 '내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든 노래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음악뿐이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음악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을 인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

요즘 취업 전쟁 정말 살벌하잖아. 공무원 시험만 봐

도 그렇다. 나는 단지 가수라는 직업을 얻고 싶었고, (슈스케)는 취병의 유일한 기회였다.

어지간히 마음고생을 했구먼. 이 정도면 문보살급 대인배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겠다.

가수가 되겠다고 부모님 속을 많이 태웠다. 그러다보니 어지간한 일은 힘들지도 않다. 생방송 무대에서 내가 부른 첫 노래가 '하숙생'이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라는 노랫말이 큰 위인이 되더라.(웃음)

공중파는 여전히 (슈스케) 출신 가수를 탄막하지 않게 여긴다.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다고 들었다. 나도 KBS 이외의 무대 외에는 서본 적이 없다. 시간이 흘러 내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나를 부르겠지(웃음).

최근 당신을 아끼는 운중신의 디지털 싱글 음반에 객원보컬로 참여했다.

기타, 아코디언 1대, 그리고 내 목소리만한 곡을 녹음한 건 처음이었다. 노래를 부를 때 미묘한 차이로 감정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운중신은 "김그림의 목소리에는 애조가 있다. 밝은 목소리의 홍수 속에 괜찮은 가수를 발견했다"며 당신을 칭찬했다.

가볍지 않은 목소리가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다. 슬프고 아련한 느낌의 음색이라 포크와 잘 어울린다고

며, 프리실라이라는 포크 가수의 음반을 추천해주셨다. 나에게도 좋은 스승님이자 심촌 같은 분이요.

가수가 된 후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당연히 '가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음악 전공이 아닌 영어영문학과라서 학과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나는 가수가 될 거야"라고 말하면 다들 칠이 없다는 눈으로 날 바라봤다.

최근 당신 인생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한 사건은? 얼마 전 아이폰용 게임 (앱스닉)에서 올 A+점수를 받았다. 원래 게임을 즐긴다. 어지간한 온라인 게임은 다 한 번씩 건드려본 것 같다. (리니지)에 엄청 빠진 적도 있었고, (스타크래프트), (악우)도 골짜기 즐겼다.(웃음)

김그림이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냐? 못 그린 기린 그림이냐?

김그림이 그린 기린 그림보다는 김그림이 부르는 노래가 더 나를 걸.

당신의 이상형은?

나만 바라보면 O.K. 다른 여자에게 침을 질질 흘리는 남자는 딱 질색이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있다면 고자겠지.

그래서 내가 솔로인 건가? 그래도 분명 어딘가에 나만 바라보는 남자가 있을 거다.

없다. 그러다 당신, 록가노인이 될라!

☞

뜨거운 드레스, 빈지 모두 제이미앤벨 구두 도나체티 by 소다





## 김그림

**생년월일:** 1987년 3월 1일

**신체:** 165cm, 51kg

**데뷔는 1등:** 지난 4월 디지털 싱글 음반 <플라이 하이>로 <슈퍼스타K> 2시즌 출연자 중 가장 먼저 가수로 데뷔했다.

**무서운 루키:** 데뷔곡 '너밖에 없더라'로 데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달의 루키상'을 거머쥐었다.

**차세대 O.S.T 퀸:** 이후 그녀가 부른 <로맨스 타운>, <지고는 못살아>의 OST가 연이어 히트하면서 백지영의 뒤를 잇는 차세대 OST퀸으로 주목 받고 있다.

**노래할 팔자:** 그녀의 트위터 소켓말은 'destined to sing' 이다.

**트위터:** @GreenKim



민소매 니트와 스커트 모두 보브  
원مام의 자주색과 검정색 가죽 팔찌 필그림  
히트 무늬 칼피 게스 주얼리  
오른 팔 화색 가죽 팔찌 필그림  
금색 칼피 게스 주얼리  
구두 팬마리아 by 소다

“이제는 당당히  
'가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가죽 재킷 시스템  
원피스와 목걸이, 반금 모두 제이미앤벨

금색 상의 보브  
은색 반지 게스 주얼리  
사각형 반지 데이드림  
검정색 풀퍼 윙그림  
구두 맨마리아 by 소다

그림 좋은  
영상



GO TO  
MAXIM  
iPAD  
이공계 컷



# 당신이 여자에 대해 모르는

# 1000



이루써 남자와 여자는 다른 행성에서 온 게 분명해졌다. BY 김희정

**1** 남자는 “네 말이 맞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자는 “네 말을 듣고 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동안 그녀가 당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건 당신의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었다.

**2** “뭐 먹을까?” 라는 당신의 질문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꼭 집어 말하는 여자는 20% 미만이다.

**3** 나머지 80%는 “아무거나” 라고 대답한다.

**4** 남자는 단맛에, 여자는 쓴맛에 민감하다. 임신 중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쓴맛을 지닌 독성 성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미각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5** 1920년대 성의학자 해블록 옐리스는 “디딤판 달린 재봉틀을 쓰는 여자 재봉사는 의자 모서리쪽에 앉아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고 썼다.

**6** 100명 중 15명꼴로 일생에 한 번은 우울증을 경험하며, 여자는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는다.

**7** 남자는 체중의 40%가 근육인 반면 여자는 근육의 비중이 23%에 불과하다. 그녀가 무거운 물건을 못 든다고 징징대는 게 괜한 엄살은 아니다.

**8** 영국의 세인트앤드루대학 사회학 연구진이 “첫 데이트에 나서는 매력적인 여성과 남성 은 데이트 비용을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연구를 진행한 마이클 스타레트 박사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돈을 잘 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상대 방에게 그만큼 기쁨을 줬기 때문에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9** 불쾌한 사건이 생기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렬하게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경험한다.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인간의 전투열에는 광범위한 부

분에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데 에스트로겐 수 준이 여자가 남자보다 단연 높기 때문이다.

**10** 여자는 불쾌한 사건을 더 잘 기억하기도 한다.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코티졸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자보다 여자의 몸 에 더 많이, 더 오래 분비되기 때문이다.

**11** 하지만 다행히도 스트레스 회복 능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수하다. 여자의 회복력이 남자보다 더 많은데 이 회복력이 인간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준다. 휴우~

**12** 여자는 남자와 시각 처리 세포가 다르다. 여자는 물체의 색깔 변화에 민감하지만 남자는 물체의 속도에 민감하다. 그래서 당신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녀는 꽃을 좋아한다. 둔 아깝게 꽃을 왜 사냐고 투덜거리지 말고 가끔 꽃을 사줘 봐라. 그녀의 대우가 달라질 거다.

**13** 여자의 ‘5분만’ 은 30분을 의미한다.

**14** 10대에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1/4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다.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섹스를 안 하고 기다린 여성이 혼전임신을 하는 비율(1/10)보다 훨씬 높다.

## 15 여자들 중 일부는 신체 자극 없이 의자만으로 자면서 쉽게 오르가슴에 이른다.

**16**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휴식 중에도 두뇌의 90%가 활동을 한다. 자는 것처럼 보여도 그녀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 것.

**17** 생리도 온다. 1971년 인류학자 데스언드 모리스와 크리스 나이트는 같이 사는 여성들의 월경 주기가 같아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18** 여자의 요도는 남자에 비해 짧다. 남자의 요도 길이는 20~23cm인 데 비해 여자는 3~4cm로 아주 짧고, 여자의 요도는 입구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남자는 곡선형으로 돼있다. 왜 여자 화장실이 그리도 북적이는지 알겠지?

**19** 여자는 생리 직전에는 되도록 새로운 만남을 피하려고 한다. 생리 전에는 평소보다 체온이 올라가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그녀가 갖은 핑계를 대며 당신의 소개팅 날짜를 미루려고 한다면 이유를 캐묻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미 당신의 미니홈피를 염탐해서일지도...)

**20** 여자는 생리 전보다 생리 후에 더 예뻐진다. 생리가 끝나갈 무렵부터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져 피부의 수분이나 탄력이 잘 유지된다. 피부 상태가 한 달 중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때다.

**21** 일반적으로 남자는 체중의 68%, 여자는 체중의 50%가 물로 되어 있다. 여자는 체내 수분 비율이 남자보다 낮기 때문에 화석력이 약해 남자보다 술에 더 빨리 취한다. 으훔.

**22** 생리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술을 적게 마셔도 빨리 취한다. 그녀가 취한 틈을 타 고백을 하려거든 생리 전에 만나는 게 술 값이 덜 든다.

**23** 여자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섹스를 했을 때 오르가슴을 느끼는 비율이 혼전보다 5배 더 높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결혼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르지 않다. 유, 유부녀의 위엄이 이 정도였어?

**24** 여자의 약 43%만이 첫 섹스를 할 때 피를 흘리며, 나머지 57% 여성의 처녀막은 늘어진 듯 찢어지지 않는다.

**25** 여자의 심장은 남자보다 더 빨리 뛴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두 배 정도 '심박급속증'에 걸리기 쉽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경우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수가 압도적 두 배 많다고 한다.

**26** 여자는 남자를 만난 지 3초 이내에 남자의 매력을 파악한다. 냄새를 통해 남자의 면역체계가 자신보다 나은지 파악하고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27** 그녀가 물을 고고 하는 섹스를 좋아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이다.여구리도 살 때문일 수도 있다.

**28** 여자는 목소리가 저음인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린다. 게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전해진 정보를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녀에게 오래 기억되고 싶다면 낮고 굵게 말할 것.

**29** 배란기의 여자는 냄새로 남자의 유전형질이 좋은지, 좋은 피터가 될 만하지를 구별해 내는 능력이 높아진다. 특히 배란기의 초저녁쯤에는 그녀의 감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해 성욕도 가장 높아진다고 한다. 기억해라. 데이트는 배런기 초저녁이다.



**30**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최대 출산 기록은 69명이다. 러시아 농부의 아내가 가진 기록으로 이 여자는 1725년부터 1765년까지 네 쌍둥이를 4회, 세 쌍둥이를 7회, 두 쌍둥이를 16회나 낳았으며 평생 27번이나 출산을 하거나, 역시 세 번이나 농부의 아내였다.

**31** 임신하지 않은 지금의 크기는 주먹만 하다. 그러나 임신하게 되면 평소 부피의 500배까지 늘어난다.

**32** 남자의 요도는 사정할 때 정액의 통로로도 사용되지만 여자의 요도는 단지 소변을 배출하기 위한 통로다.

**33** 대부분의 여자들은 실만 빼면 인기가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34** 그녀가 평소 매우 적게 먹거나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라. 질근조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35** 남자들은 잘 보이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편안하고 편안한 여자에게 주로 부탁을 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걸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

**36** 그곳의 모양만으로도 그녀의 은밀한 취미를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응술만 매력 없고 자음이 많다면 자위를 즐겨 하는 여성이다.

**37** 소음수의 모양이 높아지고 바깥쪽이 검고 번들거리며 안쪽 생식기가 보인다면 그녀의 예전 피터가 입으로 싸비스를 아주 즐겼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도 그녀와 또 하고 싶다면 그녀에게 화려한 하늘만큼 선사할 것.

**38** 폐경이 되더라도 성적인 감각과 기능은 정상이다.

**39** 화를 낼 때의 우리 뇌는 오르가슴을 느끼고 난 직후와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섹스를 하고 나서도 "말할수를 했다"며 후회한다. 평소에는 말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녀와 섹스를 하고, 그녀를 추궁해야 할 때도 섹스를 하라.

**40**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자들은 다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남 녀가 서로 싸운 뒤 청상모음 돌아오는 시 같은 여자가 더 오래 걸린다. 극도의 분노를 느끼면 우리 몸 속에서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이 일시에 분비되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남자의 호르몬들은 이미 한참 전에 휴식 단계로 들어가지만 여자 몸 속의 호르몬들은 여전히 몸 속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전체 여성의 약 75%가 생리 전 증후군에 시달린다.



**43**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손만 잡고 잘게" 라는 남자의 말을 믿는 여자는 없다.

**44** 여자는 육체적으로는 질 내부가 찢는 등 흥분했다는 징후가 명백하게 나타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5** 여자는 성적 흥분을 느끼고 그 곳이 아예 찢지 않을 수도 있다.

**46** 마음에 드는 그녀가 있다면 일단 질리라. 의외로 손해 볼 확률이 높지만은 않다. 여자는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느껴 고백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이더라도 연인과 모성애를 느껴서 고백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47**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타하라 히라 교수는 2,000명을 대상으로 소망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단지 세월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무엇인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원가를 산다고 답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

**48** 영국 다이어트 전문 업체 웨이트 워처스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8%는 하루 10번까지 섹스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섹스보다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는 여성이 70%로 더 많았다.

**49** 여자가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본다"는 착각에 빠지는 이유는 남자도 여자를 쳐다보지만 여자들도 여자를 쳐다보기 때문이다.

**50** 당신이 그녀의 몸 안에 사정한 정액의 정액 내의 여러가지 호르몬에 의해 역력해 변해 몇 시간 후에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녀는 몇 시간 후에 쏟아져 나오는 당신의 최후한 정액 냄새를 맡으며 다시 한 번 뜨거웠던 지난 밤의 여운을 떠올릴 거다.

**51** 여자의 몸은 매경 뒤 운동 능력이 16년 정도나 젊어진다. 여자는 서른 살이 지나면 몸의 산소 소비량이 매년 1% 정도씩 감소하지만 매경 뒤에는 이런 흐름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52** 남자는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에빠?"라고 물어보지만 여자들은 "키 커?", "돈 많아?", "스타일 좋아?" 등을 물어본다. "찰떡같이?"는 그 다음이다.

**53** 딸이 아버지에게 애정을 품고 어머니를 경쟁자로 인식하여 반감을 갖는 경향을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한다.

**54** 그녀가 당신에게 열이 난다거나 잠이 안 온다고 징징댄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욕 빠진 거다. 시상에 빠지면 뇌에 흥분을 전달하는 각종 화학물질과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이 아프거나 잠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55** 여자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편도체가 남자보다 더 발달해서 공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56** 남자의 음경에 해당하는 여자의 성기관은 음핵이다. 음핵은 남자의 음경처럼 발기력을 갖추고 있다(그렇다고 단단해지는 건 아니다).

**57** 흥문이 좋아 찢어지는 '차열'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두 배 정도 많다. 여자 번비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58** 대다수의 여자는 단 몇 초만에 순천히 의모란 다른 여자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여자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는 '허리 굽기'였다.

**59** 아이러니하게도 10명 중 9명은 상대 여자도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60** 한 결혼정보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이 꼽은 최악의 교제 상대는 '돈 빌려달라는 남자'였다.

**61** 여자는 좌, 우, 위, 아래 46도 범주 안에 있는 물체를 한 번에 감지할 수 있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다른 남자를 스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장면까지 쉽게 포착한다. 반면 남자는 시야가 좁아 자기만의 여자를 스캔 할 때 고개를 돌려야 한다. 장장-광원

**62** 여자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을 남자보다 자주 헷갈려 한다.

**63** 남자나 여자나 거짓말을 하는 횟수는 비슷하다. 하지만 남자들은 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64** '실연 증후군'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테드레놀린과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인해 가슴이 타질 듯하게 아프고 숨쉬기조차 곤란하게 되는 증상이다. 실연 증후군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데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5** 세계에서 가슴이 가장 큰 여자 모델은 '셀라 허쉬'다. 그녀는 가슴 확대 수술을 10차례 넘게 받아 '트리플 K컵'이 됐는데 결국 감염이 발생해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그 결과 가슴은 이전보다 더 작아졌다.

**66** 여자는 남자의 외모가 별로라도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사귀기도 한다. 희망을 가지자, 희망을!

**67**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임기의 여자들은 꽃이남보다는 마초에게 더 끌린다. 미국의 크리스틴 가버-아프가 박사는 이를 "남성적인 특징이 강한 남자에 대한 여자의 관심은 배란기에 정점에 오르는 기존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다"고 설명했다.

**68** 남자보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빨리, 더 많이 자란다. 여성호르몬은 모발의 발육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말모엔 여인을 덮어 먹여야 하나.

**69** 여자들은 남자가 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대에서 남자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상대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강한 믿음이 전제돼 있다.

**70** 여자는 평생 400회 내외의 월경을 한다.

**71** 대부분의 여자는 한 달에 최소 한 번쯤 변비 증상을 느끼게 된다. 여자의 월경과 배란 주기를 결정짓는 호르몬 중 황체호르몬은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대장의 활발한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72** 시원하게 불임을 풀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날을 기다리는 여자들도 있다. 생리가 시작되면 난포호르몬이 분비되어 양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73** 질 안쪽의 벽은 신경세포가 드문드문 퍼져 있어 접촉보다는 압박에 대한 예민도가 높다.

**74**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과 일리노이 대학 공동 연구팀이 성인 남녀 370명을 대상으로 '일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여자는 사랑과 관련된 일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는 직장이나 성공과 관련된 것을 많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여자가 노을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매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76** 남녀의 쇼핑 방식이 다른 이유는 뇌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다. 남자는 죄뇌를 빨리 사용하여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반면, 여자는 우뇌를 더 잘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잘 분석해 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필요한 물건만 집어 바로 계산대로 가지만 여자는 백화점을 빙빙 돈다. 그러다가 처음에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만다.

**77** 여자들은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기 보다 다른 여자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민다.

**78** 여자가 남자보다 눈물이 많은 건 남자보다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는 '거울 뉴런'이 더 민감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더 많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79** 여자는 대뇌피질의 신경세포가 남자보다 11%정도 더 많다. 특히 언어 구사 등에 활용된 부분에 신경세포가 더 백백하게 들어있다. 말만 들어도 피곤하지?

**80** 대다수의 여자들이 어짜파다 모르는 남자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자신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줄로 착각한다. 당신이 못생긴 여자는 고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81** 영국 런던대학과 워릭대학, 영국정치경제 대학 연구진은 남녀가 연애할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유리한지를 수학적 방법으로 점검했다. '좋은 남자를 잡으려면 여자는 데이트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서 최대한 섹스를 뒤로 미룬다. 반면 초기에 섹스를 하려면 여자는 '나쁜 남자'를 고른 경우가 많다.

**82** 누나들은 자기 남동생만큼은 아동을 보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다.

**83**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에 손결을 잃은 여성이 손결을 지닌 여성보다 이혼 가능성이 더 높았다.

**84** 네덜란드 호르닝엔대학과 스페인 빌렌시아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 키의 여자가 가장 질투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간 키의 여성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만날 경우 키가 크거나 작은 여성보다 더 많은 질투심을 느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85** 이 연구결과는 중간 키의 여성이 일반적으로 건강하며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도 통한다.

**86** 여자들은 호감 있는 남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 튀리고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답장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 관심 없는 남자의 문자에는 지나치게 빨리 답장을 보내거나 아예 씌어 버린다.

**87** <워싱턴 포스트>가 1천 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정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당신을 괴롭혀 하나"는 질문에 남자는 자신의 여자기 바램을 따르거나 건통을 할 때 큰 질투심을 느끼고 여자는 자신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더 질투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중독 보전'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남자는 부인이 낳은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친짜 자신의 아이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반해,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정에 충실해 훌륭한 부양자로 남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88** 여자의 항문은 남자의 것보다 더 잘 빛어진다.

**89** '직장 내 괴롭힘 연구소'에 따르면이런 것도 있나? 남성들이 괴롭히는 상대방은 성별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여성들이 괴롭히는 상대방은 7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한다.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

**90** 여성의 걸음걸이를 잘 관찰하라. 오르가 숨이 보인다. 어느 연구진이 벨기에 여대생 16명의 걸음걸이를 비디오로 촬영하고 성생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르가슴 경험 이 많은 여성은 척추의 움직임이 많고 크게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반 근육에 문제가 있는 여성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어서 성관계 시 오르가슴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힘차게 걷는 여자의 변화율 따라

**91** 세계에서 가장 긴 수염을 가진 여성은 현재 기네스북 세계 기록 보유자인 미국의 비비안 윌리다. 그녀의 수염 길이는 27.9cm였다. 그녀는 일곱 살 때부터 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92**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힘을 신었을 때의 키가 자신의 진짜 키라고 생각한다.



**93** 궁중 여자 화장실에는 에티켓 벨이 있다. 에티켓 벨은 불일치를 볼 때 민망해 하는 여자를 위해 장착해 놓은 것으로 세소리 혹은 물소리가 소리가 난다. 한편 여자들은 남자 화장실 소변기의 물이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걸 모른다.

**94** 원나잇을 원한다면 본능에 따라 공격적으로 여자를 꼬드겨야 성공할 수 있다. 미국 캔자스 대학 연구진의 조사결과 여성들은 단지 하룻밤이라면 본능으로 골방 들어가는 남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95** '나 오늘 뽀얍이야'라는 그녀의 말은 '나 아이러니 안 그랬어'라는 뜻이다. 여자들이 자신의 뽀얍이라고 하는 건 진짜 뽀얍이 아니라 비비크림을 바른 상태의 자신의 얼굴이다.

**96** 여친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면 못 먹게 해라. 스웨덴 린드 대학에서 하루에 마시는 커피의 양과 가슴 크기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가슴 크기가 작아질 가능성이 17%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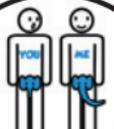
**97** 물이 되면 따뜻하고 강한 햇살은 여자의 뇌에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 분비를 더욱 많이 촉진시킨다. 그녀가 몸을 타는 건 다 이 때문.

**98** 여자는 남자의 메너와 관습의 표현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99** 한 경제학 교수가 1970년부터 자료를 수집한 결과 얼굴이 별로인 여자는 평균 이상의 예쁜 여자보다 급여가 12% 더 낮았다. 동등한 여자도 급여 수준이 떨어졌다. 예쁜 얼굴값 한 다더니 진짜였네.

**100** 여자들이 하우에 한 번 정도 성적 충동을 느끼는 데 비해 남자들은 5초마다 성적 충동을 느낀다. 남자는 성적 행동과 공격성을 지배하는 뇌중추가 여자보다 2.5배나 더 크다고 믿고 있다고. 당신이 발정난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해.

# STYLE



남자의 생명은 그것과 위트.

안 과경희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30cm by 반8  
(www.30cm.net)

30cm 되는  
폼만 팬티  
받아가



ILLUSTRATION 안영호  
ASSISTANT 조다현

**크**고 우직한 당신의 성품을 어찌 일개 팬티가 헤아리겠나. 그 우람한 속내를 일일이 깨네보며 줄 수도 없고, 이것 췌ل 하지말 이젠 한시름 놓아도 될 거다. 당신의 큰 뜻을 품어줄 대단한 팬티가 등장했다. 30cm 팬티는 우주 스케일의 빅 제미와 함께 코깅이, 아람인이 부림지 않은 투한한 자신감을 아랫도리에 선사한다. 비디오 테이프 모양의 케이스 덕에 포장비도 들지 않아 선물용으로도 좋다. 혼자 보긴 아까우니 고자가 아닌 사람만 구입하자. \* 주의: 촬영 영상은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

97가 종류나 되는 귀한 디자인은 30cm나 MAXIM 홈페이지, OR카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내겐 너무 큰 그늘/오빠/취급주의/강하고 오래간다/나는 정자왕이다/귀한 자식/크게 될 놈/되면한다/긴놈의 역습 각 15,000원 30cm by 반8 (3중 세트는 할인도 되더라)





AWESOME • LIMITED • EDITION • T-SHIRTS

# MAXIM SHOP



# NEW BALANCE BOOM



거리도 잘만 이상이 NO이 새겨진 운동화다. 뉴발란스는 대세를 넘어 운동화 시장을 지배할 작정인가?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 NEW BALANCE MR1080LB

걸음걸이가 뻣뻣하다고 신배들한테 뿔 흥 열열하게 맞이하라면 뉴발란스 1080에 눈이 돌아갈 거다. 발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김피 구조와 뉴발란스 특유의 쿠셔닝이 마사이족처럼 바르게 걷는 중립보행을 도와준다. 뉴발란스 1080 쿠션에 적용된 N-ergy 기술은 착지 시 발생하는 충격을 곧바로 추진력으로 전환한다(한 번 걸으면 멈출 수 없는 건가?). N-ergy는 반복되는 충격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 주구장창 서를을 밟아도 신발이 뽕뽕송송하니, 클리버들이 특히 사랑할 수밖에. **가격 139,000원 문의 02-543-5465**

## NEW BALANCE 993

'스티븐 잡스 신발'로도 유명한 뉴발란스 993 모델은 가히 국민 신발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못 입는 CEO' 위에 빛나던 잡스의 운동화가 이렇게까지 툭 툭은 여느리도 몰랐다. 한 켤레에 24만 원 가까이 하는 이 녀석을 중딩부터 헬스장 할배들까지 신고 다니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는 한 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솔까말 디자인은 그냥 그런데, 신었을 때 착화감만큼은 에디터가 신어본 신발 중 최고로 뽕뽕했다. 인성 **가격 239,000원**



내 덕이야

### 닭발에서 나왔지

1906년 뉴발란스 창시자인 영국의 윌리엄 라일리는 어느 날 마당에서 걸어도 나는 닭이 3개의 발가락만으로도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훗 날 닭의 발처럼 발바닥을 아치로 받쳐주어 편안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뉴발란스 운동화의 핵심 기술 '아치 서포트(Arch Support)'로 발전했다. 1세기 전 6명 남짓한 직원이 하루에 고작 서른 켤레 정도 만들던 작은 신발 가게가 지금은 120여 개국 세계인의 발을 딱 주루르듯 하고 있구나. 진짜 마이 깬새~!



# MAXIM SHOP

MAXIM 100호 기념 한정판 티셔츠 발매!

- 1** 리미티드 에디션의 위엄 MAXIM 100호를 기념하기 위해 딱 100장만 만들었다. 품절되고 나서 달라고 때때로 책임 못 진다!
- 2** 디테일의 위엄 입고 다니기만 해도 주변 모든 이의 시선이 꽂히는 섬세한 문구! 질식사를 유발하는 당신의 숨막히는 뒤대를 완성하는 뒷-옆면의 깨알 같은 디자인!
- 3** 아광의 위엄 어둠 속에서 발광(發光)하길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 캄캄한 곳에서도 오직 당신만 발광(發光)하라고 판타 스틱 아광 티도 선보인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사냐고? 바로 여기 꿈과 희망의 환 플레이스 MAXIM 홈페이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티셔츠는 단 100장 지, 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 10 x 10



평범할 뻔한 검은 볼테를  
화색 다리가 멋스럽게  
살렸다. 190,000원 카만라  
by 사필로



각질과 넓은 모공을 한번에  
해결한다. 까끌한 패드를 한 장씩  
깨끗이 얼굴을 닦기만 하자. 69,000원  
스카이슬림드 노르딕 스킨 필  
by 스페이스뷰티



아이폰과 지갑을 한번에 챙기자.  
83,000원 해리스 액세서리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라이터를 챙기면  
될 일이 많다. 상사의 담배 친구가  
되면 조연과 격려를 한 마디라도 더  
받을 수 있다. 79,000원 지포

벨트의 구두는 같은 색으로 짤은 밤색과 검정색은  
슈트를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함께 챙겨야 한다.  
68,000원 본 지플로어



10가지 상황에 맞는 10만 원대 제품.  
스타일 살리고 인생도 편해지는 합리적인 지름이아발로 당신 인생에 꽃을 피울 지름길.  
(10만 원이 조금 넘더라도 봐주라. 20만 원은 안 넘을 게 어디야.)

BY 고희영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조유남

## 1. 첫 출근

배물뚱이 노인네가 많은 일반적인 회사에 다닌다면, 색색의  
산상 유행 아이템을 입고 갔다가 첫 출근이 마지막 출근이 될지  
모른다. 단정하되, 세련되고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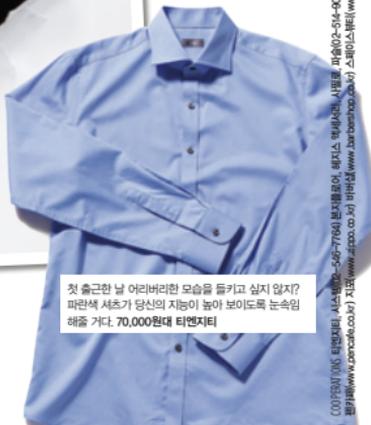


새로 산 구두에 주름이 잡히고 쭈뼛한  
발 냄새가 배면 속상하다. 상나무 재질의  
슈트리로, 꽤 훌륭한 품질을 자랑한다.  
28,000원 바바삼

폰이 시계의 기능을 대체한다  
해도 남자의 자존심은 역시 시계.  
98,000원 파슬



타이는 사람의 얼굴 같은 존재다. 너무 잘나가나  
못나가나 뒤편 안티안 생길 뿐. 첫 출근만큼은  
평범하게 사선 스트라이프로 시작하자.  
58,000원 본 지플로어



첫 출근한 날 머리버리한 모습을 들리고 싶지 않지?  
파란색 셔츠가 당신의 지능이 높아 보이도록 눈속임  
해줄 거다. 70,000원대 티엔지티



정숙하게 쳐려  
입었다면, 소름으로  
당신의 센스를  
보여주자. 원색의  
만년필이 지루한 서류  
업무에 흥을 줄 거다.  
39,000원  
라이 by 펜키메

007501706 티엔지티, 02-567-7764 티엔지티, 02-514-9006 파슬, 02-514-9006 바바삼, 02-514-9006 해리스 액세서리, 02-514-9006 스페이스뷰티, 02-514-9006 카만라, 02-514-9006 사필로, 02-514-9006 스킨 필, 02-514-9006 지포, 02-514-9006 지플로어, 02-514-9006 라이 by 펜키메

종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게 디자인 너무  
독특한 디자인은 질린다. 색깔으로 승부하자.  
88,000원 위메스비

## 2. 등갯길

피질한 건 옆집 오빠로 족하다.

온온하지만 흔하지 않은 색상이라  
센스가 있어 보인다. 119,000원  
리쿠폰 by 뽀뽀뽀

제대로 된 체크 셔츠  
하나만 있어도 당신  
옷장에 든든한 아군이  
있는 셈. 135,000원  
힐미가데님

상가 올라갈 데마다 살짝 보이는  
스트라이프 무늬가 상큼하다.  
25,000원 브라온브레츠



바르자마자 여드름의 존재를 모르는  
트리플 관리 젤과 지성 피부 트러블을  
치유하는 마스크. 각 10mL 20,000원  
스마트 리무버 안티블레이쉬 트리트리트 젤/  
100mL 35,000원 아우 오브 트리플 모두  
오리진스

워상이 전혀 없는 감색 청바지는 은근히  
독특하다. 59,000원 데니모 from 리버이츠

체크 셔츠가 진부하다면 신뜻한  
색의 조합이 돋보이는 이 셔츠를  
보고 생각이 달라질 거다.  
138,000원 수퍼드라이

편안한 복장을 입더라도 후홀군해  
보이면 안 된다. 타이모 디자인이 예쁜  
엔듀먼 티를 입자. 64,000원 루마

## 3. 도서관

사실 예쁜 여자들은 다 여기 있다.  
공부하러 온 태희도, 공부하는  
오빠 고시러 온 혜교도, 도서관을  
갈 때 멋을 내야 하는 이유지



아침에 공을 들인 머리도 하루 종일 공부에  
영혼더라 보면 결국 예뵈진다. 모자도 꼭  
챙기자. 100,000원대 빈폴진

검정색 합테를 쓰면 머리기가 좋아지는  
기분이다. 119,000원 일로



상큼한 노트를 쓴다고 공부할 마음이  
생기진 않지만 일단 기분은 좋으니깐.  
다이어리는 10,000원, 여행 플래너는  
10,000원대 모두 타이모노

도서관에선 자기가 커피 하나라도 작업이  
동할 때가 많다. 동전을 챙기자. 19,000원  
타레발 by 휘앙하우스



밥이 푹 맞는 운동화를 장시간 신으면  
골반이 가 맞지 않는다. 천 소재의 편안한  
신발을 신자. 84,000원 탈스

COOPERATIONS  
탈스 (044-5344) 하이모노 (02-546-7764)  
빈폴진 (02-514-0093) 일로 (02-346-5949)  
힐미가데님 (www.wherehouse.co.kr)



받은 당신이 사는 거다. 계산을 번으로 나누는 건 허리가 된 이후에나 따지자.  
85,000원 헤지스 액세서리



못생긴 여자를 보면 확가 나듯, 코랄이 빠져 나온 남자만 보면 싫어하는 여자도 많다. 습식과 건식 연도 둘 다 가능한 완전 방수 연도기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각 28,900원, 189,000원 필립스

## 4. 소개팅

타고난 하드웨어가 소박하다면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촌스럽게 뉴 아이벌로 딱딱하지 꼴질하러는 게 아니다. 꾸민 티 내지 않고 '나, 센스 있는 남자' 라고 발광하는 게 포인트.



계나 소나 다 입는 게 황버지라든 어느 정도 검정된 사람들만 입는 게 면바지다. 195,000원 프레드퍼레이



부드러운 니트 속에 감춰 두었다가 드러낼 수컷의 본능은 더 sexy하다.  
99,000원 자바이게스



하늘색 셔츠라고 다 비즈니맨을 위한 건 아니다.  
88,000원 리타 by 피나콜

너무 멋진 남자는 촌스럽다. 은은하지만 자유로움이 묻어나는 짐승의 향기를 내뿜자.  
50mL 67,000원,  
100mL 84,000원 토스 인 헤븐 HIM



심플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 멋스럽다. 69,000원 빅토리아

## 5. 야외데이트

도시나를 몰밭에 풀이놓으면 또 다른 맛

다양한 패턴이 디자인된 자질구레한 스카프도 췌서 넣으려면 슬더백은 필수다. 78,000원 비아모노



기름과 어울리는 맥들머 가죽 캔버스화가 멋스럽다. 159,000원 트레통 by 각산



뒤는 볼드 하나로 발랄함의 쿼치를 보여줄 수 있다.  
43,000원 허프 by 피나콜



COOPERATIONS  
비아모노(02-546-7764) 각산(02-3446-9949) 피나콜(02-3445-1235)





무채색을 아무리 사랑해도  
모자까지 어두우면 범칙자로  
보인다. 39,000원 엔비에이



비싼 눈알에 비해 할  
일 없는 귀에게 선물을  
주자. 119,000원  
안개이스



지퍼 달린 주머니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하자. 65,000원 이디스 네오라벨



이왕 내은 거 조깅 속도나 시간  
체크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  
98,000원 타이맥스



운동복에 왁스  
칠이 뱉혀진 머리는  
웃기고 그렇다고  
산경을 안 쓸 수도  
없다. 40,000원대  
지프

## 8. 운동

이왕 숨 쉬는 길에 훌륭한 냄새를 가진  
얇팍이 많은 곳의 공기를 마시려는 거다.



베이직한 후드 티셔츠지만 정광색  
브랜드 로고가 상큼하다. 49,000원  
이디스 네오라벨



땀을 흘리라고 비평과는 친한 팬티에게 아래  
건강을 맡기자. 36,000원 엠엘비 언더웨어



땀 뭍 살짝 들리는  
바지 밑단 아래  
생기 발랄한  
양말이 귀찮다.  
12,000원 시스템

## 9. PC방

친구들과 게임 하러 갈 땐  
편한 게 최고. 근대 알바생이  
예쁘다면?



이웃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입은 듯 무심한  
척 해야 한다. 하지만 포근한 촉감이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것으로 신경 써서 골라야  
한다. 178,000원 슈퍼드라이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병 무릎이  
빌기한다. 운동복은 무릎을 살짝 덮은  
길이를 고르자. 앉을 땀스팍 끈이  
올라가게만 59,000원 원샷버

단장하면서 쓰러져 멍멍이나  
편하다. 69,000원 히토라이



올해 운이  
시원할까? 다만  
포기 무사함을  
영성하자.  
59,000원 지프



002-347-7701  
수퍼드라이(www.superdry.kr) 원샷버(02-549-7764) 히토라이(02-514-0693) 지프(www.zippo.co.kr)

지프 라이터  
스케줄 에디션  
받기





한 방에 들리 없을 때를 대비해 발 체면을 살려주자.  
 장시간 신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발을 위해 기능성  
 양말도 좋다. 각 10,000원대 본지몰로어,  
 9,000원 바우대

# 10. MT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과 눈이 행복하려면  
 평소 시 조연 취급 받던 당신도 로맨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야구 점퍼만큼 건강하고 상기법밖에 보이는  
 아우터도 없다. 178,000원 위에스씨



건조한 아외 날씨에도 생이 마르지  
 않는 피부를 만들자. 50ml 75,000원  
 토폴로얄린 차지드 하이드레이팅 크림  
 아베다



적어도 이를 동안  
 삶이 남아야 하는  
 휴대폰의 수명을  
 더 단축시키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를 챙기자.  
 140,000원 아디다스



흔한 톱 모자로는 이목을 끌 수 없다.  
 98,000원 대님 맨 시들라이



나뭇잎이라도 알맹한 청바지를  
 원하나? 넉넉한 피트를 고르자.  
 198,000원 힐피게네브



14화를 등정하지  
 않을거라면 기능에만  
 집착하지 마라.  
 등산화도 패션이다! 인  
 128,000 마벨



불필요한 액세서리는 짐일  
 뿐이다. 허전하다면 보온 효과  
 기능도 있는 머플러를 챙기자.  
 48,000원 수퍼드라이



수납 공간이 많을수록 가방 속에서 짐팡이가  
 굴러칠 일이 없다. 가벼운 천 소재로 무게를  
 덜자. 179,000원 진스포르스 by 피나클

# 니트를 찾아서 : 탈모의 기준

탈모가 좀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탈모는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

머리에 목동 아이스링크를 건설하기 전에 빨리 탈모 체크부터 해보자. BY 김진욱

##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다.

빗자루의 술만큼 드셨던 머리카락이 마치 갓을 빠진 존슨처럼 맥없이 풀이 죽었다면 탈모를 의심해보라. 특별히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한 것도 아닌데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가벼워졌다면 탈모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있을 수 있다. 윤기 있는 머릿결보다 역세게 힘센 돼지 털이 낫단 말이지.

## 친척 중에 탈모인이 있다.

가족과 친척의 탈모는 당연히 나의 탈모와 관계가 있다. 마치 신내림 유전처럼! 대한모발학회에 연구에 따르면 탈모의 원인 중 47.1%가 부계 유전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부친에게 대머리 친척들을 파악하자. 혹시 아냐. 탈모 치료 단계 확인이라도 해줄지?

## 부쩍 피곤하고 잠을 설치나.

호르몬 불균형은 탈모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발 및 피부의 재생을 관장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발생되지 못한다면 머리카락이 빠지기만 하고 솟아오르지 못한다. 부족한 피로는 호르몬 분비의 적, 게다가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밤 10시~새벽 4시 사이의 불면은 탈모 자격증을 취득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 두피에 기름이 많이 끈다.

탈모의 원인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을 쏙삭 키우면서 일종의 발 역할을 하는 두피에 문제가 생길 때 탈모가 발생한다. 두피에 기름이 많이 끈다는 것은 염증이 생겼거나 두피 건강이 악화되어 나타나는 현상. 즉 당신의 머리카락이 오뉴월 모내기 벼마냥 쏙삭 뽑힐 것을 예고하는 증상이다.

## 수컷 구멍이 자주 막힌다.

흔히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100개를 넘으면 탈모라고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100개는 모발이 단지 평균 100만 개인 서양인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모발이 평균 50만~70만 개임을 감안 했을 때 당신의 터럭이 하루에 70개 이상 빠진다면...100%입니다.

너도 이리 와~

나는?

## 두피 보호 삼총사

PHOTOGRAPHS ARC STUDIO



**1 아바다 맨 큐어-포먼스 컨디셔너**  
특 쓰는 강력한 향이 특징이며 사용 후 두피가 시원하다. 컨디셔너 제품은 노폐물을 제거해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모발이 잘 클라울 수 있게 한다.



**2 헤드앤슬터 헤어 풀 클리닉**  
1분 마사지로 두피의 트리를 완화해주는 제품. 왁스 타입으로 포도알 크기만 떠서 쓴다. 두피와 머리카락 끝에 영양을 공급해 힘 있는 모발만 만들어준다.



**3 려 자랑우도 두피모발팩**  
두피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준다. 약초 냄새가 친화적인 물로 향구고 나면 약한 것이다.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정성도 입증된 제품.

탈모에 좋은 것들!



## 간편한 탈모 자가 진단법

당신의 머리 고영이를 옮겨 줘 보자. 빠지는 머리카락 수에 따라 탈모 정도를 알 수 있다.

0개	6개	6개~10개	10개	10개
병 치지 마	아직 괜찮아	탈모 출하~일!	너무 늦었...	대머리 인증
건강한 편이나 머리카락이 힘이 없으니 신경을 쓸 것	탈모 증상의 시작. 두피와 모발 관리를 시작하자.	말이 필요 없다 더 빠지기 전에 의학의 힘을 빌리도록.		



진단법을 알려준 윤춘식 원장은?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  
미국 피부과학회(AAD) 정회원  
국제 모발이식학회 정회원  
대한모발학회 정회원  
대한피부과사회의 학술위원·정보위원  
저서 《탈모 예방과 치료 가이드》

메이민 피부과 (TEL: 02-555-7277)

02-555-7277 (02-555-7277) (02-555-7277) (02-555-7277) (02-555-7277) (02-555-7277)

## 파티 생존법 NO.1

코스튬 파티에선 개나 소나 입는 뻔한 싸구려 의상은 피하라. 의상이 멋지고 창의적일수록 여자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쉽다. 사적이 반이라고, 입이 열리면 마음도, 몸도 곧 열리게 되어 있다!



# MAXIM HALLOWEEN SURVIVAL GUIDE

서양 귀신 대거 출몰,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건?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할로윈 파티를 맞는 것

페이지를 넘기면 영화 속 특수 분장 같은 완벽한 **좀비 메이크업**, 여자를 기쁘게 하는 달콤한 사랑 같은 **칵테일**, 파티에서 돋보이는 **완벽한 스타일링** 그리고 연쇄살인마의 칼날보다 더 사소한 **슈트 고르는 방법**까지 알차게 토막 친 다양한 정보들이 깔려 있다.

## 파티 생존법 NO.2

할로윈 파티 작업을 미워할 아동을 겁주는 것과 혼돈하지 말 것. 문밖 뒤에 숨어 있다 튀어 나오면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넌 이미 죽어있 다!”를 외치며 도끼를 흔드는 유치한 행동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안 통한다. 이에 생각도 하지 마라.

(남자-왼쪽부터)

블레이저 \$995, 바지 \$475 Gant, [gant.com](http://gant.com)

셔츠 \$65 Tommy Hilfiger

타이 \$155 Paul Smith Accessories,

[paulsmith.co.uk](http://paulsmith.co.uk)

슈트 \$595 DKNY

셔츠 \$95 Penfield, [penfieldusa.com](http://penfieldusa.com)

타이 \$15, 포켓 장식 \$8 The Tie Bar,

[thetiebar.com](http://thetiebar.com)

양말 \$120 WeSC, [amazon.com](http://amazon.com)



BY  
NICK LEFTLEY  
PHOTOGRAPHS  
TURE LILLEGRAVEN  
STYLING  
JENNY RICKER



**전문가의 팁:**

맞는 핏을 찾아라  
"재킷의 핏을 좌우하  
는 것은 어렵다. 나머지  
는 재단할 수 있다. 최근  
에는 짧은 재킷이 대세  
다. 팔을 내렸을 때 양  
복 끝단이 손바닥쯤 있  
으면 적절한 길이라 할  
수 있다."

**- 제임스 자니**

뉴욕 맞춤 양복점

Seize Sur Vingt 주인

블레이저 \$496, 바지 \$168 NumberLab,  
number-lab.com

셔츠 \$53 John Bartlett Statements, bartlett.com

모자 \$68 Steven Alan, stevenalan.com

타이 \$60 Calvin Klein, calvinklein.com

포켓 장식 \$8 The Tie Bar

부츠 \$325 Rogue

(오른쪽 페이지)

재킷 \$320 TOPMAN, topman.com

바지 \$50 H&M, hm.com

셔츠 \$99 UNTUCKIT, untuckit.com

보타이 \$15 The Tie Bar

## 파티 생존법 NO.3

이왕 직접 할로윈 파티를 열기로 했다면 제대로 하려면 기껏 차려입고 온 사람들을 실망시킬 순 없다. 현관에는 플라스틱 라인을 치고, 바닥에는 분필로 사체의 소리 라인을 그리자. 확장살엔 가짜 피를 뿌려라.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드라마이스트를 곳곳에 두자. 파티용품점에서 파는 거미줄을 사서 실내 곳곳에 치자. 당신이 하는 할로윈 파티라면 걸모습부터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진짜 토막난 사체를 갖다 놓았다간, 남은 평생을 귀신의 집보다 1억 배는 음산한 최창살 뒤에서 거시기에 거미줄 치고 살게 될 거야.



## 급한 대로 할로윈 의상

준비도 하지 못 했는데 갑자기 할로윈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문제없다.

1. 바지 지퍼에 "방을 정리해주세요 PLEAS SERVICE THIS ROOM" 이라고 적힌 호밀 빵 문고리를 걸자. 당신은 **성추모의 아이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다.
2. 모든 사람에게 이 파티가 최고라고, 여기서 밤새 신나게 놀 거라고 떠들고 다녀라.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하라. "여기보다 더 멋진 파티장으로 떠나겠습니다." 당신은 **르브론 제임스**다.
3. 당신보다 덩치가 더 적은 친구를 고무 밴드로 매달아 파티 내내 달고 다니다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졌다가 확 가까이 들러붙는 퍼포먼스를 계속하라. 당신은 **달이대피부가** 더러울수록 좋다.
4. 파티에 온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마주보고 울먹이며 외친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당신은 **취성이다**.
5. 실바를 허리에 두르거나 인발에 언지 끈자를 찍어라. 말할 때 무조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사죄한 뒤 퇴장하라. 당신은 **강호성**이다.
6. 호랑이띠와 가운, 청진기를 챙겨라. 3인 1조로 한명은 술을, 한명은 카메라를, 한 명은 설문지를 들고 다녀라. **오늘 컨셉은 고래대 의대생**이다.
7. 백정장을 입고, 민대가리를 하고 간을 부여잡고 다녀라.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차두리**다.
8. 검은 티를넥 티셔츠를 청바지 속에 넣어 입어라. 주머니는 지퍼로 잔뜩 채우는 게 포인트. 그리고 아프다며 그냥 집에 간다. 당신은 **스티브 잡스**다.
9. 파티장에 온 사람 중 남루해 보이는 사람에게 "2억 줄 테니 여기서 나가라" 라고 부탁하며 돌아다닌다. 당신은 **곽노현 교육감**이다.
10. 할로윈 분장을 거부하고 풀면 미국으로 떠나라. 미국에 달지마자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외라. 당신은 **한애숙**이다.



### 할로윈 드링크

사탕과 캐러멜,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당신의 유혹에 그녀가 빠져든다

#### 캐러멜 애플 울드패션드

애플 브랜디 2온스, 캐러멜 시럽 1/2온스, 애플 비터스 1/8티스푼(국내에는 비터스 종류가 별로 없으니 아쉬운 대로 오렌지 비터스를 쓰자)

1. 모든 재료를 얼음과 함께 짓는다.
2. 차가운 한 울드패션드 칵테일 글라스에 얼음덩어리를 넣고 1을 붓는다.
3. 녹색 시과 조각으로 장식한 뒤 사샤운 가루를 뿌린다.

BY JIM MEEHAN(POTNY.COM)

#### 바주카

신선한 개란 흰자 1/2온스, 설탕 시럽 1/2온스, 레몬주스 1온스, 풍선껌을 섞은 보드카 2온스(당황하지 마! 아래 레시피가 있다.)

1. 풍선껌(썬 건 말고) 약 30개를 잘판으로 토막 내어 보드카 병에 담아 24시간 동안 두었다가, 보드카만 따라내어 냉장 보관한다.
2. 모든 재료를 얼음과 함께 세이커에 넣고 흔든 다음 차갑게 해둔 잔에 따른다.

BY EBEN FREEMAN  
(ULTAMAREAGROUP.COM)

전문가의 팁:  
첫 슈트 구입 노하우  
"슈트를 처음 입는 사람이라면 가벼운 울 소재로 된 **투버튼 싱글 브레스트** 슈트나 **노치 라펠 슈트**를 추천한다. 더욱적으로 입을 수 있다."  
- 빌리 레이드  
Billy Reid의 디자이너

**투버튼 싱글 브레스트의 노치... 뭐?**

**투버튼**  
남자는 방울도 2개, 단추도 2개  
**싱글 브레스트**  
가슴이 한쪽만 달린 명산...은 아니고, 재킷 앞여밈이 한 줄로 되어 있다는 뜻  
**노치 라펠(노치트 라펠)**  
일반적인 양복 것 (0례도 모르겠다던 그냥 투버튼 재킷을 사라.)

블레이저 \$595, 조끼 \$265 Gant  
바지 \$50 H&M  
셔츠 \$65 DKNY  
타이 \$82 Pierrepoint Hicks,  
pierrepointhicks.com  
포켓 장식 \$8 The Tie Bar  
양말 \$15 Happy Socks,  
happysocks.com  
신발 \$99 Tommy Hilfifer,  
tommy.com



**블랙 위치**

짐빔 블랙 버전 2온스, 칩 크림 1온스

1. 버전에 칩 크림과 얼음을 넣고 저은 후 차갑게 해둔 잔에 따른다.
2. 신선한 칩 크림을 위에 얹어 장식하고 퐁시나운을 뽀개어 뿌린다.

BY JIM MEEHAN(PDTNY.COM)

**BEGINNERS' CLASS**

**비어 카푸치노**

= 맥콜 + 버드와이저

보리 탄산음료 맥콜과 버드와이저를 12의 비율로 섞어,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즐긴다.

**깡꾸아 밀크**

= 깡꾸아(커피 리큐르) + 우유

얼음이 든 잔에 깡꾸아와 우유를 1:3의 비율로 부어 마신다.

**말리부&콜라**

= 말리부(코코넛 리큐르) + 콜라

말리부와 콜라를 1:1 또는 1:2 정도로 섞어 얼음과 함께 차게 즐긴다.



전문가의 팁:

체형에 맞는 모양 고르기

"키가 크고 마른 남자라면 슈트의 길리와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키가 작은 신사들은 더블 브레스트의 슈트를 피하는 게 좋다. 더 짧고 동등해보인다든 무버튼 싱글 브레스트가 최고의 선택이다."

- 사이먼 스퍼

Simon Spurr, Spurr의 디자이너

(왼쪽부터)

블레이저 \$345 DKNY, dknyc.com

진 \$128 Vintage Revolution, denimhabl.com

셔츠 \$35 H&M

장갑 \$48 AIX Armani Exchange

신발 \$99 Tommy Hilfinger

블레이저 \$146 ASOS, asos.com

바지 \$150 Riviera Club

셔츠 \$70 Mango

타이 \$130 Band of Outsiders

신발 \$278 Oliver Spencer

블레이저 \$155 ASOS

차노 팬츠 \$88 ilife/after/denim

티셔츠 \$26 Jeddiah, jeddiahusa.com

벨트 \$38 AIX Armani Exchange

무츠 \$350 Rogue

## 좀비가 되자

특수 분장의 달인 앤서니 페페가 동네 잡화점에서 산 것들로 영화 속 좀비 같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필요한 것** 고무로 된 가짜 괴물 피부, 분장용 고무풀, 가짜 피, 액상 라텍스, 색조 화장품, 새 타슈(재발 깨끗한 걸로)



1. 할로윈이 되면 대형 마트나 파티용품점에서 위의 사진처럼 생긴 다양한 가짜 피부를 판매한다. 참만 하면 이 허전한 것들로 랜덤은 좀비 분장을 할 수 있다. 일단 한두 장을 고무풀을 이용해 얼굴에 잘 붙인다. 분장용 물도 보통 가연과 함께 파는 경우가 있다. 아 참, 면도도 했나?



2. 이미에 액상 라텍스를 바르고 타슈를 그 위에 붙인다. 반듯하게 잘린 면이 없도록 모서리를 깎는 게 포인트. 그 위에 라텍스를 덧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제 얼굴 전체를 이과 같은 방법으로 덮으면서 먼저 잘린 가짜 피부의 모서리들이 보이지 않게 잘 마무리한다.



3. 면상에 바른 라텍스와 타슈가 잘 마른 다음엔 곳곳에 작은 구멍을 내거나 빛어 색은 피부를 연출한다. 이제 색칠할 시간이다. 파랑, 녹색, 노랑, 화색 그리고 좀비를 연상시키는 갖가지 색을 얼굴에 바른다. 곳곳의 구멍 난 곳에 어두운 붉은 색을 발라 더 색은 피부처럼 보이게 한다.



4. 남은 건 치장 가짜 눈썹 장난감, 가짜 못난이발 등을 이용해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더 완벽한 좀비로 태어나도록, 머리에는 베이비피우더를 뿌려 허물고 푸석푸석한 머릿결을 연출하라. 땀가 좀 이상하다 싶은 부위엔 가짜 피를 발라 잘 숨겨라. 이제 출동! 대 맛있는 뇌를 따먹으러 가자! 냘냘.

[www.pepefx.com](http://www.pepefx.com)



할로윈을 더 재미있게



# THE MAXIM PARTY

2011.08.27

끝나가는 여름밤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더 미친 듯이 불타던 파티.  
 “새하얗게 불태웠어...”



## HOT IN HERE

여름방학은 끝났지만 어디 노는 데 비추기가 있오라. 지난 8월 27일 MAXIM PARTY가 열리는 CLUB ANSWER도 마찬가지로 밤이 깊어갈수록 입구 앞에 늘어선 줄은 점점 길어지고 여름의 마지막 밤을 허얏게 불태우려는 청춘들로 클럽 안은 점점 흥분의 도가니로 치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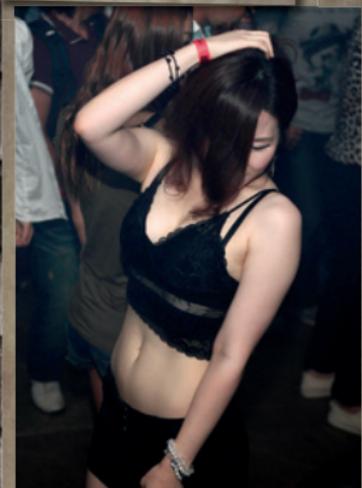


뜨거운 파티 속으로 >



### MAXIM 100호 한정판 티셔츠!

MAXIM GIRL이 입고 있는 간지 나는 티셔츠가 어  
디것인지 궁금해서 미치겠지? MAXIM이 100호 기  
념으로 제작한 티셔츠다. 게다가 여름 속에서도 빛  
이 난대과장이 아니라 진짜다. 아깽이거티브, 아, 한  
정판이니 갖고 싶다면 서둘러야 할 거다. (자세히  
보고 싶다면 866로 고고씽)



### EDITOR'S CHOICE

이날도 MAXIM PARTY엔 MAXIM 팬을 자처하는 고마운 독자들이  
여럿 찾아왔다. 이번 파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독자는 스위스, 벨기  
에, 프랑스 등등 국적이 다양한 외국인 청년 한 무리였다. 이전에도  
MAXIM 편집부를 불시에 방문했던 그들은 MAXIM PARTY에도 나  
타나 "MAXIM PARTY 정말 굿"이라며 에디터를 향해 연신 엄지손  
가락을 치켜세웠다. 다음 파티는 9월 24일이니 이쁘도 무릉도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당신이라면 이날을 기억하라 ☺

# WHO'S THAT GIRL

## 티걸 유진아

〈슈퍼스타K 3〉의 가장 큰 수혜자를 만났다.

BY 김희성  
 PHOTOGRAPHS: ARC STUDIO  
 WORDS&FILM 송종민  
 HAIR&MAKEUP 이현정

★ SHE WAS HERE ★



〈슈퍼스타K 3〉에서 합격자들에게 티셔츠를 나눠주는 '티걸' 이하늘에게 '슈퍼패스'를 외치게 만든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



SBS (tvN) 37에서 여자 4호로 출연. 남자 1호와 커플이 되었다.

촬영장  
 침투하기



➔ 유진아  
 생년월일 1989년 8월 27일생

**별명:**  
 티조, "달았다. 인정한다."  
**취미:**  
 불린 "시간 날 때마다 친다."  
**주요 스포츠 지역:**  
 "한강 양원 지구에서 자전거를 자주 탄다."  
**목표:**  
 "병원 코디네이터나 전공인 미술 공부에 관심이 많다. 연예계 활동도 잘하고 싶다. 난 욕심이 많은 여자다"

▶ 상의 판매처  
 ▶ 언더웨어 마루 이너웨어  
 시계 제로원  
 방문 스피어시컬러  
 샌들러스  
 루이까또즈 by 필립





▽ **이하늘이 당신에게 "남자친구 있나"며 호감을 표시했다. 그가 실제로 대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감사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는 사양한다.

**이하늘이 슈퍼 패스를 제시했는데도? 난 노래를 못해서...(웃음)**

**그런데 거기서 왜 티셔츠를 나눠주고 있는 거지? 정확히 당신 역할이 뭔지?**  
 남들보다 더 기쁘게 웃으면서 합격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딱이 되었던 남자 1호와는 어떻게 됐나?**  
 사귀진 않지만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가끔 문자를 주고 받는 정도. 남자 1호가 열심히 활동하라고 응원해 준다.

**MAXIM 남자 에디터가 <딱>에 나간다면 커리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나?**  
 전적으로 당신 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6박 7일 동안 누군가의 마음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가장 확실한 건 킬랑 공세 정도?(웃음)

**언제 가장 외로움을 느꼈나?**  
 휴대폰이 2~3일 동안 울리지 않을 땐 무척 외롭다.

**아니 이럴 수가? 당장 변호를 달라!**  
 애고야 많은 성격이라면 좀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털털하고 남자 같은 성격이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한다. "오빠, 우리 영화 볼까?" 이렇게.

**같이 영화 보고 싶은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서구적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좋겠다. 연예인으로 치면 가장적이고 유머러스한 차태현?

**당신의 남자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연예계 활동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은 남자였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 ☹



2010-2011

# MISS MAXIM

## TOP 12

수많은 지원자를 제치고 세미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MISS MAXIM의 위엄을 보시라!

PHOTOGRAPHS ARC STUDIO



**2010. 7 최혜연**  
2010 MISS MAXIM 우승자는 이렇게 탄생했다.



**2010. 8 김선혜**  
한편, 죽지못할 중 더러가 가장 늘씬했던 구두 스텝을 자랑함과



**2010. 9 최이윤**  
연예인 바다 대역 모델인 그녀가 콘테스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0. 10 육선화**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육 씨 성의 그녀와



**2010. 10 김태정**  
체포되고 싶은 욕구를 불끈불끈 수கு 치게 했던 그녀도 만날 수 있었지.



**2010. 11 김선한**  
게다가 뿐만 피부에 타투를 수놓은 터투이스트라네!



**2010. 12 이현주**  
아아, 그녀의 뒤에는 정말이지 신난아 뽀짝이 출몰했으며



**2010. 12 알정란**  
크리스마스를 축하해 주려 온 귀여운 그녀로 2010년은 행복해 끝이 났다.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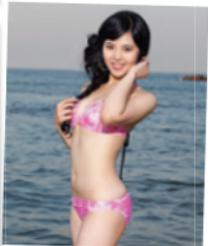
### 2011



**2011. 6 정다연**  
2011년은 TOP 도전자와 함께 더욱 더 가슴 충만한 대결이 시작됐다.



**2011. 7 이서현**  
"잠깐만요"를 외치더니 직접 생거는 오일을 꺼내 바른 화끈한 그녀와



**2011. 8 사진아**  
살짝 수줍어 하는 표정. 문짓. 미소가 매력적이었던 귀요미.



**2011. 9 이영희**  
압도적인 바디스펙으로 과감한 포즈를 선보인 그녀들의 대결은 계속된다!



그녀들이 직접 올린 셀프 화보를 하드에 소장하고 싶다면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좌측 상단 MISS MAXIM CONTEST을 클릭할 것.



#### 올해가 저를 때까지 계속되는 MISS MAXIM CONTEST!

지금도 MAXIM 홈페이지에는 2011 MISS MAXIM이 되고 싶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당신의 투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화보로 만나고 싶은 그녀에게 한 표를 던져라! 멋진 화보로 보답하라!

2010-2011 MISS MAXIM

# MAXIM BUYER'S EDGE



## 럭키 스트라이크, 드디어 한국 상륙!

지난 140년 간 전 세계 흡연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 럭키 스트라이크가 오리지널 레드 6mg 제품을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럭키 스트라이크는 최고급 담배잎을 엄선해 구운 투스팅 기법으로 진정된 담배의 맛과 향을 자랑한다. 붉은 색 아이폰 포인트로 디자인 된 제품 패키지 또한 럭키 스트라이크의 상징 10월 초 국내 출시 예정. 가격 2,500원

문의 080-787-1000 [www.bskkorea.com](http://www.bsk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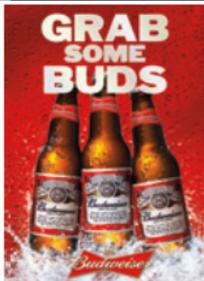
## 판도라의 패셔너블한 블랙박스 라인

BK C&C에서 비비드한 컬러와 앙증맞은 사이즈의 블랙박스를 출시했다. 안전한 대용량 축전기가 보전전원으로 탑재되어 차량 내부 온도가 상승해도 폭발의 위험이 없다. 또한 120km/h 달리는 상태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기록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성능까지 보장한다.

문의 1600-4118 [www.thepandora.co.kr](http://www.thepandora.co.kr)

## 머털, 초경량 다운 자켓 헬리오스 출시

아오모디 브랜드 머털에서 남녀 수비 초경량 다운자켓 헬리오스를 선보인다. 머털 헬리오스는 프리미엄 경량 의류만 사용하는 10데니어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초경량의 무게를 실현했다. 문의 02-516-5611



## 버드와이저,

### 홍대 클럽데이 공식맥주 되다

버드와이저가 홍대 클럽 점수에 나섰다. 글로벌 맥주 버드와이저가 홍대 말뚝 아이언으로 불리는 클럽데이(IrOub day)의 공식 스폰서로 나섰다. 8월 26일 새롭게 부활한 클럽데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1년 간 클럽데이 공식맥주로 지정되어 홍대 말뚝 클럽에서 판매된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버드와이저의 역동적이고 감성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참신한 문화적 경험들을 젊은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 세안제도 트렌드를 타고 클레어스 달랑이 세안제 루마카

Claire's 달랑이 세안제 루마카(LUMACA)는 프랑스 세디마에서 달랑이염색을 100% 추출해 담은 귀여운 달랑이 비누와 약산성 클렌징폼으로 2중 구성된 제품이다. 달랑이염색 성분은 모공과 상처 부위를 침투하여 피부 재생에 능동적으로 작용해 피부의 탄력과 생기를 더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미자차 리저리 안티에이징 로션 등 반거로운 아이템을 내리놓고 간단한 달랑이 세안제 루마카로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 넣자. 문의 [www.clairekorea.com](http://www.clairekorea.com)



## 완전 가벼워진 파나소닉 루믹스 GF3 하이브리드

미운듯이 가능한 8하이브리드 카메라 중 가장 슬림한 물건이다. GF2에 비해 부피는 17% 정도 줄었고 무게는 223g이 줄었다. 원터치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즉시 HD영상을 촬영하는 캠코더로 변신한다. 비디와 14mm 단렌즈로 이루어진 기본 키트의 가격은 79만 9천 원이다. 문의 02-533-8452



## 캐치미(CATCH-ME),

### 홍대이지 헌정 이벤트

감각 있는 여성을 위한 쇼핑을 캐치미가 새롭게 단장하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대이지 가입 시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000포인트를 기본 제공하고 모든 리뷰를 올린 고객에게는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 준다. 무료 배송 쿠폰까지 제공해 실제 혜택은 더 많은 셈. 저렴한 비용으로 여자에게 생색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문의 02-6338-4451

[www.catch-me.co.kr](http://www.catch-me.co.kr)

## LAW FOR ARTIST



젊은 예술가를 위한  
법률지원실

LAW FOR ARTIST?

### 젊은예술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젊은 예술가를 위한 법률지원실'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리걸클리닉 소속의 무료 법률상담단체다.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 중 법률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곳에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각종 계약서 검토, 전속계약 등 부당계약 대응방법, 기타 법률 문제에 관해 궁금하거나 상담을 원하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할 것.

문의 [www.lawforartist.com](http://www.lawforartist.com), [lawforartist.blog.me](http://lawforartist.blog.me), [lawforartist@naver.com](mailto:lawforartist@naver.com)

### ALBA의 액티브 젠트 라인의

#### 신모델 출시!

패션 워치 브랜드 알바에서 F/W 시즌을 맞이하여 그린 컬러 베젤이 돋보이는 액티브 젠트 라인의 신 모델 AF8069를 새롭게 선보인다. 알바 액티브 젠트 AF8069는 고급스러운 그린 컬러 베젤과 다이얼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아예 비례장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다이아몬드 느낌을 준다. 또한 1/20초 단위의 크로노그래프에 타이머와 크라운 기능을 적용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가격 1천 원

문의 02-511-3182

[www.albawatch.co.kr](http://www.albawatch.co.kr)



### 헤이스, 플레그십 스토어 오픈

지난 9월 2일 영국 정통 브랜드 헤이스가 패션의 메카 명동대 플레그십 스토어를 오픈 했다. 지상 5층 500여평 규모로, 현대적인 감성과 트레이디셔널한 스타일을 믹스한 컨셉 스토어로 남성 여성을 비롯해 핸드백, 지갑 등 모든 아이템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1층은 인터리어 소품으로 쓰인 보트 스킨 등물로 실제 영국의 '헤이스 보트 클럽'을 옮긴 듯 하다. 2층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백과 시계 등이 전시되어 향후 헤이스 글로벌라이선 아이템이 전시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3층은 남성, 4층은 여성 제품이 준비되어 있으나 당분간을 위한 부피 고에 방문한 느낌을 받고 싶다면 지체하지 마라. 문의 02-756-1341



### F1 공식 샴페인 엠.

#### 영양 F1 개최기념 'F1 재킷' 출시

샴페인 엠(G.H.MUMMO)이 10월 14일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을 축하하여 엠 샴페인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포츠 엠에디션 F1 재킷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16년 10월, 한정판에 출시된 이번 F1 재킷은 포뮬러 원을 상징하는 스타일리쉬한 소재와 라벨로 디자인되어 특별한 요소들 사이에 특별한 가치를 전달 것으로 기대된다.

### 언더웨어계의 주상식 30cm 출시!

유지하지만 입어보고 싶고, 아까지만 선물하고 싶은 국내 유일의 재킷은 팬티 30cm가 새롭게 탄생했다. 오닐팬티 30cm의 거사를 풀 목표로 진행하고 싶다면 30cm를 입어주자. 폭소를 자아내는 포장은 센스있는 선물로도 제격이다. 가격 15,000원

문의 02-423-8809 [www.30cm.net](http://www.30cm.net)



### 한국타이어, 드림프리트 이벤트 개최

한국타이어가 9월 24, 25일 일광인 세계적인 드림프리트 드라이버 리즈 밀렌과 함께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한국 DGT 챔피언십 참가자 및 관객들을 대상으로 드림프리트 이벤트를 개최한다. 2일에는 다양한 드림프리트 교육이 진행되며 25일에는 DGT 드림프리트 대회 개최와 함께 리즈 밀렌의 싸인화 기증활동, 피로모션 데모인 시연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www.hankooktire.com](http://www.hankooktire.com)



### 오렌지 가득! 볼스원 천연 방향제 '플로리다 리모넨'

치유력 향이 너무 세서 꿀 아보카도 금세 생명이 꺼져가는 초우 같은 방향제만 사뭇다면 바퀴 달린 150g짜리 플로리다 리모넨 1캔에는 플로리다에서 자란 상상만 오렌지 54개의 결집이 들어 있어 은은하게 석 달은 된다. MAXIM 법안원장에도 하나 박았는데 나쁘지 않다. 대형 활안마트에서 살 수 있다. 사무실에 하나 남았는데 QR코드 스캔하는 독자께 넘기겠다.

선착순 1명! 문의 080-500-1479





### 거품으로 세안하자! 시세이도 우노 클렌징 3종

시세이도의 남성용 화장품 브랜드 우노에서 거품의 질을 높여 피부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우노 신 세안제를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번들거림 제거를 위한 '솔타이 블랙 워시 N', 2중류의 모공 세척 스크림을 배한 '스크림 워시 N', 건조한 피부를 위해 보습 성분을 배한 '모이스처 클리어 워시' 3종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여 가을 트러블이던 남자가 되자 문의 080-564-7700



### 가볍고 견고한 루미노스 3152 Steel Colmark(44mm)

2011년 새롭게 선보인 루미노스 3152 Steel Colmark는 미 해군 특수부대의 아간 작전수행용 통해 그 진가를 인정 받은 시계다. 강화 유리섬유(Fiberglass)와 스티어리스 스틸 케이스를 사용해 견고하며 200m 방수는 물론 모든 루미노스의 시계에 적용되는 루미노스 발광 테크놀로지에 칠패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도의 동력 없이 빛을 25년간 유지한다. 케이스 내부에는 정교한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가 자리잡고 있다. 가격 62만 원 문의 02-757-9866 www.luminowatch.co.kr

### 하이커, 아상 베스트 출시

어반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 하이커에서 가을 시즌을 맞아 아상 베스트를 출시했다. 남녀 공용 디자인에 질 부분에는 달리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허리 부분 스트라이프 컬러가 있어 스타일 변화가 가능하다. 컬러는 카키, 화이트, 블랙, 그레이 등으로 코디하기 좋다. 가격 149,000원

www.codes-combine.co.kr



### ORIS, 재즈에 빠지다

오리시스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공식 스폰서로 재즈페스티벌을 후원한다. 오리시스의 재즈에 대한 열정은 1996년 영국 색소폰 연주자인 엔디 세퍼드에게 헌정한 시계부터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 헌정된 시계를 출시한 2010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게 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 오리시스와 함께 자유가 넘실대는 재즈 페스티벌을 즐겨 보자.

문의 02-757-9866  
www.milimwatch.co.kr

### 모바도의 유저엄 클래식 레드 라벨

스위스 영동시계 브랜드 모바도에서 유저엄 클래식 디자인의 레드 라벨 시리즈로 이번 가을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블랙 유저엄 다이얼과 블랙 아이 가죽밴드로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유저엄 클래식 레드 라벨은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단상의 품격을 높여준다.

문의 02-2190-7020

www.thewatches.co.kr, www.romansonshop.



### 락포트의 감성 슈츠 스타일드 사이드

락포트에서 브리쉬 스타일의 드레스 캐주얼 슈츠 스타일드 사이드를 선보인다. 워싱 소재에 가을 분위기를 느껴지는 브라운, 그레이 컬러를 채택하였다. 매끈한 라스트구 두 가본 블과 절제된 길게 라인으로 세련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02-2635-7729

www.rockportkorea.com

### 지포(Zippo) 배틀 오브 밴드 기념 스페셜 에디션 라이더

지포는 2011년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머터 록 밴드를 찾는 경연대회인 배틀 오브 밴드를 개최해 지난 8월 25일 최종 결승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파블레 공연에는 '국가스텐'과 '결핵시 악스프레스'가 축하공연 무대를 선사했으며, '비야비 밴드'엔 밴드가 최종 우승을 차지해 상금 4백만 원을 전달 받았다. 지포는 배틀 오브 밴드를 기념해 제작된 스페셜 에디션 방울 라이더 10개를 MAXIM 독자들에게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www.zippo.co.kr



### 임페리얼, 12·17 리뉴얼 출시

페르노리카 코리어대표 겸 마누엘 스프리에가 스키치 위스키 임페리얼을 새롭게 리뉴얼했다. 리뉴얼 제품은 '임페리얼 클래식 12(350mL·500mL)'와 '임페리얼 17(330mL·450mL)'종으로, 국내 위스키 음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과 향의 부드러운 향이 중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종이 라벨 대신 투명 라벨을 이용하여 동 세련된 디자인 리뉴얼도 눈길을 끈다.

임페리얼 클래식 12는 500ml 기준 24,915원, 임페리얼 17은 450ml 기준 37,906원이다.

# MAXIM 100호 발행기념 최고의 MAXIM 독자를 찾아라!

## 파나소닉최신형망수캠코더 10개 증정



에디터보다 더 MAXIM에 빠삭한 최고의 독자를 찾는다! 만약 아래의 빈 칸을 다 채운다면 하이브리드 캠코더 HX-WA10의 주인이 될 거다! 아오, 진짜 나도 갖고 싶다! ILLUSTRATION: 정영호

1	25
2	26
3	27
4	28
5	29
6	30
7	31
8	32
9	33 <small>33년 10월호 / 에디터의 말</small>
10	34
11	35
12	36
13	37
14	38
15	39
16	40
17	41
18	42
19	43
20	44
21	45
22	46
23	47
24	48

49	52	55	58
50	53	56	59
51	54	57	

MAXIM이 드디어 100호 발행의 위업을 달성했다! 일등 공신은 바로 그대, 열렬독자다. 9년 동안 100호에 이르는 MAXIM을 탐독하며 에디터보다 더 빠삭하게 MAXIM을 꿰고있는 찬정환 MAXIM Holic을 찾는다! 100호 표지의 그림은 그간 MAXIM과 함께 작업한 국내의 스타들이다. 그림만 보고 빈칸을 모두 정답으로 채워라. 최고의 MAXIM 독자를 가르는 승부인 만큼 결코 쉽지 않을 거다. 당신의 눈별미가 빛을 발하길 바란다.



■ **문제:**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이름과 등장했던 월호를 써 넣어라.

(정답자가 없으면 가장 정답을 많이 맞춘 독자 순서대로 선물이 돌아간다)

■ **응모방법:** 본 페이지를 정산에 따라 오려서 **우편으로** MAXIM 편집부에 보내라. 이메일은 받지 않는다. 좀 레트로하지?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빌딩 4층 편집부

■ **응모기간:** 2011. 9. 21 ~ 2011. 10. 15

1. PANASONIC 최신형 하이브리드 망수 캠코더 HX-WA10 (선착순 10명)
2. 2012년 MAXIM KOREA 정기공채 1차 서류전형 면제 (선착순 10명 이후 정답자/ 2011년 12월에 공채 예정)

■ **당첨자 발표:** MAXIM 11월호에 정답과 함께 당첨자 발표.

100TH MAXIM KOREA SPECIAL  
THE HOTTEST USE OF PAPER IN MAGAZINE HISTORY

# 100th MAXIM KOREA

## 100 MAXIM KOREA

드디어 100번째 MAXIM 한국판이 나왔다.  
모든 것은 독자 여러분 덕분이다. 진심이다!

## 100% REAL GUYS

MAXIMO 1등 남성 잡지 타이틀을 굳히기 할 수 있는 데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진짜 사나이들의 공이 컸다.  
그동안 MAXIMO 만나 인터뷰 한 멋진 형님들이 내린 '진짜 남자의 조건'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면 참 새롭고 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으리.

## 100% PERFECT LADIES

지금껏 독자의 안구를 호강시켜 준 MAXIM 화보 속 미녀 중 절정의 70인을 한자리에 모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주 최고의 미녀들 중  
당신의 심정을 가장 세게 두드린 그녀는 누구일까? 곳곳에 숨은 사진 퀴즈는 보너스!



**66호, 97호**

달인 김병만

남자라면 **당 글루텐 반담** 발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필요할니까?

남자라면 **관장 볼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이 되면 밥이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27호 이승철**

남자라면 여자가, 언제나 중요하지  
물론 난 음악이 먼저지만 말이다.



**94호 제이킴현할**

남자라면 MAXIM을 읽어라.

꼭 읽어라 신사적으로 행동  
하는 건 당연한 거고.

**17호 DJ DOC**

남자라면 **쿨하게 살아라**.  
우리 계약서에 X같은 게 있으면  
그냥 찢는다.

# 19인의 형님이 말하는 진짜 사나이

남자라면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90호 김태원**

일부러 몸을 내는 건 아니다. 목을 하는

남자라면 그 자세에서 몸이 나는 거다.

**96호 이병준**

남자라면 **욕할 때**도 있지.

문전 중에 '이런 X발' 을 외치지 않는

남자가 있던가?



**39호 임하룡**

남자라면 **장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기 싫은 일은

곧 죽어도 못해 먹는 거다.



**85호 류현진**

남자라면 **까라면 까라**.

국대로 뽐하면

군말 없이 나가고



### 83호 안성기

남자라면 냉정하고 고집스럽기도 해야지.  
그 덕에 내가 지금껏 영화관에 남아 있는 거다.



17호 정준하 남자라면 **정통 코미디**다. 그리고 나는

정통 코미디에 제격인 사람이고

10호 아놀드 남자라면 **아래는 일 따윈 없다.**

슈워제네거 X빠지게 일하고, 하루 1달러 받는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 노동자를  
생각해라. 녀석야!

4호 류승환 남자라면 **살면서 변할 줄도 몰라야지.**

언제까지 싫없이 제자리에 머물래?

### 100호 신민식 남자라면 당연히 **침이재!**



### 91호 윤종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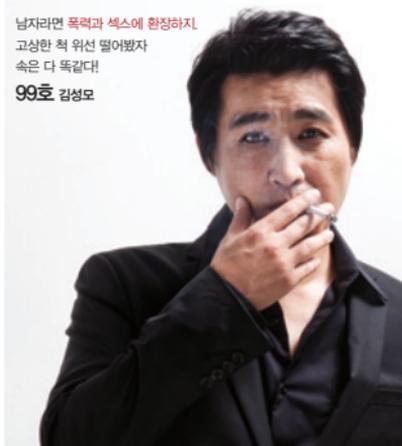
남자라면 **현실적으로 살아라.**  
가난하면 예술이고 나팔이고 무슨 소용이야.



- 21호 탁재훈 남자라면 **승부욕은 필수**입니다.  
실패한다고 포기하면 이미 글러 먹었어.
- 1호 에이မ် 남자라면 **결혼 따윈 싫어**시워라.  
결혼 따위는 두 번 다시 할 게 못 된다. 내가 해봐서 안다.
- 27호 노홍철 남자라면 **재미난 게 최고**대! 방송도, 여자도 재미나야 즐긴다.

남자라면 **폭력과 섹스에 함정**하지  
고상한 척 위선 떨어자  
속은 다 똑같대!

### 99호 김성모



### 36호, 88호 타이거 JK

남자라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동부**터 물어버려야 한다.

남자라면 **연습 X나 하면 목종** 뽑을 할 수 있다.

재능 있는 **농부**단 못하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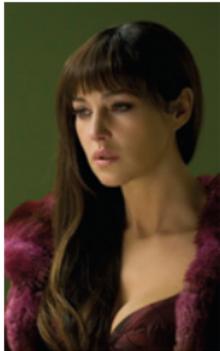
# MAXIM이 만난 우주 최고의 여자 70

지난 8년 4개월 동안 MAXIM 독자의 심장을 초당 30회 이상 뛰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매력의 여인들을 소개한다. 오늘 당신의 인구는 인생 최고의 호사를 누리게 될 거다.



## ▲ 32호 서민영

표지 촬영 당시 "노출에 거부감이 없다. 보여줄 때는 보여주는 게 언 예인이다" 라는 프로다운 멘트를 그녀가 날리는 순간 MAXIM은 그녀가 스타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열리 시절 등에서 빠리 취급을 당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던 그녀는 결국 MBC의 <우리 결혼 했어요>를 발판 삼아 톱스타로 거듭났다.



## ▲ 7호

### Monica Bellucci

남편이자 영화배우 병상 카셀을 개격가로 만듦을 버린 이탈리아 최고의 미녀 (일레나)를 필두로 궁극적인 유럽과 할리우드 영화에서 여왕 포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녀가 한국판 MAXIM 표지도 장식했다. 여왕 벨 스타일을 실어하는 수컷조차도 그녀에게 폭 빠지고 말았지.



## ▲ 8호 조아민

맑고 단아한 모습이 매력적인 그녀는 지난해 MBC 드라마 <글로리아>에서 착하다 착한 부잣집 아가씨로 출연해 못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보석 비밀>에서 만난 여섯 살 연상의 수컷과 열애 중이란 사실을 발표해 절망감을 안겨줬다. 이런 쟁쟁 해맑게 웃는 그녀 때문에 지른 MAXIM 8호는 아깝...

## 85호 임주희 ▼

드라마 <나쁜 남자>에서 지금 군대에서 고생 중인 감남길을 유혹하는 불어시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만난 그녀는 무척 유쾌하고 강단 있었다. "자신은 불의를 못 참는다"며 "내 라이벌은 <황산의 카뎀>에 함께 출연한 한예슬"이라고 잘라 말하던 그녀. 그 아깝한 몸매에 MAXIM 독자들은 하마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 83호

### 시크릿

마성의 후크송으로 순식간에 아이돌 1군에 합류했다. 꿀벅지를 장착한 잇몸 천사 전효성, 밝은 백치미 넘치는 미소녀 한선화, 하늘하늘함이 매력인 송지은, KFC를 연상시키는 징거까지 멤버 개개인의 매력도 발군. 그녀들은 "초대형 장난감과 함께 한 MAXIM 화보 촬영이 너무 즐거웠다"며 "음악방송에서 2번 1위 하면 휴대폰 제한이 풀리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1위에 대한 불꽃 의지를 드러냈다. 이전 그녀들도 휴대폰이 생겼었지?



## 84호

제이제이

제2의 이효리를 꿈꾸는 올해 5년차 댄스 가수. 화끈한 댄스 실력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훈련의 대가로 얻은 복근과, 풀이 잔뜩 들어간 해박지가 귀부담 없이 입을 즐기라는 의미에서 '저스트 조이(JJ)' 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그녀는 MAXIM에 "노래뿐 아니라 연기에도 욕심이 있으니 조만간 시트콤부터 도전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니 언젠간 부약 될 거야. 그렇지?

### 37호 전애티

강호동이 진행한 <천생연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은 그녀가 MAXIM을 만났을 때는 아직 여고생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듯 내기였다. "이제는 어린 역할을 벗어날기 위해 해사하고 외모지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웃음만 난다.



### 75호 장기은

남자들이 원하는 '8등신 송혜교'의 꿈이 현실이 되었으니 인기가 없으면 이상할 일이다. MAXIM 화보를 본 수컷의 반응도 한결 같았다. 하지만 사투리가 걸쭉한 이 경성도 아가씨 결코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으니 MAXIM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배워 붙일 땐 문을 연 친구에게 발차기로 차이를 날려 버린 적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한부모 저근덕거렸다 큰 큰 도 칠 거 안 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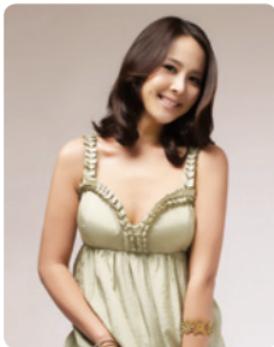


Image: 장기은 김세민 촬영. 장기은(KTV) 사진: 정은미



### 86호 김비연예인

2005년에 데뷔한 중견(?)가자 히트곡 제조기인 김비연예인의 이름에는 가요계의 여왕이 되었다는 그녀들의 당찬 다짐이 녹아 있다. MAXIM과의 화보 촬영의 처음이었다는 그녀들은 "소속사 대표님이 작곡가라서 비슷한 스타일의 슬픈 타이틀 곡을 가질 할 수 없는 건 아쉽다"며 밝은 노래를 부르곤 욕구를 MAXIME에 살짝 털어 놓았다. 까투리 타령이라고 함께 불러주려.



### 15호 조여정

조여정의 첫과 꿈이 흘러 넘치는 미모를 MAXIM은 놓치지 않았다.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영입될 당시 무한 반복된 송일타 월의 광고 모델로 인지도를 올리기 시작하다니 2010년 개봉 영화 <빙자관>에서 포탄살을 티드했다. 화려한 떡매질 장면에서 출렁이는 가슴은 역시 MAXIM의 예상대로였다.



### 87호 Kelly Brook

MAXIM과의 인터뷰에서 "공식한 가슴을 찬양하는 네 명의 연예인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내 가슴을 더기 위해 광고판을 두 배 크게 제작해야 했다"며 자랑했다. 3D 영화 <피라냐>에 출연한 그녀는 3D로 출연하는 가슴의 위대함을 마음껏 선보였다. 오랜



### 시크릿 멤버 누구의 입술?



# 88호

홍수현

자신의 시상식 드레스 사진을 보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놀라는 그녀지만 사극에선 톱스타 부럽  
지 않은 여배우다. 게다가 이번 사극  
(공주의 남자)에서는 데뷔 10년 만에  
주연을 꿰차고 맹활약 중이다. 고양이  
처럼 앙칼진 얼굴이 매력 포인트인 그  
녀는, 그녀만큼 예쁜 고양이와 함께 한  
MAXIM과의 화보 촬영이 끝난 후 이렇  
게 말했다.

"MAXIM은 한마디로 호기심이다."





# 85호

## 제이

MAXIM 화보에서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인 그녀는 올해 정규 음반 (슈퍼스타)로 오랜 공백을 깨고 가수로서 컴백하는데 성공했다. 진짜 R&B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녀는 최근 UV의 유희와 작업한 (악몽)이라는 독특한 싱글 음반을 내놓았다. 이상형은 꽃미남 따위가 아닌, 남자다운 이소플라이지?

### 66호 한영 ▶

LPG에서 제일 잘 나가던 그녀 청교로 MAXIM 66호는 최단신 출연자 김병만과 최장신 여자 한영을 동시에 출연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 ▲ 67호 구지성

레이싱 모델의 애이스가 MAXIM과 만나 코스프레 특징을 연출하였으니 그 파급력이 실로 놀라운데! 시원시원한 노출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육박감과 귀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니걸이 실존할 줄이야.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감당치 못하여 풀어헤친 셔츠는 수컷의 뿔뿔이가 하늘을 향해 차츰도둑 만들었다. 최근에는 <구지성의 나쁜 남자>라는 디지털 싱글 음반을 발매하면서 가수로도 활동 중이다.

# 87호

## 이해인

《블러코스터》의 첩녀로 출연해 "악"을 연발하며 수줍을 패닉 상태에 몰아넣었던 꽃사슴녀가 MAXIM을 방문했다.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 인지도에선 자신이 이해인 수색량을 뛰어넘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MAXIM은 남자의 로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영된 종석 특집 프로그램 《스타 애정론》에서 열한아스텍을 자랑하는 김우주, 이나은사와 더불어 맺어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역시 여자는 예쁘고 좋아...





▶ **27호** 장희진

잡지는 물론 CF에서 연타석 돌린까지 터뜨린 장희진이 기세를 이어 연기에 도전할 무렵 MAXIM을 만났다. "부모님이 팔다리를 주물러 준 덕분에 키는 길지만, 살이 안 찌서 고민"이라는 광의 도발로 현장의 여자 스태프를 흥분케 했다.



▶ **89호** 임정희

미국 진출은 실패했지만 가수로서의 역량은 여전히拔群인 스트리트 디바. M의 《오페라스타》, KBS의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며 실력 검증과 인지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 **73호** 한채아

손호영의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그녀는 귀여운 얼굴과 늘씬한 몸매, 도자기 피부가 매력 포인트! 이상형을 묻는 MAXIM의 질문에 "운동 신경 없는 남자는 매력 없다" 라고 답해 음주가무가 낙인 MAXIM 현장 스태프를 절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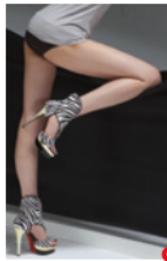
▶ **84호** Arianny Celeste

UFC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러운 이유는 단 하나. 군살 따위 찾아볼 수 없고, 볼륨감은 훌리 넘치는 뜨거운 육라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티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다. MAXIM 84호에 출연한 그녀는 풀밭에 앉아 있긴한 해도 화보였다. 저 사이가 천국이구나!



# QUIZ

▶ ▶ 누구 다리일까?



# 92호

송지선, 김민아

파격적인 모습으로의 변신은 물론, 모델  
못지 않은 포스를 뽐내며 화보 촬영 현장을  
열광의 도가니탕으로 만들었던 두 미  
녀 아나운서 "누구보다 야구를 사랑하는  
자신의 꿈은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것"  
이라고 말했던 송지선 아나운서의 해방  
은 미소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  
까울 뿐이다.



# 90호

## 황우슬혜

MAXIM을 "아하지 않은 세시템" 이라고 답한 그녀는 알고 보면 오디션의 절대 강자다. 그녀는 "지금까지 오디션 결과는 물론, 심지어 배역을 따지 못한 영화도 오디션 결과는 1위였다"고 말했다. 중성적인 목소리,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돋보이는 예쁜 얼굴.. 당연한 결과잖아?





## 91호

### 이슬아

바둑 열광이자 아시안 게임 바둑 금메달리스트, "사진은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찍으면 그만일 뿐"이라며 카메라 앞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이슬아는 머리에 침을 맞으며 바둑을 두는 모습으로 더욱 화제를 모았다. 아쉽게도 MBC의 <댄싱 위드 더 스타>에 출연했지만 부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첫 회에 광속 탈락했다. 아프지 마!



### ▲ 63호 김민서

내 영명은 탕글탱글하고, 복숭아처럼 뽀얗고 깨서갈 마음에도 든다" 라는 답변으로 MAXIM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물한 그녀는 자신의 목표가 연기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꾸준히 연기 활동에 매진한 그녀는 마침내 2010년 영화 《여자를 보았다》에서 자신의 매력을 활용한 섹스신을 선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대박을 보았다.



### 3호 Christina Aguilera ▶

MAXIM과의 화보 촬영이 끝난 후 "나의 진짜 섹시한 모습을 실컷 보여줄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섹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섹시한 여자가 등장하는 MAXIM이 남자들이 발가벗고 나오는 걸지 따위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의견에 우리는 절대 동의한다.

### ◀ 13호 시크라

틀라 이상인지 키워낸 유일한(?) 여성 그룹이다. 카레 냄새 풍기는 음악과 퍼포먼스인 인기를 얻어 MAXIM 표지를 장식했지만 흥행하지는 못했다. 해체 후 일일한 이미지의 홍보는 예능에서 활약했고, 특별한 눈에 띄지 않던 리얼리티 배우로 전직해 성공하는 기쁨을 토했다.



### ▲ 14호 백지영

MAXIM은 백지영이 재기할 거라 믿었다. 그녀는 너무 아까운 가수였다. 달라진 게 있다면 MAXIM 표지를 장식할 때는 댄스 가수였지만, 이제는 시련을 극복하여 얻은 행운을 무기로 O.S.T. 권으로 거듭났던 사실! 최근 아홉 남자친구를 득행했다. 누나, 우리도 키워주세요!



### ◀ 29호 조안

MAXIM과 생뿔을 이루는 스타 등용문 (여고괴담3)로 데뷔했다. 예쁜 여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AXIM이 그녀를 표지로 선정한 건 연기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배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잘생기면 돌싱이라도 상관 없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이라도 하듯 배우 오만석과 열애 중인 사실을 알았으니 이 모든 건 취소사!

### ▼ 18호 오윤아

MAXIM이 만난 오윤아는 텔런트 데뷔 직전의 파춌파춌한 신인이었다. 촬영 중 "일반인으로서 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최대한 누리겠다"던 그녀는 "비운처럼 섹시함과 카리스마, 춤과 가창력을 모두 갖춘 스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비록 한국의 비운세가 되진 못했지만, 《올드미스 다이아라》, 《연애시대》를 거쳐 레이스 모델이라는 꼬리표를 날려버린 최초의 연기자 배우로 거듭났다.



## QUIZ

### ▶▶ 누구 그림자일까?





▲ 0호 한예숙

슈퍼모델 김예숙이라는 이름의 슈퍼모델로 활동할 무렵 이미 MAXIM은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청순한 줄리엣과 색다른 여유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드는 아누네가 어디 혼한가? 창간 준비호에 대놓고 이 여자를 주목하려고 되지는 MAXIM의 선택



▲ 61호 김새롬

데뷔 당시 귀여운 얼굴에 균형 흐르는 몸매로 한영의 뒤를 이을 방송인으로 주목 받았다. 스산함을 많이 하는 남자가 이상형이지만 악플에 분노해 컴퓨터를 박살낼 정도로 한 성립하는 여자다.

▼ 38호 황정음

MAXIM 커버를 장식할 즈음 그녀는 아이돌 그룹 슈가를 집고 한창 인기 수일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핏을 내어 찍은 복고 풍 색시 화보로 모바일 접속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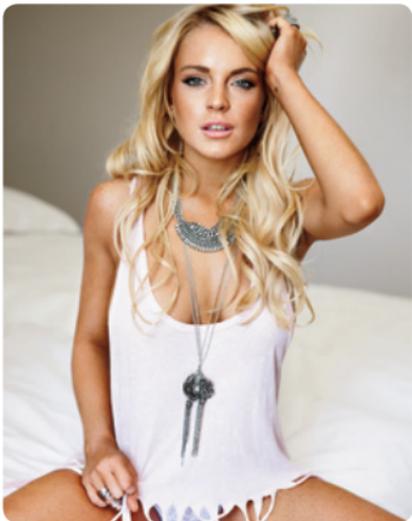
◀ 25호 이유리

상큼함으로 따지자면 MAXIM 표지모델 중 수위를 다룬다. 예쁜 얼굴에 앙갚진 악역도 완벽히 소화할 만큼 인기도 잘해 MAXIM 커버 모델 중 가장 인기 절정의 여인이었다. 하지만 2010년 연상의 신하도와 결혼하면서 사랑심 깊은 아줌마로 전직



36호 미유정 ▶

'포스트 심은하' 라고 불리며 한창 인기를 모을 때 MAXIM은 그녀를 포획했다. "하리가 잘록하지 않은데다 일지라 컴플렉스다" 라고 불평했던 그녀가 (스페셜 K)의 광고 모델로 맹활약 중인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 88호 Lindsay Lohan

MAXIM과의 즐거운 촬영이 끝난 며칠 후, 그녀는 법정에 출두했다. 법정에서 린지 로한은 감옥과 재활 치료 센터에서 90일을 보낼 것을 선고 받았다. 재활 치료원과 법원을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그녀지만 2010년 개봉한 89 영화의 최고급 (비티)에서 일 수 있을 위태로움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배우는 없다.

# 96호

##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 걸스는 한 해 저작권료만 100억  
대인 용감한 형제가 내놓은 걸그룹이다.

"앞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원더  
걸스 같은 국민 걸그룹이 되는 게 목표"  
라고 밝힌 브레이브 걸스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리더 은영! 걸그룹에서 보기  
힘든 가랑리에 운동으로 만든 근육의 칼  
질, 여기에 아찔한 섹슈얼리티까지 더했다. 더 이  
상의 실명이 필요한가?







# 95호

## 걸스데이

MAXIM 출연 두 번째만에 표지 모델 자리를 꿰찬 완전 소중한 걸그룹 걸스데이! 그녀들은 "자신들의 숨은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평생 지켜봐야 할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당돌하지만 그 모습까지 감춰왔다. 배민 보컬이자 눈웃음 덩당 민아, 공대 아들이 소진, 각선미 제왕 유라, 연기까지 도전하는 지혜, 귀염구염 열매를 먹은 헤리까지 누구 하나 안 소중한 멤버가 없다. 그냥 한미디만 하자. "한 번만 안아줘요" 일본 활동도 완수하시길!



▶▶ 누구 가슴??



# 96호

## 라니아

방송에서만뿐 아니라 최근 퍼포먼스로 촬영현장에 있던 MAXIM 스테프를 추곤 달아오르게 만든 라니아는 최근 전역 후 왕성한 활동 중인 불의 '라니아 파업은 군동령' 드림으로 화제를 모았다. 아시아 아이돌의 부활을 외치는 걸그룹답게 인적 구성도 다양하고 실력도 좋다. 화끈한 맛에 가량려 퍼포먼스는 걸 그룹 중 만렙





▲ 93호 **Avril Lavigne**

세상에서 가장 핫한 돌싱 에이브릴 라빈과 MAXIM은 벌써 세 번째 만남이다. 그녀는 "블랙스타" 라는 별명답게 짜라시 매체의 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의 색깔이 묻어나는 음악을 추구한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여자를 sexy하게 만든다" 고 얘기하는 그녀는 올해 우리나라에 내한해 인사동에서 판매하는 "리먼그림 앙팡" 을 질러 화제를 모았다.

65호 **쥬얼리**

하주연, 김주연을 영입한 쥬얼리가 MAXIM 표지 화보에서 유럽의 카바레 여가수로 변신해 세시한 매력을 과시했다. 박정아, 서인영 두 가지 버전으로 표지가 제작됐다.



◀ 59호 **솔비**

그녀가 타이퐁이라는 혼성그룹 멤버였던 걸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타이퐁 남자 멤버를 병풍처럼 세워놓고 진행된 MAXIM 화보에서 그녀는 고려대학교 행사에서 '고연진' 이 아니라 '연고진' 이라고 말해 곤욕을 치른 사건을 털어 놓았다. 비호감 캐릭터를 연기했다가 진짜 비호감이 되면 곤란해

72호 **이재정**

MAXIM 화보에서 증명된,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가 매력적인 그녀는 처분한 얼굴과 달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먼저 고백하는 솔직녀다. <천추태후>, <전우>를 비롯해 선이 굵은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여성스러운 연기도 꽤나 잘하는 편. 최근 류승룡, 류덕환이 소속된 "필름 잇수다" 와 전속 계약했다.

▼ 16호 **류원정**

<빙자전>에서 조여정을 기억에서 지워버릴 만큼 어메이징한 베드신으로 이름 석 자를 널리 알린 향단이 류원정 역시 MAXIM의 리더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가 뽑은 "내가 좋아하는 그녀보다 더 멋있지?" 라는 대사는 <연애의 목적>에서 박해일의 "5호만 넣을게" 와 생백을 이룰 정도며, 감칠맛은 가히 일품이다.



**QUIZ**  
▶▶ 누구일까??

# 98호

## 장미인애

그녀는 도도함과 새침함 따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촬영현장에서 MAXIM 스타 프를 챙길 만큼 따뜻했고, 결혼할 상대가 생긴다면 MAXIM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기로 약속할 만큼 털털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역할보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배우 장미인애를 조만간 만나길 기대한다.





## 94호 차유람

MAXIMO 여자 스포츠 스타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건 그녀들의 파격적인 모습보다 그 강한 정신력과 프로다운 성숙함 때문이다.고 말하면 안 될것지.그래 맞아. '당구계의 알짱' 차유람의 섹시한 모습은 우릴 감동시켰다. 매일 매일 꾸준함을 넘어서 독종이란 별명까지 얻을 만큼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매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든다. 그녀의 섹시한 모습이 금금하다면 MAXIM 94호를 펼치도록!

# 97호

## 한혜린

〈신기생단〉의 '금리라' 역으로 수많은 수컷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 그녀는 MAXIM 독자를 위해 활을 신고 실새없이 점프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몽벨이 선사하는 극한의 달콤함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그녀는 〈강심장〉에서 화려한 댄스를 선보였고, 뭇 남성의 가슴팍에 '한혜린'이란 이름 석자를 남기는 데 성공했다.





◀ 83호 Kaley Cuoco

MAXIM이 미드 <백앵이혼>의 팬들과 수많은 공동 덕후를 위해 그녀를 소개했다.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은 그녀의 역시 어제 화보는 수많은 덕후에게 촉박이었다.



41호 신애 ▶

'한국식 클래미'라는 수식어와 함께 신애가 MAXIM 표지를 장식했다. 이 풍성함을 보라.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할 수 밖에 없다.

▼ 09호 미녀 삼총사

이것이 MAXIM 스키퀘이다. 육박진 아가씨가 좋다면 드루 베리모어, 쪽쪽 땀방이 좋다면 카메론 디아즈, 그래도 동양인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루시 리우 아, 이것 참 눈이 호사를 누리는 구나!



▲ 02호 하지원

드라마에서는 거칠 것이 없지만 영화 앞에서는 유독 작아지는 하지원 역시 MAXIM 화보를 거쳐간 여배우다. 이때만 해도 그녀가 근육질 여전사의 연기를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톱스타로 성장할지 역시 아무도 몰랐다. 아, MAXIM만 빼고!



QUIZ

▶▶ 이 바바리맨은 누구??





# 93호

**미료 & 제아**

어려운 노래도 브라운이 소화하면  
 접근하기 편한 음악이 된다. 열심히  
 해서 후배들이 받팔고 싶어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는 그녀들은 다른  
 두 멤버보다 더 배말에 싸여있었지  
 만 MAXIM은 그 배말을 벗기고 말  
 았다. 그 안에는 성숙한 색시함과  
 캄캄함이 공존하는 두 여인이 있었  
 다. 진짜 할 걸 그랬어!



# 97호

**나르샤**

브라운아이드 걸스가 아닌 나르샤로 활동하는  
 건 외롭고, 강당해야 할 일도 많지만 모든 걸  
 혼자서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솔직하고 당당함으로 성인들이란 별명  
 을 얻으며 (청춘불패)를 비롯해 큰 인기를 얻  
 었다. 날아라, 나르샤!

## 26호 정시애 ▶

〈삼류의 요정에서 공주 캐리티로 등장한 그녀를 MAXIM이 포착했다. 여자들이야 욕을 하든 말든 수컷은 예쁘면 정명이다. 이후 〈여걸식스〉, 〈무한걸스〉에서 콘수 캐리티로 변신하면서 주가를 올리더니 MAXIM에서 그녀를 다급급 표지 모델로 섭외하려던 찰나 백유식 아저씨의 아들다 사들려 결혼식을 올린다. 조금만 기다리지 거 참...급하겐



## ▶ 79호 주희

MAXIM 화보에서 운동으로 다져진 절친 몸매를 마음껏 드러냈다. 혼성그룹 예이트의 여자 멤버로 노래 실력은 우리나라 최고, 하지만 인지도는 어지간한 걸그룹의 멤버보다 떨어지는 게 안타깝다. 최근 〈불후의 명곡2〉에 합류가 결정되었으니 실력에 걸맞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팅!



## 19호 한혜진 ▶

실뽀이 예쁘기로 유명한 한혜진 역시 MAXIM 표지를 빛낸 여배우다. 물론 이때는 나일의 여자친구가 아닌, 만인의 연인인 좋은 시절이었지. 그녀자나 이런 미인이 그곳 노래 좀 하는 백백의 여자 친구라... 오늘부터 노래 연습 고고상이다.



## ▶ 89호 Anna Kournikova

섹시 스포츠 스타를 뽑을 때면 언제나 상위권은 그녀 차지했다. 운동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근육이 일일이 찬 섹시한 몸매를 그만큼 매력적이다. 이번 MAXIM의 촬영은 그녀가 미국 시애틀로 변신한 후 첫 만남이었다. 본격적으로 미군위문단 활동에 헌신하며 모든 군의 실아 있는 MAXIM이 된 그녀는 “나는 결코 러시아 미녀 스파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 ▶ 이 손은 누구??





▲ 98호 Rosie Huntington-Whiteley

로지 헌팅턴은 2011년 MAXIMI 선정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여인 100명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인 그녀는 <트랜스포머>의 히로인 메간 폭스를 물리칠 만큼 압도적인 보디 스펙을 자랑한다. 망자의 스웨이 가득한 <트랜스포머 3>에서 유일한 볼거리이자 위안 거리는 MAXIM 표지 모델 로지 헌팅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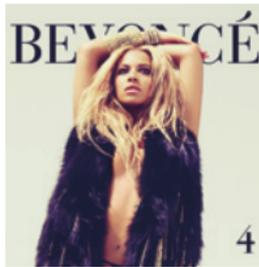


◀ 83호 감메빈

적절한 예교와 아찔한 가슴을 무기로 무차별로 공격을 하는 그녀에게 수컷의 정신이 흩어진다. 그녀는 이미 MAXIM 독자를 초토화시킨 전례가 있다. 남자라면 자절로 반응하게 되는 미약 몸매의 예교녀!

0호 Beyonce ▶

당시 간성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육박진 허벅지로 수컷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격하게 만들었다. 아참, 애 뱀다며? 축하해.



▲ 87호 유인나

MAXIM의 안목은 정확했다. <거침없이 하이킥>의 진짜 주인공은 유인나였다. 청순한 얼굴과 클래식하면서도 품매를 장악한 이 청순 클래식머의 인기를 능가할 사람은 당분간 찾기 어려울 거다.



## 99호 메이비

이효리의 '텐마넷'의 작사가이자 가수, (메이비의 불륜을 놓여라)의 인기 DJ, 여기에 연기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필방미인 메이비가 그 동안 숨겨왔던 색시미를 MAXIM에서 마음껏 뽐냈다. 그녀는 최근 디지털 싱글 음반 <굿바이 발렌타인>으로 3년 만에 가수로 컴백했다. 어정쩡한 솔로 여자 가수들은 간장하는 게 좋을 거다.



### ▲ 76호 이시영

이제 복싱 선수로 불려야 할 것 같다고? 무슨 소리! 그녀가 (꽃보다 남자 출연 당시 촬영한 MAXIM 표지 회보를 찾아보도록!) 그녀가 얼마나 여성스럽고, 아름다운지 알게 될 거다. 이런 여자가 건담을 좋아하고, 복싱을 잘하니 인기가 대폭발하는 거다.



### ▲ 96호

Michelle Christine Trachtenberg

고양이 같은 매력을 지닌 여배우 미셸 트라첸버그는 (가십잡의 익녀로 등장에 인기를 끌었다. 그녀가 누구인 줄 모른다고? 상관없다. 끝내주는 가슴과 엉덩이 외 절묘한 곡선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다.

### 49호 이유미 ▶

걸그룹 슈가의 예이스로 수컷에게 귀여움을 어필했던 이유미 역시 MAXIM에서 요염한 모습을 선보였다. '영망이가 예쁜 나 같은 여자...' 라는 가사처럼 꽤나 잘 빠진 몸매를 자랑했다. 지금은 본진으로 넘어가 아이코닉이란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 ▲ 60호 Megan Fox

(트랜스포머)의 레일 여신 메간 폭스 역시 MAXIM에 등장했다. 그 로봇 영화에 수많은 수컷들이 열광한 건 '자동차의 본네트를 이렇게 색사하게 열 수 있구나' 를 몸소 알려준 그녀 덕분이다. 차지만 봐도 수컷의 톨들이 아우성치는 섹시 폭탄!



### ◀ 35호 김어린

슈퍼모델 출신답게 몸은 이미 서양인다. 하지만 성격은 보기와 달리 동양적이라고. 남자들이 찾는 이상형 아-던-개-활영 당시 스태프들을 그녀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신이 내린 몸매구만!"

### 46호 최진

사람의 관심을 받는 걸 즐기다 보니 자연스레 연예인이 됐다든 그녀는 "섹시한 이미지와 달리 평소에는 완벽한 집순이" 라고 MAXIM에 게 털어 놓았다. 중국에서 음반 (덜 좋은 가작을 발매하고 열심히 활동 중이다.



# QUIZ



## ▶▶ 시크릿 입술 퀴즈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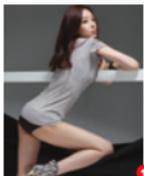


3



4

## ▶▶ 누구 다리일까?



1



2

## ▶▶ 누구 그림자일까?



## ▶▶ 누구 가슴?

## ▶▶ 나는 누구?



## ▶▶ 바바리맨은 누구?



## ▶▶ 이 손은 누구?



# 98호

## 나인 뮤지스

인형보다 더 인형같이 아름다운 그녀들이 MAXM 화보에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마리오네트로 변신했다. 남자라면 그녀들을 본 순간 그녀들의 매력에 빠져 헤어날 수 없지 요즘 인기도 최절정



그녀들의 축하  
메시지 감상



#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맥이 생긴대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THANK YOU!



겨울 때 가져와라!

## GIFT LIST

언더웨어 30cm by 반영/우호 롬 콜라짐/넥츠플러스 BB 크림/TASK 액티브 모이스춰/자모 라이더 스페셜 에디션/무카가 클레어스 당영이 세안제/연극 블루루 티즈/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티켓/반디가 프라모 열/슬라가드 체합물/MAXIM 시그니처 티셔츠/파나소닉 방수 캠코더 등 100번 채 MAXIM과 함께하면 온갖 선물과 이벤트가 쏟아진다!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10월호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를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꽤나 즐겨찾기 하신다.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니?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 1 MAXIM 10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10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첨부분 이미지와 댓글이 날수록, 내용이 알찰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차츰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사진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11월호 MAXIM 폴라로이드 이벤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물을 확인한다.

## BEAT THIS CAPTION

### 이달의 도전 과제



확실히 재가 쏠요.

말풍선  
달라치기



### 용모하기

-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리나라!
- 2 용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편집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or@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님에게 [TASK] 액티브 모이스춰/수분 공급 에센스)를 선물로 주겠다.



### WINNER 지난달 우승자

"수능 70일 남기고 내가 푸켓에서 열리는거..." - 송형주



기출 문제집에 국지성 호우처럼 쏟아져 내린 수많은 작대기에 영혼이 빠져나가 있을 고3의 압박이 고스란히 전해져 담담 에디터까지도 울컥하게 만들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주 1회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히 댓글까지 남겨준 송형주 독자의 열정과 여유에 감복하여 선물을 보낸다. 수능 대책 부임부임!

### AND LOSER...이 패배자들!

맥심 100회 표지는 나의 것 이영미 보고 있어!

ID 건대취취

말이 짚다?

판정장

군인과 승려를 명시 내 영에 실 수가 없네그라~~~ 푸함함~~~

ID 뉴욕권터

당신 덕에 내 영이 줄어들겠네.

MAXIM

방 잡고 연락취

ID 대구극청

요즘 모델은 다쳐 폐이가 대세

MAXIM



Men's day  
남자의날  
11/1

tcast



**FX**  
남자의 모든것



# Got MAXIM?



경고 ①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그립니다. MAXIM은 폐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리게 합니다. 아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불용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기게, 교미사실, 독점해법, 거친수컷, 폐인개임, 총질잡질, 프로운동, 새만차량, 오드바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패드 매거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